



월간 북한동향

제5권 제3호 (2011년 5·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5권 제3호 (2011년 5·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5 May 2011

❶ 주차_5.01-5.08	1. 대내 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6
	3. 대남 20
❷ 주차_5.09-5.15	1. 대내 2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41
	3. 대남 44
❸ 주차_5.16-5.22	1. 대내 52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73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77
❹ 주차_5.23-5.29	1. 대내 8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2. 대외 103
	3. 대남 108
❺ 주차_5.30-5.31	1. 대내 112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17
	3. 대남 118

인쇄: 2011년 7월 발행: 2011년 7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김아영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6 June 2011

❶ 주차_6.01-6.05	1. 대내 122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135
❷ 주차_6.06-6.12	1. 대내 14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157
❸ 주차_6.13-6.19	2. 대외 157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162
❹ 주차_6.20-6.26	3. 대남 162	188
❺ 주차_6.27-6.30	1. 대내 16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05
	2. 대외 18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210
	3. 대남 183	212
	1. 대내 21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22
	2. 대외 22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224
	3. 대남 224	
■ 5월 일지 / 230		
■ 6월 일지 / 233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5.01-5.08

5월

1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노동절 北 ‘강성대국 건설’ 분발 촉구(5/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민주조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까지 한 해가 남았고 우리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껴야 한다”며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하루빨리 강성대국으로 세계에 높이 떨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
 - 사설은 “올해 인민생활 향상 대진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드세고 과감하게 벌여나가야 할 때”라고 독려
 - 또한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숭고한 혁명적 품모”라며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당부
 -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도 ‘강성대국 건설에서 선군조선 근로자의 영웅적 기개를 높이 떨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인민소비품 생산 증가와 식량 증산을 독려
 - 중앙통신에 따르면 남북노동자대회에는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 중앙위원회 관계자와 근로자들이 참가했으며 노래 ‘우리는 하나’가 연주되는 가운데 통일기가 게양되었다고 함.
- 北 “일본인 2명 억류, 1명 추방”(5/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마약과 위조화폐 혐의로 일본인 2명을 억류하고 1명을 추방했다고 보도
 - 중앙통신은 “지난 3월14일 라선시에 들어온 일본인들인 전 JP다이린주식회사 대표취체역 후루야 마사끼, 일본 리아라이즈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아베 히데히꼬, 일본 스기다공업주식회사 전무 히로오카 다쿠미가 마약,

- 위조화폐 범죄로 해당 기관에 억류됐다”며 “그들이 범죄행위와 엄중성을 인정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후루야씨는 북한에서 추방됐고 나머지 2명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공화국 법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매우 엄중한 범죄로 그에 따르는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함.

● **北김정일·정은, 軍종합체육관 개관식 참석(5/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종합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개막식 참석에 이어 개관경기를 관람하고 “체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며 중앙통신은 전함.
- 이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개관사를 통해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을 향해 온 나라가 내달리는 시대의 숨결에 발맞춰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여 모든 체육 종목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이날 개관식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 당비서, 김경희 당 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주규창 당 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부국장, 김명국 군 작전국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리병철 공군사령관, 최부일 군 부총참모장, 김영철 경찰총국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 박명철 체육상 등이 수행했다며 중앙통신은 보도

● **北조평통, 南 인권거론에 “징벌할 것”(5/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한의 ‘북한자유주간’ 행사와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등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규정하고 “우리 인민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보려는데 그 추악한 속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은 인권은 고사하고 핵참화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떠들면 떠들수록 반통일 집단으로서 정체만 더욱 드러날 뿐”이라고 덧붙임.

● “北호위사령부 요원 베이징 체류” 보도(5/6,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경호를 전담하는 호위사령부 소속 요원들로 보이는 북한 인사들이 베이징에 체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아직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구체적인 방중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또한 연합뉴스는 국내의 한 신문을 인용해 6일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호위사령부 요원들로 추정되는 북한 인사 20여명이 4일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전함.
- 이어 이 신문은 이들이 북한 호위사령부 요원들이 확실하다면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 부위원장의 방중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선발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
-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측의 초청이 유효하고 방중을 위한 조건도 형성돼 있어 김 부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의 판단에 따라 어느 때에도 이뤄질 수 있는 상태”라며 “방중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밝힘.
- 또한 연합뉴스는 구체적인 방중 시기를 놓고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최근 ‘4월말 5월초’ 방문이 유력하게 부상했던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시 북한의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6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전망

● 北김정일, 평양시 경공업공장 현지지도(5/6,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방직공장 등 평양시내 경공업 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김 위원장은 평양방직공장의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노동자들이 과학중시사상을 받들고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 한다”고 강조했다며 낙랑봉화피복공장을 방문해서는 “노동자들의 기능 수준을 높여 옷 가공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봉화비누공장을 시찰하고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을 위해 생산을 끊임없이 늘리고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앙방송은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수지연필공장을 방문해 생산품과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은 질이 좋은 수지연필과 색연필을 더 많이 요구하는 만큼 날로 늘어나는 필기도구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맡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야 한다”고 중앙방송은 전함.
 - 이날 김기남·태종수·문경덕 당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수행

● **北김정일 남흥청년화학 시찰…비료생산 독려(5/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대표적 석유화학공장인 평안남도 안주시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비료생산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남흥의 노동계급은 나프타에 의한 비료생산 체계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나라에 흔한 무연탄으로 비료를 다량생산해냈다”며 “김정일 동지께서 비료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비료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기쁨을 금치 못했다”고 전함.
- 김정일 위원장은 “기업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사회주의 협동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
- 중앙통신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무연탄으로 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나프타로 비료를 생산할 때보다 생산원가는 크게 줄이고 생산량은 배로 늘릴 수 있게 됐다고 주장
- 시찰에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태종수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홍인범 평안남도 책임비서가 동행
- 이에 연합뉴스는 김 위원장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찾아 비료생산을 독려한 것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식량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원산 은하피복공장 지배인 등에게 「감사」 전달(5/8,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北노동당대표단-루마니아사회주의당대표단, 5.2 평양에서회담진행(5/2, 중통·중방)
- 김일성의 조국통일3대원칙 발표(1972.5.3) 39돌 즈음 김일성 父子의 조국 통일운동 업적 선전 및 “△駐韓美軍 철수, △韓-美합동군사연습 중단, △同원칙과 남북공동선언 관철 투쟁” 선동(5/3, 중통·민주조선)
-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을 위해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 주장과 “△주권존중, △反帝투쟁, △사대주의의 不許, △자위적 국방력 강화, △불력불가담운동 및 남북협조” 강조(5/4, 중통·노동신문)

나. 경제

● “생명선 지켜라” 北 식량증산 연일 독려(5/2, 연합뉴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는 올해 농업을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으로 강조한 북한이 모내기 철을 앞두고 식량증산을 연일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황남은 보란듯이 일어섰다’는 정론을 통해 대표적 곡창지역인 황해남도를 거론하며 “강성대국의 풍년가을을 향해 천만 군민 힘차게 돌진하자”고 촉구
- 이어 노동신문은 “우리 마음에 농립모를 같이 쓰고 같이 씨레치기를 하고 같이 모내기를 하고 함께 김매기를 하면서 농업전선의 사계절과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민뿐만 아니라 북한주민 전체에게 농업지원을 강조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농업 근로자들이 벼 모판 씨뿌리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다”며 “전국적인 벼 모판 씨뿌리기 실적은 22일 현재 75% 계선을 넘어섰다”고 전함.
- 또한 중앙통신은 “협의회에서는 농업전선의 비약적 발전에 기업소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가스화 대상을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해 현대화하는 문제, 연관단위들에서 원료와 동력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해 비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졌다”고 전함.
-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강성대국의 해’로 정한 2012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식량난을 주민 동원으로 풀어보겠다는 당국의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알려주는 대목이며, 북한의 이 같은 자구 노력에도 식량 증산에 필수적인 비료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WFP 식량분배 감시 北시장서도 가능”(5/3, 미국의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 긴급식량지원 개시를 앞두고 분배 감시를 위해 상주 국제요원을 기존 10명에서 5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
- 방송은 WFP의 긴급식량지원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 상주하게 된 국제요원 59명 중 12명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며 “인력의 60% 이상을 분배현장 감시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함.
- WFP는 “매달 북한내 400여개 지역에서 WFP 소속 국제요원이 현장실사를 하는 것에 북한당국과 합의했다”며 “실사에 대한 사전통고 기간은 기존 일주일에서 24시간으로 줄었고 도·군 단위 시장에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힘.
- WFP는 앞으로 12개월간 약 350만명의 북한주민에게 31만t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北-中 라선특구 고리삼아 경협 ‘젠걸음’(5/4,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라선특구 합작개발을 고리로 삼은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이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라진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가 내달 본격화하고 북한과 중국을 잇는 교통망 추가 확충과 물류 교류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고 전함.
- 훈춘시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말 훈춘-라진 도로 보수 공사 착공식을 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것”이며 “날 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30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 정부 간부들도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향후 5년간 35억 달러를 들여 라선특구 부도와 도로, 정유시설, 가공단지 등을 합작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어 황철남 라선시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지린(吉林)성을 방문한 데 이어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같은 달 연변과 북한의 라선, 청진을 잇달아 방문, 경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최근 들어 라선특구 개발을 위한 북·중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이어 북한도 5성급 호텔과 골프장, 현대식 대규모 시장 건설 등 라선특구를 국제 자유무역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마련, 최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며 중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보도

● 1분기 北中교역 2배로 급증…10억달러 육박(5/4, 미국의소리(VOA))

- 올해 1분기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액이 급증해 전년 동기의 배로 늘어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
- VOA는 한국무역협회가 중국해관통계를 종합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3월 북중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대인 9억7천2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1분기 4억8천6백만 달러의 배로 늘어났다고 전함.
- 1분기 북한의 수출액은 4억134만달러로 작년 동기(1억2천700만달러)보다 218%나 급증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매월 100% 이상 급증세가 이어져왔으며,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5억7천100만달러로 작년 동기(3억5천900만달러)보다 59%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무역수지는 1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보도

● 北 “中관광단, 두만강·라선 등 둘러봐”(5/4,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 중국인 관광단이 지난달 29~30일 북한의 두만강과 나선시 일대의 역사유적 및 관광지를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최근 중국관광단 성원들이 조선의 일부 지역을 참관했다”며 “이번 참관사업은 조선(북), 중국, 러시아 3국 율환선관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밝히며, “라진항을 비롯한 경제대상들도 참관했다”고 덧붙임.

- **WFP, 자금 부족으로 대북식량지원 지연(5/5,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긴급식량지원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나나 스카우 WFP 대변인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발표한 (대북 긴급) 식량배급을 시작하지 않았다”며 “32만t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현재 보유한 곡물은 영양강화과자를 만들 8천t밖에 없는 만큼 일단 자금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
 - 스카우 대변인은 “새로운 긴급지원사업 발표가 당장 식량을 배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기금 확보를 위해 긴급지원사업의 명세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
 - RFA는 이어 ‘워싱턴의 북한문제 전문가’의 언급을 인용해 “WFP의 새로운 식량지원발표는 미국의 지원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WFP가 지원한다는 곡물 31만t은 2008년과 2009년 미국이 북한에 지원하려던 50만t 중 이미 지원한 17만t의 곡물을 제외한 33만t을 연상시킨다”고 덧붙임.

- **“춘궁기 北 쌀값 급등, 달러환율도 올라”(5/6, 자유아시아방송(RFA); 데일리NK)**
 - 최근 북한에서는 장마당 식량가격이 날로 올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RFA는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 4월에 kg당 1천500원에 거래되던 쌀값이 5월 들어 1천900~2천원으로 급등했다고 전함.
 - 데일리NK도 지난 3일 “춘궁기 식량수요가 증가하면서 쌀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쌀값이 평양에서는 kg당 1천800원, 신의주와 혜산에서는 1천900원과 2천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
 - 이처럼 식량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봄철 들어 쌀 비축량이 줄어들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쌀 지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RFA는 분석
 - 이 방송은 세계적으로 약세인 미국 달러화의 경우 외화 암시장에서 1달러가 3천원에 거래되던 4월 초보다 150원 가량 오른 3천150원에 거래되는 등 북한 원화 대비 달러, 위안화 환율도 많이 올랐다고 전함.

● **中룡징-北칠보산 관광코스 개통北·中·러 순회 무비자여행 첫 합의(5/6,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에서 북한 칠보산을 다녀오는 관광코스가 신설됐다고 연변일보가 보도
- 룡징에서 싰허(三合)통상구를 거쳐 북한의 명산으로 꼽히는 칠보산을 둘러보는 이 관광코스는 ‘변경(邊境)관광’으로 분류돼 비자 없이 통행증 발급만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룡징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신문은 기대
- 훈춘(琿春)에서 북한 라선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순회하는 3국 무비자 관광이 지난달 26일 첫선을 보인 데 이어 룡징-칠보산 관광이 개통됨에 따라 북-중 관광 교류가 활기를 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함.
- 중국은 지난해 4월 북한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4년 만에 해제, 중국인들의 북한관광을 전면 허용했으며 이에 맞춰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해 3월 지린성 바이산(白山)-창바이(長白)현-북한 혜산 코스와 옌지(延吉)-훈춘(琿春)-팡촨(防川)-라진·청진 코스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동북지구 관광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

● **“北 대중국 광물수출 8년 사이 17배 ↑”(5/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광물자원이 2002년 약 5천만달러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17배(8억6천만달러)로 늘어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RFA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북한자원연구소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파악했으며, 올해 1분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 중 1~3위는 모두 광물자원이 차지했다고 보도
- 올해 1.4분기에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팔아 벌어들인 금액은 1억5천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8만 달러보다 15배나 됐으며, 올해 3개월 동안 석탄수출액은 작년 석탄수출액(3억8천600만달러)의 약 40%를 차지했다고 RFA는 설명

■ 기타 (대내 경제)

- 김영남·최영림·양형섭 등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내각·성·중앙기관 黨·정권기관 일꾼 등, 5.1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축하 방문 등 노동자들과 「5.1절」기념(5/1, 중통·중방)
- 北각지 농촌들, 모내기 기계 수리정비 사업 4월30일 현재 100% 완료(5/2,중방)
- 平南·平北道등 각지 전문약초재배 단위들, 약초씨뿌리기와 약초모관리에서 성과 이룩(5/3, 중통)

다. 사회·문화

● “北에선 5월5일 몰라요”...6월이 ‘어린이달’(5/4, 연합뉴스)

- 북한에서는 어린이날 대신 6월1일 ‘국제아동절’을 기념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어 뉴스는 ‘국제아동절’은 1949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민주여성연맹이사회’에서 매년 6월1일을 어린이들의 국제적 기념일로 제정한 데서 시작된 대표적인 사회주의 명절로 북한에서 국제아동절은 탁아소나 유치원 어린이를 위한 날로 각지 탁아소,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전함.
- 또한 2006년 6·15 남북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5월5일에 남북한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특별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을 때 북측이 난색을 표시한 것은 이러한 남북 간의 문화차이 때문이었다고 함.

● 北TV, 中드라마 잇달아 방영(5/6,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최근 북한에서 중국 TV 드라마가 잇달아 방영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
- 북한의 조선중앙(CC)TV는 최근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을 조명하는 드라마를 연속 3차례 방영했으며, 조선중앙TV는 지난해 8월 ‘외국영화’ 코너를 통해 이소룡의 스승이자 중국의 전설적인 무술 영웅인 엽문의 일생을 다룬 홍콩 액션영화 ‘엽문’을 우리말 더빙으로 방영
- 조선중앙TV는 2004년 5월 고전드라마 ‘홍루몽’을 내보냈고 문화대혁명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한 ‘갈망’과 중국 영화 ‘따뜻한 봄(暖春)’을 방영한 적이 있지만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된 중국 드라마들을 잇달아 방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지난해부터 찾아진 북-중 양국 간 문화교류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보도

● “태국 불법입국 탈북자 6년만에 53배”(5/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을 떠난 뒤 중간경유지인 태국에 불법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지난해에만 약 2천500명에 달해 6년 만에 50배 넘게 늘어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RFA는 태국신문 방콕포스트를 인용해 북한을 탈출하고 나서 중국이나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불법입국했다가 체포된 탈북자가 2004년 46명에서 지난해 2천482명으로 늘었으며, 이는 6년 만에 53배로 늘어난 수치로 올해 역시 4월까지 870명의 탈북자가 태국에서 체포된 상태라고 RFA는 덧붙였다.
- 태국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북조선난민구호기금 관계자는 “극심한 식량난과 2009년 말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해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2 대외

● 濠외무, 중국의 북한 감싸기 중단 촉구(5/4, 자유아시아방송(RFA))

- 케빈 러드 호주 외무장관이 중국에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게 북한 감싸기를 중단하도록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러드 장관은 3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아시아의 부상, 국제협력과 미국 외교정책’ 제하의 토론회에서 북한을 국제사회 ‘분쟁의 불씨(tinderbox)’로 규정한 뒤 중국에 대해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일으킨 북한과 관계를 지속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전함.
- 또한 호주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후 대북 개발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드 장관은 최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세계식량계획(WFP) 등 북한 식량실태조사단에 호주 관리 2명이 참가했다며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검증된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힘.

● 60년만에 고향땅으로 돌아간 영국군 유해(5/4, 조선중앙통신)

- 6·25전쟁에 참가했다가 북녘땅에서 숨진 영국군 비행사의 유해가 60년 만에 고향땅으로 돌아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중앙통신은 “조선전쟁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영국군 비행사 데스몬드 프레드릭 윌리엄 힌톤의 유해가 4일 관문점을 통해 영국 측에 송환됐다”고 밝힘.
- 또한 힌톤씨의 유골이라도 찾고 싶다는 고인의 동생의 요청에 따라 영국

- 정부가 2002년 북한 당국에 유해발굴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유해를 찾아나섰다고 보도
- 중앙통신은 유족은 올해 3월 힌튼씨의 유해를 고국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요청했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북한 내 영국대사관과 협의한 끝에 유해와 유품을 발굴해 유족에게 넘겨줬으며, 이처럼 영국군의 유해가 고향에 돌아간 것은 1995년 육군 이등병의 유해가 송환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전함.
 - 또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앞으로도 지난 조선전쟁이 남긴 상처를 가시게 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인 유해발굴 송환에 적극 협력해나갈 입장을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카터 “北, 식량 모니터링 ‘문제없을 것’ 밝혀”(5/5, 연합뉴스)

-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카터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방북 보고서를 통해 방북시 만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분배에 관한 미국의 모니터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어 그는 박 외무상이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면서 비핵화 관련 공동성명의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이행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그러나 박 외무상은 북한이 적대적인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로 위협을 받고 있는 한 북한이 핵무기들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다면서 역내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스스로 핵 보호력을 갖고 있거나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며 주장
- 또한 카터 전 대통령은 박 외무상과의 면담에서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서면 요구도 전달했다고 밝힘.
- 하지만 다음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전용수씨 석방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알려줬으며, 특히 김영남은 카터 일행에게 놀랄 만큼 부정적이고 대결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전함.
- 이와 함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카터 일행과의 면담에서 1994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의 모든 요소들을 북한이 이행할 뜻이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이 밖에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기간에 만난 북한 군부의 박림수 국방위원

회 정책국장도 한국과 전제조건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전했으며, 북측은 한국전 당시의 미군 유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른 유해 발굴에 대한 협력 방안도 제안했다고 보도

● ITU “北에 해킹 중단 촉구 가능”(5/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북한에 사이버 공격 중단을 촉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보도
- ITU의 산자이 아차리아 대변인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도 ITU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한국을 대상으로 컴퓨터 공격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수 있다”고 밝힘.
- RFA는 전문가의 언급을 인용해 “북한의 컴퓨터 공격을 처벌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국제기구나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세계의 컴퓨터 공격에 대항해 대책을 세우는 국제기구인 ‘사이버 테러에 대항하는 국제다중협력기구’(IMPACT)도 디도스를 비롯한 북한의 컴퓨터 공격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

● 전IAEA 사무차장 “北, 리비아에 핵물질 수출”(5/7, 미국의소리(VOA))

-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2004년 리비아에서 발견된 핵물질은 북한이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
- 하이노넨 전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 리비아에서 (우라늄농축에 사용되는) 육불화 우라늄(UF6)이 발견됐는데 이때의 기계장비와 북한의 핵개발용 부품 구매 행태, 파키스탄이 제공한 정보 등을 종합하면 북한이 만든 육불화 우라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시리아의 핵 연계는 좀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파괴한 시리아의 원자로가 북한의 원자로와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이고 이는 주목할만한 대목”이라고 답함.
- 하이노넨 전 사무총장은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 우라늄농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IAEA 사찰단이 방북하면 반드시 이들 시설을

-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그는 북한이 지난해 방북한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IAEA 사찰단 복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이 사찰단 초청을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찰단 복귀가 아니라 사찰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영변의 원심분리기를 한번 보고 돌아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

● **‘재스민혁명’ 때문에 발목인 北해외주재원들(5/8,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해외 주재원들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재스민 혁명’ 여파로 당분간 귀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한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반(反)카다피 시위가 벌어진 리비아에 있는 주재원들에게 귀국 불가조치를 내린 데 이어 이집트 등 다른 국가 주재원들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민주화 바람이 북한 내부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고 뉴스는 전함.
-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도 최근 소식지에서 “(북한) 중앙당이 해외대표부에 현시기 조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렸다”며 “국내 출장을 자제하라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국내 출장을 오더라도 조용히 일만 보고 나갈 것을 권유했다”고 전함.
- 실제로 리비아에서는 친카다피 세력과 반카다피 세력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의사와 간호사, 건설노동자 등 북한인 200여 명이 오도기도 못한 채 현지에서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뉴스는 전함.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예멘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예멘에는 약 150명의 북한근로자가 건설과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수도 사나에는 예멘 사람들을 상대로 한방과 물리치료를 하는 북한 의사와 간호사 6~7명이 머물고 있다”고 전함.
- 해외에 파견된 북한 주재원의 상당수는 건설 근로자들인데 이집트나 리비아 등에서는 건설공사까지 중단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연합뉴스는 추정

기타 (대외 일반)

- 이스라엘의 반팔레스티나 군사적 공격 관련 “중동사태는 미국의 지지비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반팔레스티나정책, 영토팽창책동에 의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 傳言(5/2, 중통·노동신문)
- 美國의 ‘일방적·패권주의 정책’으로 “美-러의 전략적 대립과 마찰 (NATO 확대강화, 유럽MD 문제, 잭슨-바니크법 등) 심화” 轉言(5/3, 중통·민주조선)
- EU-北사이 관계발전(대사급 외교관계 수립(2001.5.14) 등)을 “세계의 다극화 실현, 東北亞평화안정에 긍정적 기여”로 평가하며 “우호적인 세계 각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 강조(5/3, 중통·민주조선)
- 미국의 태평양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시험 등 군사적 움직임은 “北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쏘조선반도와 靑-太지역의 군사적 지배권 확립 기도”라고 주장(5/4, 중통·민주조선)
- 미군의 이라크 주둔 8년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파국, 무질서와 불안정, 인권유린 등 악과 재난뿐”이라며 “미국에 대한 환상은 곧 망국, 죽음”이라고 再次선동(5/4, 중통·노동신문·중방)
-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對中비난 발언(3월)에 대한 미국의 友好적 입장표명 관련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 행위,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看參및 경제분야에서도 兩國의 “대립과 모순” 轉言(5/4, 중통·민주조선)

3 대남

● 北, 백두산 이어 이번엔 ‘동해표기’ 카드(5/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이번에는 ‘동해표기’ 카드로 대화를 제의했으며 6자회담으로 가려면 남북대화를 거쳐야 하는 북측이 남측이 거부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17일 백두산 화산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동해표기 협력이라는 기발한 소재를 ‘발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뉴스는 전함.
- 뉴스에 의하면 북측은 지난 27일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명의로 우리 측 동북아역사재단에 팩스를 보내 동해 표기와 관련한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제의
- 연합뉴스는 동해 수역 표기와 관련해 국제수로기구(IHO) 실무그룹에 회원국이 의견을 피력하는 마감시한은 오는 5월2일로 이는 마감시한을 이미 파악하고 남측에 협력제의 타이밍을 치밀하게 잡은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시각을 전함.
-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측의 제안에는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연평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

- 그러나 북측의 의도가 어떻든 남북이 백두산 화산 문제와 관련해 학술토론회와 현지답사에 합의한 것처럼 동해표기 문제와 관련한 남북간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그럼에도 북측이 여전히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태도변화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백두산 화산이나 동해표기 등으로 대화 분위기를 지속하며 당국 간 본격적인 회담으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며 뉴스는 전함.

● **‘농협 해킹’ 北정찰총국은 공작 총괄기구(5/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3일 이번 사태가 2009년 7.7디도스 및 지난 3.4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북한(정찰총국)이 관여한 초유의 사이버테러’라고 발표했다고 보도
- 검찰이 농협 해킹의 주범으로 판단한 북한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북한 군부의 권력기구로 ‘대남통’ 김영철(65) 상장이 총국장을 맡고 있다고 뉴스는 보도
- 또한 올해 초부터는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정찰총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김영철 총국장은 김정은의 핵심측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정찰총국은 지난해 3월 터진 천안함 사태의 배후로도 지목된 기관으로 2009년 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2인조 간첩의 암살 시도도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왔으며, 작년 7월7일과 올해 3월4일 청와대와 포털사이트 등 국내 주요기관을 상대로 이뤄진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도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조계종 방북단 금강산 방문..구호품 전달(5/4, 연합뉴스)**

- 국내 최대 불교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 방북단이 부처님오신날(5월10일)을 앞두고 4일 오전 방북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단 10명은 이날 오전 6시30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발, 오전 11

- 시10분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뉴스는 전함.
- 방북단은 당초 계획했던 남북공동법회는 정부 당국이 불허함에 따라 열지 않기로 했으며, 이날 공동법회를 여는 대신 신계사 대응전 등 법당을 참배했다고 전함.
- 이어 방북단은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육로로 귀환한다고 뉴스는 전함.

● **남북 적십자접촉 무산..침묵하는 北(5/5, 연합뉴스)**

- 귀순자 송환 문제를 비롯해 백두산 화산과 동해 표기 등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던 북한이 열흘 이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특히 정부가 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귀순자 4명 문제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 등 자유의사에 반해 북한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지난달 27일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보도
-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넘어간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우리가 납북자 등의 의제를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함.
- 무엇보다도 현재 남은 의제는 백두산 화산과 동해 표기 문제로 정부는 백두산 화산 전문가 학술토론회를 5월 11~13일 서울 또는 평양에서 열자고 지난달 28일 제의했지만 북측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라는 ‘높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피해 민간 차원의 대화 소재를 적극 발굴하며 접촉면을 넓혀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것으로 이는 북한이 본격적인 대화국면 진입에 앞서 대남 전략기조 전반을 재점검해보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북한은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문제 특별대표와 협의를 거친 뒤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한 전략적 대응기조를 잡고, 이어 나머지 ‘비정치적 대화’들에 관한 대응방향을 정리할 것으로 연합뉴스는 예상
- 특히 4·27 재보선에서 패한 여권 내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남북 관계 측면에서 유연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라

- 는 분석이 있다며 카터 전 대통령 방북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의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카드가 유효해질 수 있다는 관측
- 이와 관련해 대통령 특사로 오는 8~14일 유럽 3개국을 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 통일의 성지인 베를린에서 중대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며 뉴스는 보도

● **北조평통, 南 인권거론에 “징벌할 것”(5/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일 남한의 ‘북한자유주간’ 행사와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등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규정하고 “우리 인민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보려는데 그 추악한 속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이어 그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은 인권은 고사하고 핵참화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떠들면 떠들수록 반통일 집단으로서 정체만 더욱 드러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 **北 “연평도 포격 재현”…南사격훈련 비난(5/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거론하며 지난 3일 이뤄진 남측 해병대의 서북도서 지역 해상사격훈련을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왜 재현하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해 북남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조성했던 연평도 포격사건이 아직도 민족의 가슴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 남조선 괴뢰들이 바로 그곳에서 또다시 포격훈련을 재현하고 있는 사실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 중앙통신은 “특대형 모략사건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적대세력의 무분별한 북침야망이 빚어낸 반공화국 도발사건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엄청난 후과(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남조선괴뢰들

- 은 서해해상 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을 매일같이 벌여놓고 도발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비난
- 이어 “남조선군부는 연평도 사격훈련 같은 군사적 대결소동을 통해 북남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내외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 있다”며 “남조선 호전세력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불을 즐기면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고 위협
 - 또한 북한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전날 “남쪽에 있는 수많은 산과 바다를 제쳐놓고 굳이 여러 차례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한 백령도,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포사격훈련을 벌인 것 자체가 엄청난 도발”이라고 비난

● 개성공단 체류인원 600명대로 확대(5/8, 연합뉴스)

- 지난달 중반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하루 평균 체류인원이 600명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기존 하루 500명선에서 4월13일께부터 600명을 넘어 대략 650명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4월 중순부터 생산 활동과 관련한 인원에 대해 “기존보다 탄력적으로 체류를 승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류인원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할.
- 이는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보류했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순수 인도적 지원을 3월 말 재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다소 수그러든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의(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기위한 상황인가 더 중요하다 등) 對北 발언은 “남북관계의 장래와 관련한南당국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對北정책 전환’ 요구(4/29, 중통·평방)
- 최근 我軍의 군사훈련(서해상과 경기도 일대 합동훈련, 對테러종합훈련 등)진행 관련 “대결정책 持續추진, 북침전쟁 도발책동 박차” 등으로持續비난(4/29, 중방)
- ‘韓美핵확장억제수단 운영연습 실시 합의’ 관련 “핵위협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군사적 실천단계로 이행했다”며 “사태는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에로 떠밀고있다”고 주장 및 ‘전쟁억제력 강화의 정당성’ 강조(5/2, 평방)
- “南당국자들은 입으로는 대화를 부르짖으며 전쟁열 고취,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다”며 “대결전쟁책동은 남북관계 개선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엄청난 반민족적 죄악”이라고 비난(5/2, 중방)
- 지난해 ‘北천안함 폭침’ 이후 ‘韓美연합해병대훈련’ 예정(7월) 및 我軍의 서해상일대 훈련강화 등에 대해 “서해에서의 긴장상태는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비난(5/4, 중통·노동신문·중방)

- 統一部の 임시국회 회기내 '北인권법' 통과 시도 관련 "체제통일야망은 부질없는 망상으로 절대
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5/4, 중통·노동신문·평방)
- 現남북관계는 "민족중시 입장과 자세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南당국의 "외세
공조정책 철회 및 우리민족끼리 입장및 자세" 요구(5/4, 중통·노동신문)
- 「조평통」 대변인, 5.5 南의 '北자유주간'행사 개막 및 '北인권법' 제정움직임 관련 중통기자 질의
답변을 통해 "南민심과 사회여론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는 한편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달성 속심"이라고 비난(5/5, 중통)
- 7월 韓美합동군사연습(백령도) 실시 예정 관련 '기습타격을 노린 침략전쟁기도의 발로'라고 주장
하며 "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 노골적 침범행위로 된다"고 비난(5/8, 중통·노동신문)
- 근로자의 날' 노동운동단체들의 대규모집회 및 보수 당국을 규탄하는 시국선언 발표 관련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는 것은 반인민적 惡政이 낳은 후과'라고 비난(5/8, 중통·민주조선)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5.09-5.15

5월

2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김정일, 김형직사범대 공연 관람(5/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일 동지께서는 새세대 청년대학생들이 강성대국 건설의 주요 전투장에서 큰 몫을 맡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시며 주체혁명 위업 완성은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함.
 - 이어 “출연자들은 영원히 당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대학생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다”고 덧붙임.
 - 공연관람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남·최태복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중수·김평해·문경덕 당 비서가 동행
 -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을 비롯해 당 중앙군사위원들인 김경옥 당 조직부 제1부부장, 김원홍 총정치국 부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도 공연을 함께 봤지만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수행단 명단에서 거명되지 않았음.
- **美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방북(5/10, 조선중앙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저명한 부흥전도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10일 방북해 박의춘 외무상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담화 내용이나 그레이엄 목사의 방북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시점에 이뤄진 방북이라 주목

- “1990년대에 북한 주민 100만명 이상이 굶어죽었는데 지금도 그 때만큼 심각하다”면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그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결정이 권력승계 과정에 있는 북한의 새 지도부를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함.
- RFA는 대북 구호 활동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그레이엄 목사가 식량지원 재개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

● **지재룡 주중 北대사, 中國방부장 면담(5/10, 평양방송)**

- 지재룡 중국주재 북한대사가 9일 양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을 예방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양 부장은 지 대사를 접견해 환담하면서 “중국과 조선의 친선은 시련을 이겨내고 피로써 맺어진 것이다. 중국과 조선 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해 어깨를 걸고 싸웠다”고 강조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 대사가 대사 직책으로는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중국의 당·정 고위인사를 집중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 북한의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애국열사릉’ 확충에 부쩍 열 올리는 北(5/1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북한이 우리의 국립묘지격인 ‘애국열사릉’ 확충에 부쩍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새 열사릉 건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올해 4월까지 모두 10곳의 열사릉을 새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됨.
- 2008년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해로 알려져 있어 열사릉 확충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북한은 2008년 12월 평성열사릉 준공을 시작으로 2009년 8월 함흥, 12월 해주·사리원, 2010년 6월 혜산, 7월 평양·원산, 8월 강계·청진, 2011년 4월 신의주열사릉을 잇달아 완공함.

- 미국의 위성사진 분석전문가인 커티스 멜빈씨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애국열사릉이 모두 근래에 지어진 새 것”이라고 확인함.
- 북한이 이처럼 열사릉 건축에 열을 올리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와 후계구도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연합뉴스는 밝힘.
-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후계구도를 그려나간 시기와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원로급 간부들을 대우함으로써 권력층의 충성심을 높이고 이탈을 막고자 ‘열사릉 전략’을 사용했다는 분석까지 가능하다고 뉴스는 전함.

● **北김정은 ‘구호’에도 등장…우상화 본격화(5/11,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구호’에도 실명으로 등장함으로써 우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조선중앙TV가 11일 오후 6시부터 약45분 간 방송한 다큐멘터리 영화 ‘민족 최대의 명절 2월16일’에는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
-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은 군부대 공연 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는 글귀가 담긴 플래카드가 등장한 것으로 김 위원장과 김정은의 이름을 함께 놓고 충성을 강조함으로써 세습을 위한 분위기 조성 노력이 진행중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 중앙TV가 방송한 영화는 대부분 김정일 위원장의 올해 생일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김정일화 전시회, 얼음축전, 음악공연 등을 종합적으로 편집했는데 후계자 김정은을 암시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담김.
- 공연 장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첫 찬양가요인 ‘발걸음’ 연주와 합창 모습이 포착됐고 북한 여성들의 수예작품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발걸음’의 가사를 수놓은 작품도 등장했으며, 또 얼음축전에서는 ‘수령복’ ‘장군복’ ‘대장복’이라는 얼음조각이 등장했는데 이를 통해 ‘고 김일성 주석-김정일 위원장-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대해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행사 속에서 김정은을 우상화함으로써 후계자에게 부족한 정치적 리더십을 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고 내다봄.

● 北 김정일, 평북 구장양어장 시찰(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구장군의 구장양어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함.
- 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전한 것은 지난 10일 김형직사범대 공연 관람 이후 이틀만으로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장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동행하지 않았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양어장을 돌아보고 “최근 군대와 사회가 건설한 양어장에서 많은 민물고기가 생산돼 군인과 인민이 그 덕을 크게 보고 있다”며 “이전번은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밝힘.
- 현지지도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평해 당 비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 리만건 평북도 당책임비서가 수행함.

■ 김정일동향

- 김정일,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공연 관람(5/9, 중방·중통)
- 리영호, 김기남, 최태복, 김경희, 강석주,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리명수, 김경옥, 김원홍, 김영철, 현철해 등과 함께 관람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5/9, 중방)
- 김정일, 구장양어장(平北 구장군 소재) 현지지도(5/12, 중통·중방)
- 리영호, 김경희, 장성택, 김정각, 김평해, 우동측, 리명수, 현철해, 리만건(平北道黨 책임비서) 등 동행
- 김정일, “혁명사적사업에 기여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14, 중방)
- 김父子묘향산지구 현지지도 30돌 기념 보고회, 5.14 이만건(평안북도 당책/보고)참가下진행(5/15,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北 노동당 대표단(김영일, 黨 비서)과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안데르스 칼손’ 단장) 회담, 5.10 평양에서 진행(5/10, 중통·중방)
- 박의춘 외무상, 5.10 美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美 비정부단체 ‘사마리탄즈 퍼스’ 회장) 일행과 담화(5/10, 중통)
-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5.12 만수대의사당에서 訪北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美 비정부단체 ‘사마리탄즈 퍼스’ 회장) 일행과 담화(5/12, 중통)

나. 경제

● 北-中 신압록강대교 건설 본격화(5/9,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최대 교역 거점인 신의주와 단둥(丹東)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본격화되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이어 단둥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20여 명의 인부들과 2-3대의 대형 크레인 등이 동원돼 건설 자재를 운송할 선박 정비 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부두 건설에 쓰일 철근과 상판 등이 공사 현장에 수북이 쌓인 가운데 매일 저녁 늦게까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함.
- 또 다른 소식통은 “이달 말 북한과 중국 고위층이 참석한 가운데 인근의 압록강 섬인 황금평 개발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이 착공식에 맞춰 정박지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다”고 말함.
- 북한과 중국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양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했으며, 건설 비용(17억 위안) 전액을 중국이 부담, 3년 뒤 완공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는 기존 압록강 철교에서 8km가량 하류에 건설돼 신의주 남부와 단둥 신도시가 들어서는 랑터우를 연결한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과 중국은 이 다리 건설과 함께 인근 압록강 섬인 북한의 황금평 자유무역지구 합작개발도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는 등 압록강 일대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함.

● “北-中 ‘경협 통로’ 구축 가속화”(5/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과 중국이 양국 ‘경제협력 통로’ 확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보도
- 두만강 교역 창구인 중국 훈춘(琿春)과 북한 라진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데 이어 압록강 유역 최대 무역 거점인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뉴스는 전함.
- 훈춘-라진 도로 보수는 중국이 공을 들이는 두만강 유역의 동해 향로 확보와 양국이 합작개발키로 한 라선특구 개발의 교두보라는 점에서 북-중 경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

- 신압록강대교 역시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신의주와 단동의 교역량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양국 교역 확대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뉴스는 주목
- 우선 훈춘-라진 도로 보수가 끝나면 중국은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고도 비포장도로여서 운송력이 떨어지는 기존 도로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라진항을 이용한 화물의 남방 운송을 본격화할 수 있으며, 또 무산 등 훈춘과 인접한 북한의 석탄과 철광 등 풍부한 지하자원 합작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보도
-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건설에 합의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리 건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응한 것은 황금평 합작개발을 고리로 한 중국의 설득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中, 28일 황금평 합작개발 착공식”(5/10,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 하류의 섬 황금평 합작개발 착공식을 이달 28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연합뉴스는 10일 단둥(丹東)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중앙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일 착공식을 하고 황금평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함.
- 이어 “북한에서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중국에서는 경제를 담당하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황금평을 중국에 임대하는 국가 간 협정도 체결될 것”이라고 전함.
-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황금평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임대 조건은 북한이 개발권을 중국에 50년 양도하고 50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투자자 유치를 위해 투자 자산과 수익을 보장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황금평 특구법’도 지난해 마련했다고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학자들이 전함.
- 중국은 단둥 랑터우(浪頭) 신도시 조성 완공 시점인 2015년을 전후해 황금평을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는 이달 초 착공한 신압록강대교 완공 시기와도 맞물린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北 원산 재개발…혁명사적관 사라져”(5/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재개발에 한창인 북한 강원도 원산시가 혁명사적관과 그 앞에 서 있는 김일성 주석 기념탑까지 철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RFA는 북한의 위성사진 분석가인 미국인 커티스 멜빈씨를 인용해 “원산 혁명사적관은 김일성 주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2009년 10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사적관과 기념탑이 원래 자리에 없었다”고 전함.
 -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3대세습과 관련해 김정은이 원산초대소에서 태어났다거나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가 원산으로 이주해 살았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으로 볼 때 원산시 재개발은 김정은 우상화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고 RFA에 말함.

- “北 외화벌이용 아편생산 대폭 확대”(5/11, 폭스뉴스)
 - 전문가들은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3일 공개한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농경지 면적이 10년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
 - 실제 요덕수용소 인근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 2001년 발견된 아편 경작지의 북쪽으로 33만에이커(약 13만㎡) 규모의 농경지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함.
 - 한 전문가는 “요덕 수용소의 농작지 규모가 늘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 곳은 지난 2001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아편 생산을 위한 농지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함.
 - 북한 인권위원회 척 다운스 사무총장도 “수용소를 관리하는 북한군은 수감자들이 흠칠까봐 농작물 생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래서 마약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함.
 - 이어 그는 “마약 생산 확대는 무역제재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대체수단을 강구한 것”이라고 강조
 - 다운스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 정권은 당 간부용 선물을 위해 외화를 쓰는데 지난해에는 외화가 없어 중국산 선물이 도착하지 않는 바람에 대규모 당 행사가 지연된 적도 있었다”고 전함.

- 북한이 이처럼 마약 재배를 대폭 늘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방국가들은 주로 북한의 핵 관련 수출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뉴스는 분석
-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헤로인 생산을 시작했는데,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한해 5억~10억달러 어치를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특히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50명 이상의 북한 외교관이나 노동자가 20여개국으로 마약을 운반 중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 **인도지원 재개후 첫방북 마친 유진벨재단(5/11, 연합뉴스)**

- “남북관계 악화에도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남북한이 어느정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북한내 내성결핵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성결핵 약품을 전달하고 돌아온 대북지원단체 유진벨재단의 인세반(미국명 스테판 린튼) 회장의 전언이라며 연합뉴스가 보도
- 인 회장은 11일 “여러 사건으로 남북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가 내성결핵약의 반출을 승인해줬고 북한에서도 협조를 잘해줘 아무 문제 없이 결핵환자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고 방북 성과를 설명
- 인 회장은 “내성결핵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환자 상태를 눈으로 보고 관리서류도 일일이 점검하는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결핵의 발병원인 중 하나가 영양부족인 만큼 여건이 조성되면 영양제나 식량 지원을 추가지원할 것”이라고 계획도 밝힘.
- 유진벨재단은 2009년부터 평안남북도와 평양시, 남포시 등 북한 서북지역에 내성결핵센터 6곳을 마련해 내성결핵환자 약 500명에게 완치될 때까지 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방북때는 이들 중 결핵이 완치돼 ‘졸업’하는 환자 약 20명에게 색종이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는 뒤풀이를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남북교역 중단후 北인력 中에 대거 유입(5/11, 연합뉴스)

-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 이후 북한의 봉제공들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단둥(丹東)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의류공장이 밀집해 있는 압록강 하류 동강(東港) 일대에 파견돼 일하는 북한의 봉제공이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스는 전함.
- 한 소식통은 “예전에 400-500명에 불과했으나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한국 의류업체들의 위탁가공이 끊기면서 1년여 만에 배가량 급증했다”며 “북한 봉제공들은 외부와 전면 차단된 채 공장 내에서만 머물며 일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최근 급등한 중국 인건비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도 매력이지만 한국 업체들과 오랫동안 교역하면서 수준 높은 기술을 갖췄고 밤샘 근무까지 근소리 없이 해내 효율성이 높다”고 덧붙임.
-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투먼(圖們) 의류업체들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1천600여 명의 북한 봉제공들을 고용 하겠다고 중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
- 또 지난 1월에는 이기범 선양주재 북한총영사가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시를 방문, 2천여 명의 여성 근로자 고용을 요청하는 등 북한과 중국이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북한 근로자의 중국 송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뉴스는 전함.

● “佛구호단체, 북한서 젓소농장 추진”(5/11, 자유아시아방송(RFA))

- 프랑스의 한 국제구호단체가 북한 어린이에게 낙농제품을 공급하고자 현지에서 젓소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올해 황해북도 사리원군에 젓소농장을 만들고 19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0~6세의 북한 어린이 1만4천명에게 고단백질 식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함.
- 이 단체의 앤 트레혼다 북한사업담당관은 “올해 139만유로(한화 약 22억원)를 들여 사리원에서 젓소농장 사업을 시작한다”며 “기존에 운영하던 함경남도 영광군과 신흥군의 양어장도 기술 전수를 해 2012년 10월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방송은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과 달리 유럽연합(EU) 차원의 식량지원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함.

● **北 모내기 시작…‘거국적 집중’ 독려(5/1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북한의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 원화협동농장에서 올해 모내기가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중앙통신은 “전에 없이 불리한 일기조건 속에서도 이곳 일꾼과 농장원들은 벼모판 관리에 힘을 쏟아 실한 모를 키워냈다”며 “트랙도르(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비도 제때 끝내고 만반의 준비 끝에 모내기에 진입했다”고 전함.
- 또한 동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농사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모내기 전투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줘야 한다”며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내기전투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 온 나라가 농촌지원으로 법석 끊게 해야 한다”고 강조

● **中 상하이의 북한 단체관광 7월 재개(5/11, 동방조보)**

- 동방조보(東方早報)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전문 여행사인 상하이진뤄(上海錦游)는 7월1일부터 고려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금강산과 아리랑 공연 등을 관람하는 4박5일의 북한 관광을 재개
- 이번에 재개되는 북한 관광의 항공편은 과거와 달리 베이징(北京)과 선양(沈陽)을 경유하지 않는 직항편으로 북한까지 3시간이면 도착하게 돼 비행시간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며, 또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된다고 동방조보는 전함.
- 상하이-북한 관광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재개되다 11월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됐으며,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며 방송은 전함.
- 그러나 작년 이 여행 상품을 이용해 북한을 관광한 중국인은 300명에 못미치며 상하이진뤄가 여행객의 70%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 **“3월 북미교역 74만달러…모두 구호물품”(5/12,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3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교역액은 약 74만 달러(한화 8억여원)로 모두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구호물품이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

- RFA는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들어 북미간 교역은 3월에 처음 있었고 총 교역액 73만7천달러가 미국 측의 구호물자였다”고 전함.
- 미 상무부는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각각 7만달러 어치와 66만7천달러 어치의 구호물자가 북한으로 떠났다고 밝혔지만 출항 날짜와 구체적 품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RFA는 설명함.
- RFA에 따르면 올해 3월의 북미간 교역액은 지난해 3월의 28만달러와 비교해 2.6배로 늘었으며 작년의 경우엔 구호물자가 아닌 열매가 달리는 관목이 주로 북한에 수출됨.

● “北 고위관리 등 통해 슈퍼노트 유통”(5/14, 미국의소리(VOA))

- 북한 정부가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고위 외교관 등을 활용하는 등 위조지폐 생산을 전반적으로 조직·감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
- 방송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자문관을 지낸 데이비드 애셔 말을 인용해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은행과 도박장 등에서 슈퍼노트를 넘기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함.
- 미 재무부 산하 조직으로 백악관의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검찰국(SS)도 2002년 봄 북한 정부와 고위 외교관들과 국영 무역회사 직원들을 통해 범죄조직 등에 슈퍼노트를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 애셔 전 선임자문관은 올해 초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SS는 북한 정부가 슈퍼노트의 디자인과 제조, 유통 과정을 조직하고 감독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북한이 1980년대 후반부터 슈퍼노트 생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됐다”고 보고
- 그는 또 미 연방 워싱턴D.C. 법원도 다량의 슈퍼노트가 북한 정부의 지원으로 북한 내부에서 제조됐으며 정부 당국자로 활동하는 북한인들이 전세계에서 위조지폐의 판매와 운송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내 경제)

- 北各地농산들과 축산기지들, 순환식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농축산물 생산을 늘이고 있다고 선전 (5/14, 중통)

다. 군사

- **“북한-이란 미사일 기술 정기적 교환” <유엔보고서>(5/15, 로이터통신)**
 - 유엔은 북한과 이란이 유엔 제재조치를 어기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환해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함.
 - 로이터 통신이 14일 입수한 유엔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이같은 불법적 미사일 기술 교환은 “인접한 제3국을 통해” 이뤄졌다고 함.
 - 다수의 외교관들은 익명을 전제로 보고서에서 언급된 제3국이 중국이라고 추정함.
 -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뒤 유엔 안보리가 취한 제재 조치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금지된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이 고려항공과 이란 에어의 정기 항공편을 통해 북한과 이란 사이에서 이송됐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함.

라. 사회문화

- **“北 각지 사찰서 석탄일 통일기원 법회”(5/10, 조선중앙통신)**
 - 석가탄신일인 10일 북한 각지 사찰에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관계자 등이 동시법회에 참석했고, 연설자들이 “불심화합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또 “동시법회에서 남북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삼고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힘을 합쳐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실천에 용맹정진해 나갈 데 대한 북남공동발원문이 봉독됐다”고 덧붙였다.
- **中단둥 휴대전화 불통잡아..北전파방해인듯(5/11, 연합뉴스)**
 - 올해 들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단둥(丹東) 일대 휴대전화 불통 사례가 부쩍 잦아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단둥 주민들은 신의주 일대 북한 주민들이 단속망을 피해 중국과 은밀하게 통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전파 방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단둥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휴대전화 불통이 잦아졌으며 특히 '133' 번호의 휴대전화 통신 장애가 심각하다고 뉴스는 밝힘.
- 이어 133 번호의 통신 장애가 유독 심한 것은 북한의 전파 방해가 북한 주민과 중국 내 한국인들의 통신 차단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함.
-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한 주민은 “북한이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마다 반복됐던 현상”이라며 “재스민 혁명 이후 불온 사상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북한 내부의 열악한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당국이 전파 방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함.

● 北 “방사성물질 농도 급감…동서해 영향 없어”(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지역에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되다가 이달 초부터 농도가 크게 떨어졌고 동서해 물고기나 바닷물에는 일본 원전사고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최근 조선에서 지난 3월12일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지금까지 환경방사능 감시결과가 발표됐다”며 “3월25일 경 요오드-131과 세슘-137이 미량 검출되기 시작했고 4월초에 농도가 최대로 올랐다가 이달초 최대 때에 비해 약 100분의 1로 떨어졌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조선의 동해와 서해에서 바다물과 식물, 물고기에 대한 핵종분석결과 일본의 핵사고 영향이 아직까지는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임.

● “美NGO, 北국립결핵원에 기술지원단 파견”(5/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평양 국립결핵원 수술실을 손보고 실험장비 사용법 등을 알려주고자 16명의 지원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밝힘.
- RFA에 따르면 이 단체 하이디 린튼 대표와 미 스탠퍼드대 샤론 페리 박사 등이 포함된 지원단은 10일부터 24일까지 북한에 머무르며 국립결핵원의 수술실 개보수를 도울 계획이라고 함.

- 또한 이 단체는 국립결핵원에 표준결핵연구소를 지었으며 이번에 북한 의료진에게 연구소의 실험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줄 계획이라고 RFA는 전함.

● “北 재스민혁명 여파 우려 中친지방문 불허”(5/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재스민 혁명’으로 상징되는 아프리카·중동의 민주화 시위 여파를 우려해 주민들의 중국 친지방문 등 사적인(私事)여행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는 북한 거주 화교(朝僑)인 류모씨는 “북한 당국이 금년 들어 북한 주민들에 대해 공무여행을 제외한 개인적인 여행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며 “화교들의 중국 여행도 전에 비해 중국 방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전함.
- 방송은 다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중국내 친지방문을 제한하는 것은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와 리비아 등지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함.
-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당대표자회(9.28)를 한달 여 앞둔 8월부터 주민들의 중국 친지 방문을 금지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당국은 11월 들어 친지들로부터 되도록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아오라며 다시 허용했으며 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청년대장(김정은 지칭)의 배려’로 선전

2 대외

● 조선신보 “빈라덴 사살은 오만한 제국주의”(5/9, 조선신보)

- 북한 매체들이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에 침묵하는 가운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가 처음으로 미국을 비난
-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9일 ‘국가테러의 원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빈 라덴 사살작전을 “엄연한 주권침해 행위이며 오만한 제국주의”라고 비난

- 조선신보는 “(미국이) 파키스탄 정부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군사행동을 감행한 그 자체가 엄연한 주권침해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미국이야말로 국가 테러의 원흉임을 다시 한번 극적으로 보여줬다”고 주장
- 이어 “오바마가 회견에서 비밀작전을 직접 명령했고 ‘정의를 이뤄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모습은 전인류 위에 군림하듯 행세하는 오만무례한 제국주의”라고 비난
- 조선신보는 “빈 라덴이 9·11의 주모자라는 결정적 증거조차 없고 미국이 그를 용의자로 봤으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걸어야 했다. 빈 라덴은 테러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빈 라덴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 또 “인터넷상에는 미국이 참 무서운 나라라는 것과 함께 테러는 앞으로 오히려 더 우심(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목소리가 범람하고 있다. 미국은 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미국을 거둬 비난

● **클린턴 “중국과 北문제 솔직히 논의”(5/11,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북한, 이란 문제를 포함한 “어려운 문제들”을 중국과 솔직히 논의했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이틀간 열린 이번 전략경제대화 폐막식에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 문제부터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장 집요한 도전들의 일부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했다”고 말함.
- 그러나 구체적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 **美 “남북한 대화, 北에 중요한 기회”(5/1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할 경우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남북한 대화가 북한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힘.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불리 예측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남북한 간 대화가 북한에 있어 진정성을 보이고 관계개선을 위한 행동을

- 취할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언론보도 등을 봤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호전적인 행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강조
 - 토너 부대변인은 이어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을 통해 대화 재개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남북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대화 분위기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한국 정부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
 -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연합뉴스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을 초청하는 문제는 한국의 결정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국제사회는 내년 서울 핵 안보정상회 때까지 북한의 행동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뉴스는 전함.

● **핵전문가들 ‘北경수로 사고위험’ 잇단 경고(5/11, 미국의소리(VOA))**

- 영변에 몰려있는 핵시설이 대부분 노후한 데다 북한이 현재 건설 중인 경수로도 국제적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며 미국의소리(VOA)가 보도
- VOA에 따르면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은 최근 ‘북한의 핵 딜레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이 경수로를 설계하고 건설하면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헤이즈 소장은 “특히 북한의 낡고 오래된 송전선이 경수로에서 나오는 전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영변의 경수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북한이 혼자 수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경수로 건설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라고 제안
-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도 VOA에 “북한이 기술적인 준비 없이 경수로를 짓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
- VOA는 “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이 IAEA의 관리를 받지 않아 핵 사고를 파악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함.

- 이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월 말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 영변 핵시설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한중 양국의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고 알려짐.

● “리비아 北대사관 나토 공습으로 큰 피해”(5/12, 자나통신; 알-자마히리야TV)

-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주재한 북한 대사관이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군의 공습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리비아 JANA 통신이 북한 대사관 측이 리비아 외무부에 전달한 성명을 인용해 보도
- 북한 대사관 측은 이 성명에서 나토군의 “야만적이고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미사일 파편으로 인해 대사관 건물이 손상됐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외교관은 지난 9일과 10일 사이에 북한 대사관 가까운 곳에 미사일이 떨어져 폭발했다고 말했으며, JANA 통신은 북한 외교관 중에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이에 북한 대사관 측은 나토에 대해 크루즈 미사일 공격이 대사관의 외교활동과 대사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의 중단을 촉구했으며, 나토의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73호와 1970호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
- 알-자마히리야TV도 트리폴리의 군사 및 민간 시설에 대한 나토의 공습으로 북한 대사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

■ 기타 (대외 일반)

- 美 ‘월 스트리트 저널’에 바르게 실린 ‘독도와 동해 명칭’ 관련 日 정부의 항의에 대해 “조선재침, 영토팽창야욕에 사로잡혀 역사자료와 사실들을 강짜로 부인, 왜곡하는 등 비열하고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 고 비난(5/11, 중통·중방·노동신문)
- 日고위당국자들의 對外‘경제협력외교’ 강화 발언 및 움직임은 “발전도상 나라들의 자연부원을 굶어가려는 것이며, 유엔 常任理事局 진출을 위한 국제적 환경마련”이라고 一針(5/13, 중통·노동신문·중방)

3 대남

● 北 “백두산 토론회, 전할 사항 없다”(5/9, 연합뉴스)

- 북한은 9일 우리 측이 제의한 11~13일 백두산 화산 학술토론회에 대해 “(남측에) 전할 사항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통일부가 밝힘.

- 북측은 통일부가 이날 오후 4시께 판문점 적십자채널 마감통화를 통해 “11~13일 백두산 화산 학술토론회와 관련해 전할 사항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이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측이 11~13일 서울이나 평양에서 열자고 제안한 백두산 화산 전문가 학술토론회는 11일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11일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북측에 학술토론회 개최를 다시 제안할 생각은 없으며 북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말함.

● “비핵화합의때 핵정상회의 김정일 초청”(5/10,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를린 시내 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핵 포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한다”며 “이 점에 대해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야기했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제안의 전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와 합의를 이룰 때”라며 “그 진정성의 전제는 북한이 테러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과 문제는 6자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북 문제의 기본”이라고 강조,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도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힘.
- 이 대통령이 직접 대북 제안을 함으로써 남북 비핵화 회담의 계기를 만들어 남북관계 전환의 물꼬를 트고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기도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는 관측
- 그러나 이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와 함께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만큼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

-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제안한 남북 비핵화 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6자 회담을 통해 그랜드바겐 성격의 로드맵에 합의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
- 또한 비핵화 합의의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체 핵프로그램을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인과 같은 대략적 접근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제안에) 더 가깝다”면서 “9.19 공동성명에는 핵 프로그램 폐기 시점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환구시보 “전폭기 판매거부 보도는 이간책”(5/10, 환구시보)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사가 간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쟈홍(殲轟)-7(JH-7) 전폭기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한국에서 나온 것을 ‘이간책’이라고 비판
- 환구시보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작년 5월 방중했을 때 페이바오(飛豹. JH-7의 별칭)를 포함한 첨단무기를 사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9일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함.
-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남북연구센터의 루차오(呂超) 주임은 이 기사에서 “한국 언론 보도에 점점 많은 이간책이 숨어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간책을 사용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

● 北 “농협해킹 수사결과는 천안함 같은 날조극”(5/10, 조선중앙통신)

- 농협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북한이 “천안호 사건과 같은 날조극”이라며 비난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10일 ‘남을 걸고 드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의 소행설’은 황당무계한 근거와 그에 바탕을 둔 허황한 주장이며 천안호 침몰사건과 같은 날조극”이라고 주장
- 담화는 “원래 사이버전은 주로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낸 특수한 형태의 침략전쟁 방식”이라며 “역적패당

- 이 미국 상전에게 물어보아도 (미국이) 사이버전에 대한 초보적 개념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책했을 것”이라고 강조
- 이어 “역적패당은 ‘북의 소행설’을 퍼뜨려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유지하고 4·27보선을 전후해 여지없이 드러난 집권말기 위기를 수습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
 - 담화는 “역적패당은 남을 걸고드는 체질화된 악습을 버려야 하며 전면붕괴에 직면한 제 집안 처지도 모르고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바라며 벌이는 전쟁연습 소동이나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임.

● 통일부, 北 날조극주장에 “사이버테러 중단해야”(5/11, 연합뉴스)

-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농협 해킹사건에 대해 날조극 등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힘.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협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북측이 전날 “천안호(함) 사건과 같은 날조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함.
- 이 부대변인은 “검찰이 충분한 조사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은 북한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
- 또한 정부는 3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그간 우리 동서해역에서 반복해 시도해 온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교란행위나 이번 민간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등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대한 도발이며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무분별한 사이버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조선신보 “李대통령 베를린 제의엔 불순한 기도”(5/11,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초대’라는 제안을 했는데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논법에는 불순한 기도가 엿보인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핵정상회의 초대 - 공세에 밀린 청와대’라는 제목의 기사에

- 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선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베를린회견은 결국 종전의 대결책을 슬그머니 접고 ‘6자회담 테두리 안에서의 북남대화’에 나서기 위한 명분 세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고 주장
- 반면에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에 의미를 부여
 - 이어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김일성 주석 유훈의 하나이고 조선의 영도자가 직접 유훈관철에 대한 철석의 의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북한이 할 몫과 북미가 할 몫이 따로 있다. 중미의 책임과 역할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또 “베를린회견의 내용은 카터 ‘전언’에 대한 직접적 회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남측은 소극성을 부리며 여전히 그 무엇이 풀려야 만날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침.
 - 이어 조선신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회의 초대장’을 쓰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본의가 아니라면 카터 전 대통령의 ‘전언’의 내용을 다시금 새겨야 할 것”이라며 “북남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는 제안은 벌써 집권말기의 위기에 처한 대통령에게 궤도수정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함.

● 통일부 “北 ‘베를린제안’ 비난 매우 유감”(5/12,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을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런 언행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연합뉴스는 밝힘.
-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가원수의 말씀에 대해 북측이 직접적으로 역도 등의 표현을 쓰면서 비방증상을 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함.

● **北, 재보선결과 내세워 대북정책 전환 압박(5/12,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대화를 촉구하는 북한이 연일 4·27재보선 결과를 ‘민심의 심판’이라고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고수가 선거 참패를 불러왔다는 논리를 거듭 선전함으로써 정책 전환을 재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일각에서는 북한이 4·27 재보선 이전부터 ‘여당필패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선거전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까지 겨냥한 선전·선동 전략이란 분석
-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2일 ‘파멸로 내닫는 한나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4·27 재보총선거에서 한나라당 심판의지로 쌓이고 쌓인 남조선 민심의 분노는 한나라당에 준엄한 판결을 내렸고 도처에서 쏟아져나오는 규탄과 조소의 목소리에 남조선집권세력은 얼이 나갈 지경”이라고 여권 전체를 맹비난
- 또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자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북남관계 개선지향은 보수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에 대한 항거에서 뚜렷이 입증되고 있다”며 “4·27재보선에서 보수집권세력이 참패한 것은 남조선의 절대다수 인민이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견결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한 점을 내세우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강원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결국 선거에 실패했다’는 논리로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간접적으로 촉구
- 김용현 동국대 교수에 의하면 “교착국면의 남북관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 국민에게는 의도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결속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北 “농협해킹 모략극” 진상공개장 또 발표(5/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농협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모략극’이라고 강조하는 진상공개장을 내놨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진상공개장은 농협 해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반박하면서 “농협 금융 컴퓨터망 마비사태는 천안호 사건의 재판”이라며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농협 사태를 비롯한 모략극을 날조해 우리와 연계시키는 것은 북남대결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
- 이어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사회주의 체제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자들과는 그가 누구든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입장”이라며 “역적패당이 살길을 찾는 최선의 방도는 지금이라도 모략극, 날조극의 진상을 밝히고 솔직히 반성하는 것” 강조
- 진상공개장은 “이명박 역도는 베를린 행각 때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주제넘은 악담질을 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며, “괴뢰들이 들고 나오는 ‘선 사과 후 대화설’은 본질에 있어 대결 고수, 대화거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음을 재확인함.

■ 기타 (대남)

- 7월 韓美합동군사연습(백령도) 실시 예정 관련 ‘기습타격을 노린 침략전쟁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하며 “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 노골적 침범행위로 된다”고 비난(5/8, 중통·노동신문)
- 南 <4.27 재보선> 선거결과를 “보수세력의 반인민적 악정에 대한 인민들의 심판”이라고 持續 왜곡하며 “진보세력의 연대·연합을 통해 내년 大選과 總選에서 반역정치를 끝장내자”고 선동(5/9, 중통·노동신문)
- △美 핵잠수함 ‘미시건호’의 부산항 입항,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해상사격훈련을 “대화분위기 조성을 방해하는 엄중한 도발”로 비난하며 “南당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北)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5/9, 중통·노동신문)
- <5.10 單選> 63주년 관련 “미국의 침략정책의 산물”이라며 “미국의 反北정책과 보수패당의 외세 의존,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5/10, 중통·민주조선)
- 南 진보단체들의 反정부 시위를 “파쇼독재 청산, 자유와 권리,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持續 왜곡, 선동(5/12, 중통·민주조선)
- 李대통령의 訪獨時‘통일’ 발언은 “체제통일”이라며 “반민족적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위협 및 ‘조평통’ 대변인 대답(5.11) 再次강조(5/13, 중통·민주조선)
- 我해병대무력 강화계획 및 훈련(서해해역사령부 창설, 해상사격훈련 등)관련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 책동을 추후도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持續비난(5/13, 중통·노동신문·중방)
- ‘부산저축은행’ 부실사태 및 한나라당 前대표의 <4.27 재보선> 패배 책임소재 거론 退任기자회견 관련 이는 “南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주장(5/13, 중통·노동신문·평방)

5.16-5.22

5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굽 있는 구두’ 신은 김정일…건강 호전됐나(5/16, 연합뉴스)
 -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바닥이 평평하거나 운동화 형태의 신발을 신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굽 있는 구두를 신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특히 쓰러지기 전에는 ‘키 높이 구두’를 자주 신었던 김 위원장이라 굽이 있는 구두를 다시 꺼내 신은 것은 건강 호전의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며 보도
 -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4일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구장군구의 구장양어장을 현지지도했다며 송고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2~3cm 정도의 굽이 있는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다며 전함.
 - 김 위원장은 162cm인 키 때문인지 굽이 높은 구두를 즐겨 신었고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6~7cm 정도 돼 보이는 키 높이형 구두를 신고 등장했으나 2008년 11월 초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서는 ‘컴포트화’를 신은 모습이 포착돼 같은 해 중반 뇌혈관계 질환을 앓았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며 뉴스는 전함.
 - 또한 작년 말에는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 중 움직임이 불편했던 왼손으로 아파트의 방문을 여는 모습이 조선중앙TV로 방영돼 김 위원장의 건강이 나아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옴.

- “北 장성택, 5월말 中 동북지역 순회 방문”(5/16, 연합뉴스)
 -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이 황금평 및 라선특구 개발공사 착공식 참석과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중국 동북지역을 순회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6일 단둥(丹東)과 창춘(長春) 소식통들에 따르면 장 부장은 이달 28일 중국을 방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접해 있는 황금평의 임가공산업단지 개발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뒤 지린(吉林)성 창춘(長春)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임.

- 장 부장은 이어 라선특구로 건너가 오는 30일 열리는 훈춘(琿春)-라진항 도로보수 공사 착공식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함.
- 황금평 개발 착공식에는 중국 측에서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참석해 장 부장과 황금평 임대 협정을 정식 체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창춘에서는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장 부장을 만나 라선특구 개발에 필요한 시멘트 공장 건설과 라선특구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함.
- 또한 연합뉴스는 중국은 라선특구 전력 공급과 관련, 훈춘에 건설될 60만 MW급 화력발전소에서 송전하는 방법과 옛 소련이 건설했으나 낡아 가동이 중단된 선봉 화력 발전소 설비를 개조, 북한이 전력을 자체 생산토록 방안을 놓고 북한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진다며 보도
- 이어 라선특구에서 열리는 훈춘-라진 도로보수 공사 착공식에서는 장 부장을 비롯한 북-중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진항 부두 확장 공사와 식품공장 건설 등 8개 항목의 북-중 합작사업 착공식도 함께 열릴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함.
- 이에 관련해 이미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들이 라선특구 투자를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며 뉴스는 전함.
- 장 부장은 외자 유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를 이끌며 황금평과 라 선특구 합작개발 등 중국과의 경협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짐.

● **北 외무상 “한반도 비핵화 준비 돼 있다”(5/17, 이타르-타스통신)**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북한이 지난 2005년의 한반도비핵화 공동성명에 입각해 한반도 전체에서 비핵화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17일 이타르-타스통신에 밝힘.
- 박 외무상은 이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한다는 공동성명 정신을 존중한다”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지였으며 북조선이 나아가야 할 불변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으며,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친선 및 협력관계는 긍정적이며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고 덧붙임.

- 이어 “두 나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상호간에 돕는 숭고한 협력정신을 보여줬다”면서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함.

● **김정일, 러 프라드코프 대외정보국장 접견(5/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미하일 프라드코프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의 대외정보국(SVR)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대표단 일행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셨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음.
- 접견과 이후 열린 만찬에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동석함.

● **北신문, 5.18 맞아 남북관계 개선 촉구(5/18, 연합뉴스)**

-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아 북한 매체들은 18일 남북관계 경색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필명 논설을 싣고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파쇼운동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항쟁”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보수 당국의 반민족적 대결정책을 철회시키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며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전 조선을 지배할 야망 밑에 반공화국 핵소동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며 “남조선 집권세력은 북남대화와 협력을 차단하고 반공화국 모략과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해 북남관계를 사상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비난
-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도 이날 ‘광주인민봉기는 외세와 친미매국노들의 파쇼독재를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며 반미투쟁을 호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글을 여러 건 실음.

● **北 김정일, 과수농장 현지지도(5/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의 룡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전함.
- 김 위원장은 두 과수농장을 시찰하고 “과수업에서 기본은 종자문제”라며 “수확고가 높고 맛이 변치 않으면서도 경작에 유리한 키 낮은 사과묘목을 대량생산해 모든 과수원들에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
- 그는 “인민과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사철 떨구지 않고 먹이기 위해서는 과일가공사업을 개선해 과일즙, 과일통조림, 과일짬(잼)을 비롯한 과일가공품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며 “현대적이고 능력이 큰 과일가공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함.
- 이날 현지 지도에는 김기남·최태복·태종수 당비서,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등이 수행함.

● **“北 3만 사이버 병력..능력 CIA에 필적”(5/18, 폭스뉴스)**

- 북한은 해킹 등 사이버전쟁을 펼칠 3만명의 병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CIA(중앙정보국)에 필적한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7일 보도
- 이 방송은 김정일이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현대전의 승리와 패배는 전자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수년전 언급한 이후 북한이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같이 전함.
-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 웹사이트를 가장 빈번하게 접속하는 방문자들 가운데는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적되는 컴퓨터들이 있다고 이 방송은 전함.
- 폭스뉴스는 탈북자들을 인용, 북한이 3만명에 이르는 전자전 특수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군의 핵심 엘리트들이 되고 있다고 소개
-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대학교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해킹과 사이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비밀 학교에 보낸다고 했으며, 이들 비밀 학교 중 한 곳에 다니고 북한의 전자전사령부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는 북한의 자동화대학이 핵심이라면서 이 곳에서 1년에 100~110명 가량의 해커들이 배출된다고 뉴스는 전함.
- 폭스뉴스는 미국과 한국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및 사이버전) 능력은 CIA와 필적한다고 보도

● 北매체, 中텐진 소개...북중친선 강조(5/20, 민주조선)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0일 중국을 전격 방문한 가운데 이날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북중친선을 강조하며 중국의 텐진(天津)시를 소개
- 민주조선은 ‘조중친선의 역사가 깃든 천진(텐진)의 새 모습’이라는 글을 통해 텐진시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몸소 여러 차례 찾아 조중친선의 화원을 활짝 꽃피우신 역사의 땅”이라고 소개하며 텐진시의 과거와 발전상을 상세히 소개
- 신문은 “텐진시에서는 항구도시의 특성에 맞게 항만건설과 항 운영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고 있다”며 “항의 화물처리량이 2008년에 3억5천400만 t에서 2010년 4억1천300만 t으로 늘어나는 등 시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나라의 공업, 대외무역, 수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
- 신문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5월 텐진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텐진항과 활력 넘치는 텐진시내를 돌아보고 시가 몇 해 사이에 몰라보게 전변(변화)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임.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방중) 관련기사]

● 김정일 방중..김정은 동행여부 확인안돼(5/20, 연합뉴스)

-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개월 만에 다시 방중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우리 정부 소식통은 20일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한 것으로 안다”면서 “러나 (투먼에 이어 도착한) 무단장(牧丹江) 시 숙소에 머무는 방중단 인원 70여 명의 공식 수행명단에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으나 “김정은 부위원장이 동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이날 새벽 투먼(圖們)에 도착한 뒤 오전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으로 도착해 상당 시간을 보냈으며, 다른 행선지로 향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이날 새벽 투먼 일대에 경비가 대폭 강화돼 북한 고위인사의 방중설이 나돈 가운데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북한의 남양과 투먼을 잇는

다리를 통과했으며, 투면에서 잠시 머문후 이동해 이날 오전 무단장에 도착해 홀리데이인(假日)호텔에 여장을 풀었음.

- 김 위원장 일행은 이어 고(故) 김일성 주석을 비롯해 항일 공동투쟁을 했던 동북항일연군 기념탑이 있는 무단장 베이산(北山)공원을 방문하고서 부근의 징보후(鏡泊湖.경박호)를 찾은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은 단독방중은 언제(5/20,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방중하면서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단독방중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아버지의 공개활동을 수행하며 보좌하는 동시에 내부 장악력을 키우는 ‘속성코스’를 밟아왔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외부로부터 ‘2인자’ 지위를 인정받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
- 또 지난해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새 지도부’의 방중을 바라는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함에 따라 머지않아 김정은의 방중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음.
- 단독방중은 후계자로서 북한 사회에 뿌리 내렸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면서 외교무대에도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김정은은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뒤 단독방중을 통해 대외적 공인을 받았던 부친의 경로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김정은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수행단으로 거느리고 따로 방중해 중국 수뇌부를 만나면서 대내외에 존재를 과시할 가능성이 크지만,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 위원장이 건강을 다소 회복하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후계체제 추진 속도도 얼마간 조정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뉴스는 밝힘.

● **수행단 면면에도 시선(5/20,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8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또 방중함에 따라 수행원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사실상 국정을 대행하고 김정은 후계체제의 후견인으로 분류되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의 최대 과제인 경제난 해소를 위해 나선 특구개발 등 가속되는 북중간 경제협력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방중에 동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장 부위원장과 함께 북한의 외자 유치를 총괄지휘하는 리수영 합영투자위원장도 이번 방중 수행원 명단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
- 또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등 북한에서 중국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수행단에 대거 합류했을 것으로 보임.
- 이들은 김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북중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나 6자회담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이며,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 북미관계와 6자회담도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강석주 외교 담당 부총리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을 수도 있다고 뉴스는 추정
- 아울러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문단에 포함됐다면 김정은 후계체제를 이끄는 정치적 후견그룹도 수행원에 대거 포함됐을 것으로 짐작되며, 작년 9·28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르며 군부 내 후견인으로 부상한 리영호 총참모장이 유력
- 리영호 총참모장과 더불어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 이전부터 후계자 수업을 맡아 사실상 ‘사부’ 역할을 해온 현철해 국방위 국장과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앞장선 국가안전보위부의 우동측 제1부부장도 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뉴스는 전함.

● **후계 보장에 방점찍힌 듯(5/20,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새벽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되풀이된 방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에 여러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중국으로부터 이를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배어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김 위원장 일행이 투먼(圖們)을 경유해 무단장(牧丹江)으로 직행해 선친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항일 유적지가 있는 베이산(北山) 공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그런 의도를 명백히 한다는 지적으로 항일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룬 혁명정신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
-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방중에서도 같은 장소를 찾았고 9개월 만에 다시 방문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친의 혁명정신 계승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옴.
- 특히 김정은이 이번에 동행했다면 미래의 카운트파트 격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과의 회동 가능성도 있으며,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포함한 수뇌부와 회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런 자리를 통해 김정은이 중국 수뇌부와 자연스런 교류의 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일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이전보다 진전된 개혁 개방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지난해 8월의 방중 행로를 역순으로 밟아 투먼-무단장-하얼빈 구간에서는 권력승계 의지와 정당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그에 이어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으로 이동해 이른바 ‘창·지·투(長吉圖)계획’의 핵심지역을 재차 찾는 ‘경제 강조’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 작년 8월 귀국행로 역주행(5/20,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투먼(圖們)을 통해 방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은 그간 주로 단둥(丹東)을 통해 중국을 찾았으며 작년 8월에는 이례적으로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을 통해 방중한 뒤 투먼을 통해 귀국했었다며 연합뉴스는 전함.
-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지안보다 훨씬 동쪽이자 두만강 하류쪽인 투먼을 통해 중국을 찾은 것을 놓고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음.
- 김 위원장 일행이 이날 투먼을 거쳐 무단장(牧丹江)으로 가는 등 작년 8월 귀국행로를 역으로 거슬러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 귀국길에 미진하게 처리했거나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을 해결하

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됨.

- 작년 8월 김 위원장이 귀국길로 택했던 창춘(長春)→하얼빈(哈爾濱)→무단장→투먼 경로에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 및 혁명유적지가 산재해 있음.
- 김 위원장 일행은 이번 방중 행로에서 김일성 주석의 혁명 유적지 순례를 강화해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3대 세습을 위한 정치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추정
- 김 위원장 일행이 베이징을 방문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로 만일 창춘 등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회동이 이뤄진다면 이를 통해 식량 지원, 북중경협 활성화 등 경제현안과 한반도 안보관련 문제를 협의했다면 굳이 베이징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뉴스는 덧붙임.
- 김 위원장 일행은 베이징 대신 개혁개방 의지를 보이기 위해 상하이(上海)나 선전(深천<土+川>)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베이징 외교가는 내다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이틀째..경협행보 주력할 듯(5/21,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특별열차가 21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 도착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외부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9시(한국시간 오후 10시)께 무단장역을 출발해 하얼빈(哈爾濱)을 경유해 창춘에 도착한 김 위원장 일행은 지난해 8월 방중 당시 묵었던 난후(南湖)호텔에 일단 여장을 푼 것으로 알려졌으나 창춘에서의 일정은 물론 차후 동선도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며 뉴스는 전함.
- 김 위원장이 작년 8월을 뺀 다섯차례 방중에서 모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수뇌부와 만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되풀이 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따라서 창춘 방문에서는 ‘경제시찰’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현지의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양국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북지방의 핵심도시인 창춘에서는 경협 현장 시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일정과 동선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김정일, 창춘 이치자동차 방문(5/21, 연합뉴스)**

- 21일 중국 창춘(長春)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날 오전 이치(一汽)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뒤 숙소인 난후(南湖)호텔에 도착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이치 자동차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업체로, 지난해 8월 창춘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이 이 공장을 시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뤄지지 않았음.

● **北中 베이징서 정상회담 가능성(5/21,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가 21일 창춘(長春)을 출발해 남하하고 있어 그 목적지가 선양(瀋陽) 또는 선양 경유 베이징(北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이날 오전 8시 20분(이하 현지시각)께 특별열차 편으로 창춘 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난후(南湖)호텔에서 잠시 휴식한 후 창춘이치자동차를 시찰하고서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께 특별열차에 탑승해 선양-베이징 방향으로 향하는 게 목격됨.
-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크게 양국간 경제협력, 권력승계 보장,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의제로 오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
- 또한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에 후계 보장을 촉구하면서 북중 경협 강화로 국제사회에 개혁개방 의지를 보이고, 빼그덕 거리는 남북관계를 우회해 북중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함.

● **“北 장성택, 김정일 방중에 동행”(5/21, 아사히신문)**

-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신문은 장 부위원장이 외자 도입의 권한을 가진 만큼 이번에 북중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교섭이나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나진항 개발이나 기업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층 북한으로 경제 진출을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예측

● 동선으로 본 방중 목적(5/22,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일곱번째 중국 방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질구레한 의전행사 없이 필요한 일만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우선 동선을 크게 그려보면 북한의 최북단에서 북쪽으로 달려 흑룡강성, 지린(吉林)성, 라오닝(遼寧)성 등 동북3성을 돈 점이 눈에 띈다고 뉴스는 보도
- 이를 두고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런 동선에 김 위원장의 북중 경협 의지가 짙게 배어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접경인 동북3성에 ‘애정’을 재차 표시함으로써 중국에 개혁개방과 경제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고 말함.
- 동해출항권 허용을 바탕으로 한 창지투 계획이 본격화하면 북중 경협은 남북경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나, 이로써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극도로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

● ‘무숙박’ 사흘 강행군..건강과시(5/22, 연합뉴스)

- 20일 새벽 투먼을 통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은 예상과는 달리 유적지 방문, 산업현장 시찰, 야간이동 등 쉼없는 일정을 이어가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비웃는 듯한 모습이라며 연합뉴스가 전함.
- 김정일 위원장이 이처럼 기차에서 밤을 보내며 사흘간 무숙박 이동을 계속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는 한편 중국 지역을 보다 폭넓게 돌아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베이징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김정일의 건강호전설은 계속 나왔는데 이번 이동속도나 행적을 보면 건강에 어느정도 자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여행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건강우려가 상당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이 강행군이라고 할 만큼 설틈없이 이동하며 남행한 것은 동북 지역 뿐 아니라 중국지역의 더 많은 곳을 돌아보며 중국의 변화상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동행한 북한인사들에게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김정은 어디서 뭐하나(5/22, 연합뉴스)**

- 방중 3일째가 되도록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하고 있는 나를 놓고 “하고 있다”와 “안하고 있다”라는 엇갈린 분석과 정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논란을 잠재울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정은이 공식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비공식적으로 동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 목적중 하나가 권력 세습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받아내고 대내적으로 제3대 체제가 김일성 주석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면 김정은과 함께 방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
- 김정은의 김정일 동행여부는 이처럼 엇갈리고 있지만 만약 중국을 방문중이라면 김정일과 동행하면서 후계자로서 외교수업을 받는 동시에 차세대 지도부를 포함한 중국 지도층과 안면을 익히고 교류의 끈을 엮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김정은이 북한에 잔류했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외국에 나간 사이 국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뉴스는 전함.
- 최고 권력자가 해외를 방문하는 사이 그를 대신해 북한 내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독자적인 현장지도 등을 통해 통치능력을 키우려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

● **원자바오“中발전 활용기회 주려 김정일초청”(5/22, 연합뉴스)**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초청과 관련,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북한)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했다”며 연합뉴스가 전함.
- 원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들의 방중에 대해 원대한 안목을 갖고 전략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중국은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함.

● 김정일·장쩌민 회동 가능성(5/22, 연합뉴스)

- 방중 사흘째인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로 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과의 회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양저우로 향하는 목적은 물론 일정을 알 수 없지만 여러가지 추론이 있을 수 있으며 장 전 주석과의 회동 가능성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함.
- 일각에서는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 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 전 주석과 회동해 그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

● 실제 드러낸 김정일 방중 목적(5/22, 연합뉴스)

-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개월 만에 방중한 목적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원 총리의 얘기는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발전상을 북한이 벤치마킹하도록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액면 그대로 보면 이런 중국 수뇌부의 초청에 김 위원장이 응한 것은 북한 역시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뉴스는 전함.
- 사실 이번 방중에서도 김 위원장은 이미 투먼-무단장-하얼빈-장춘-선양 등의 동북3성 거점을 모두 방문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 논의가 이뤄지는 장춘-지린-투먼을 거점으로 한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계획’과 관련해 모종의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
-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에 동북3성 거점을 모두 방문해 북중 경협을 실질적인 계약체결로 이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어 김 위원장이 다시 남부 개혁개방의 신천지를 둘러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 실제 원 총리의 도쿄 발언에는 중국은 그동안 6차례의 김정일 위원장 방중을 통해 개혁개방을 유도했고, 이번에도 그런 차원이라는데 강조점이 있으며, 그러면서도 뭔가 ‘기대’도 깔려 있어 보인다며 뉴스는 보도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우리(北) 식의 자소전국 생산기술 개발과 도입에서 모범을 보인” 발명총국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16, 중방)
- 김정일 5.17 러시아연방 대외정보국 대표단(단장: 엠에프라드코브 국장 접견 및 만찬 마련)(5/18, 중통 중방) · 우동측(黨정치국후보위원), 김계관(외무성제1부상) 등 참가
- 김정일, 김일성생일전문을보내온여러나라당및국가수반들에게답전(5/17,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박의춘 외무상, 5.16 駐北베트남 대사 ‘레 광 바’와 담화(5/16, 중통)
- 北, 김정일이 2008.12.24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찾은 때로부터 경공업발전을 위해 근 80여개 단위를 현지도도 했다고 보도(5/17, 중통)
- 김영남, 5.17 駐北슬로베니아대사(두산벨라)에게 신임장 접수 및 담화(5/17, 중통)

나. 경제

● 北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5/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역박람회 격인 제14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1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김문정 조선국제전람회 사장은 개막연설에서 “전람회 기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 사이의 다방면적인 경제무역활동과 과학기술교류가 진행된다”며 “앞으로도 조선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와 경제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북한은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국제상품전람회를 여는데 북한에서 만든 기계설비와 강철제품, 전자제품을 비롯해 식료품과 의약품 등 각종 상품이 전시되며, 전람회에 참가한 해외기업들은 북한측 회사와 투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

● 인천시-민간단체 北에 말라리아 방역물품 지원(5/16, 연합뉴스)

- 인천시는 16일 오후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시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황해남도 해주시, 강령군, 옹진군 등 7개 지역에 총 2억원 상당의 말라리아

진단키트, 모기장 원단, 임신부용 감염 예방약, 유충구제약, 모기향 등을 지원한다고 뉴스는 전함.

- 이번 지원물품은 지난 9일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받았으며 1차분은 이달 중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전달될 예정임.

● **“北 분배감시 수용하며 식량지원 재촉구”(5/17, 미국의소리(VOA); 연합뉴스)**

- 북한이 식량 분배 감시의 수용의사를 밝히며 식량 지원을 호소했다고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측이 밝힘.
-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방북했던 켄 아이작스 부회장은 17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2008년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당시 미국 구호단체의 분배 감시를 허용했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수준의 분배감시 조건을 수용하는 뜻을 밝혔다”고 전함.
- 아이작스 부회장은 “그레이엄 목사가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식량 사정과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그러나 민간단체 대표 자격으로 방북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미국 정부에 전달해달라는 메시지는 없고 미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미국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도 없다”고 밝힘.
- 한편 지난 2월에 이어 3일부터 10일까지 평안남도과 강원도를 방문했던 캐나다 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는 방송에 “남포의 경우 2월 1인당 배급량이 300~400g 이었는데 5월에는 250g 으로 줄었고 원산은 400g 에서 190g 으로 줄었다”며 “주민들이 냉이나 썩, 달래, 민들레, 칩뿌리 등을 많이 먹고 있었다”고 식량사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한미 “킹 특사 방북’ 이후 대북 쌀지원 결정”(5/17, 연합뉴스)**

- 미국은 17일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끄는 대북식량평가단의 방북결과를 보고 대북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국과 의견을 모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과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람을 보낼 수 있고 그 평가에 기초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이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팀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도 이것이 유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평가단 방북은 좀더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함.
- 그는 또 “미국 평가단이 북한에 가게 되면 식량지원의 모니터링 조건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미간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조건은 없지만 미국은 종래에 적용된 조건들을 개선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임.
- 또한 한미는 ‘남북회담 → 북미회담 →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대화 재개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스는 보도

● **北총리, 곡창 황남도서 농사지원대책 논의(5/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13일부터 15일까지 황해남도 영농실태를 돌아 보고 현지에서 협의회를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함.
- 중앙통신은 “최영림 총리는 모내기 전투가 시작된 황해남도 영농실태를 현지에서 요해(사정을 알아봄)했다”며 “총리는 재령군, 강령군, 연안군, 배천군을 비롯한 도 내 여러 군의 농장을 돌아보고 해당 단위에서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힘.
- 협의회에서는 곡창지역인 황해남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각과 관계 기관이 황남도의 농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
- 이어 중앙통신은 “총리는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생산문제와 룡매도간석지 건설정형을 요해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대책했다”고 덧붙임.

● **“美 대북식량 장기간·소량 지원할 것”(5/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을 하더라도 소량을 장기간에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함.
- 이 방송은 복수의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산한 식량부족분 43만t은 미화 3억달러 규모로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의 동기가 어렵다”며 “한꺼번에 많은 식량을 보내기보다는 조금씩 나눠 지

원하면서 북한이 분배 감시에 협조하지 않으면 식량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고 밝힘.

-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식량이 소규모가 될지라도 일단 지원을 결정하면 그동안 보류돼온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재개되면서 식량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은 “지원재개를 위한 마지막 통과 의례”라며 “이번에 방북하는 킹 특사와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관계자들이 단 며칠 동안 북한을 둘러보는 것으로 민간구호단체와 WFP의 식량수요조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 그는 “그러나 미국 정부 어디에서도 한국정부의 양해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서두르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며 식량지원재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 **민간 北지원 ‘꽁꽁’…지원재개 아우성(5/18, 연합뉴스)**

- 남북교역과 대북지원을 대폭 제한하는 5.24조치 이후 1년간 민간단체와 종교계 등의 대북지원 사업이 고사 위기에 몰렸으며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상당수의 지원계획이 성과도 내기 전에 줄줄이 무산되면서 대북지원단체들이 ‘개점휴업’을 면치 못한 상태로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제3국을 통한 대북식량지원을 강행하고 대북지원단체도 인도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품 총액은 21억원으로 2009년의 77억원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작년 5.24조치가 시행된 이후 북한지역의 수해구호를 위한 ‘반짝’ 지원이 이뤄지긴 했지만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민간의 대북 취약계층 지원마저 중단되면서 가뜩이나 좁았던 지원통로가 더 좁아졌다고 뉴스는 전함.

● **“김일성 ‘혁명동지’ 中천레이 가문, 北에 투자”(5/18,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혁명 동지’인 천레이(陳雷, 2006년 작고) 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장의 아들 샤오핑(曉峰, 52)씨가 어머니의 고향인 황해북도 광산 개발 등 대북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샤오핑 씨가 지난달 어머니 리민 씨의 고향인 황해북도를 방문해 몰리브덴 광산 개발과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개발, 북한 인력수출 등의 합작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 의향서를 북한과 체결했다고 소식통들이 18일 전함.
- 소식통들에 따르면 천 씨는 우선 황해북도 곡산에 있는 몰리브덴 광산에 300만 달러(33억 원)를 투자, 연내에 연간 40만t을 채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광산 개발에 필요한 양수기 등 200만 위안(3억3천만 원) 규모의 장비는 북한에 무상 제공하고 광산개발 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뉴스는 전함.

● **“훈춘-라진 도로보수 이달말 착공”(5/18, 연변일보)**

- 이달 30일 북한 라선특구에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과 중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훈춘(珲春)에서 북한 라진항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 착공식이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변일보가 이달 말 이 공사가 시작된다고 18일 보도
- 신문은 훈춘시 통상구 판공실을 인용, 시공 설계와 현장 측량 등 도로보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됐으며 이달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힘.
-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에서 북한 원정리와 청계, 선봉을 거쳐 라진항과 연결되는 총연장 53.5km의 이 도로 보수 공사에는 1억5천만 위안(250억 원)이 투입돼 비포장 구간의 포장과 선형 개선, 16개의 교량 보수, 배수구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며, 완공되면 평균 시속 40km로 주행할 수 있을것으로 신문은 전함.
- 또한 이 도로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은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중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뉴스는 밝힘.
- 신문은 이 도로 보수 공사가 북·중이 합작하기로 한 라선특구 개발을 촉진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으며, 양국 경제합작과 지린(吉林)성의 ‘지에짱추하이(借港出海.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함) 전략’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채권 가격 2년새 2배 급등(5/18, 연합뉴스)**

-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채권이 2년간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는 보도
- 18일 국제금융센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북한 채권은 이달들어 액면가 1달러당 14센트에 거래되면서 2년 전인 2009년 5월 5.75센트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함.

- 북한 채권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당시 20센트,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 당시 26센트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2008년 이후 북한의 6자회담 합의 번복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센트까지 급락했다고 함.
- 그러나 2009년 하반기 이후 반등세를 보이면서 같은 해 말 9센트로 올랐고, 만기일이 2020년 3월12일까지 10년간 연장되면서 올해 4월 이후에는 14센트까지 상승폭이 확대했으며, 특히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에도 10센트 수준을 유지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 이 같은 북한채권 가격의 상승은 통일 시 남한의 북한채권 변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채권펀드인 프랭클린템플턴의 북한 채권 보유 공개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뉴스는 전함.

● “러, 北에 곡물 5만t 지원 계획”(5/18, 인테르팍스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정보기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한에 곡물 5만t을 지원하는 방안과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
- 통신은 러시아 외교 소식통을 인용, 미하일 프라드코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인도적 지원, 경제 프로젝트, 북핵에 관한 회담을 했다고 전함.
- 이 외교 소식통은 남북한과 관련된 경제 프로젝트에는 “남북한 간 철도 연결과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 송전선 설치 등이 포함된다”고 말함.

● “독일NGO, 北에 쌀 200t 지원”(5/19, 미국의소리(VOA))

- 독일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쌀 200t을 지원했고 다음 달에도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
- VOA는 독일의 구호단체인 ‘캡 아나무르’가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150t,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50t의 쌀을 나눠주고 있으며 6월에도 200t 이상의 쌀과 콩을 북한에 추가 전달한다고 방송은 전함.
- 이 단체 버트 고켄 대표는 VOA에 4월26일부터 5월5일까지 북한의 여러 병원과 학교, 고아원을 방문해 식량을 나눠줄 기관을 직접 골랐고 이 단체 직원이 분배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힘.

● “北, WFP에 ‘5~7월 식량배급 중단’ 전달”(5/19, 마이니치신문)

- 북한 당국이 4월께 평양 주재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에게 “5~7월 3개월간 식량배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9일 WFP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 퍼지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된 만큼 이번 식량배급 중단 조치가 빈곤층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 북한은 하루에 주민 1인당 590g의 식량을 배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배급량은 평균 376g에 그쳤다고 WFP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평균 190g으로 배급량이 줄었다고 신문은 밝힘.
- 지난 3월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평안남도 북부에서는 이미 영양실조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망자 중에는) 특히 7세 이하 아이나 60대 이상 노인이 많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남북교역중단 1년..北, 中 의존도 심화(5/20, 연합뉴스)

-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 조치가 오는 24일로 만 1년이 되면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신의주-단둥(丹東) 두 도시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데 이어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양측이 합작하기로 한 압록강의 섬 황금평 개발과 훈춘(珲春)-라진항 도로보수 공사도 이달 말 북·중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착공식을 열 것으로 알려지는 양국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단둥(丹東)의 한 대북 무역상은 “중국 최대 화물 전용 부두인 산둥(山東)성 룡커우(龍口)항에만 올해 1분기에 북한산 무연탄 100만t이 들어왔다”며 “단둥(丹東)과 다롄(大連) 등 북한과 인접한 항구의 수입량까지 합치면 올해 북한에서 수입한 무연탄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함.
- 중국 해관이 밝힌 지난 1월 북한의 대중 수출 석탄 물량은 49만3천t인데 이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18배 급증했으며, 중국의 한 석탄 수입상은 “외화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남한과의 교역 중단 이후 유일한 판로인 중

- 국에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무역상들로서는 큰돈을 벌 기회”라고 전함.
- 또한 원·부자재를 북한에 보내 가공한 뒤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남한기업들의 의류 위탁가공이 전면 중단되면서 외화벌이에 타격을 받은 북한은 봉제공 등 노동력의 중국 송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단둥에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천여 명의 북한 봉제공들이 들어와 일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중국은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의 단순 노동직 인력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했으나 최근 인건비가 급등한 데다 생산업체들이 인력난을 겪자 북한 노동자 유입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밝힘.

■ 기타 (대내 경제)

- 黃南·北道, 平南·北道 등 전국 각지 농촌들에서 '본격적인 모내기' 시작(5/16, 중방)

다. 사회문화

- “北 휴대전화 가입자 50만명 돌파”(5/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RFA에 따르면 북한의 유일한 이동통신 업체인 ‘고려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은 3월말 현재 53만5천133명임.
 - 작년 말까지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43만여명이었고 이후 석 달 사이에 10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방송은 전함.
 - RFA는 올해 1분기 북한 주민의 1인당 한 달 평균 통화시간은 4시간30분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시간11분보다는 41분 줄어들었다고 덧붙임.
- “北, 세계기상기구 국제회의 참가”(5/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기상수문국 대표단이 16일 열린 세계기상기구(WMO)의 국제회의에 참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앞서 WMO 관계자들이 지난 3월 방북해 북한의 기상 설비와 예보 능력

을 점검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의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WMO의 지원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평양서 FIFA 심판원 강습 열려(5/19, 조선중앙통신)**

-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원 강습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이번 강습은 이론과 실기로 나뉘어 열렸으며 축구경기에서 주심과 부심의 역할, 경기전술과 분석, 심판원의 체력훈련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또 16일부터 17일까지는 FIFA 심판감독관 강습도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덧붙였다.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원림녹화사업 발전을 위한 ‘도시녹화계획’ 등 추진(5/17, 중통)

2 대외

가. 일반

● **美 “북-이란 협력, 과거부터 우려”(5/1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6일 북한이 이란과 ‘미사일 기술’ 협력을 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제출과 관련, 우려를 표시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이란간의 핵 미사일기술 공유는 우리가 이전에 제기했던 우려”라면서 “우리는 이런 우려를 과거에 제기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함.

● **이란, 北과 미사일기술 교환 의혹 부인(5/17, AFP통신;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 이란 정부는 17일 북한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환해 왔다는 의혹을 부인함.
- 라민 메흐만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북한과의 미사일 기술 교환 주장은 조작된 것이고 선전전 도구일 뿐”

- 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다른 나라의 지원이 필요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
- 로이터통신이 지난 14일 입수한 유엔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은 금지된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을 고려항공과 이란항공의 정기 항공편을 통해 주고받은 의심이 있다는 지적함.
 - 다수의 외교관들은 익명을 전제로 이런 불법적 미사일 기술 교환이 중국을 경유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 보고서가 유엔의 승인을 얻지 않은 문서일 뿐 아니라 지금껏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조치를 옹호해왔다고 반박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中, 북한-이란간 불법 거래 비호”(5/17, 르피가로)

- 프랑스의 르 피가로 신문은 17일 북한과 이란 간 불법 무기 거래를 중국이 비호하고 있다고 보도
- 르 피가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된 기밀 보고서를 인용, 평양-테헤란 간 미사일 부품과 기술 교환이 베이징이라는 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전함.
- 신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들이 불법으로 이란으로 수송되고 있는 것은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는 중국 당국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함.
- 르 피가로는 이란은 북한의 오래된 고객이어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폭탄 제조기술을 넘어 플루토늄을 대체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분야의 기술이 이란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르 피가로는 최근 들어 북한의 전통적인 무기판매망이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등 중동국가들의 민주화 사태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어 대(對) 이란 수출 루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안보리, 대북 제재 연례 보고서 채택 불발(5/1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불발됨.
- 연합뉴스에 의하면 유엔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제재위 의장이 안보리에서 보고를 했고 보고서 채택 문제가 논의됐으나 중국 측이

- 자국 전문가가 서명하지 않은 보고서라는 이유로 채택에 반대했다”고 말함.
- 지난 13일 제출된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우리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군사적 용도를 위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 1718 및 1974호를 위배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우리늄 농축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대해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하면서,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북한이 그동안 UEP가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 또한 영변 핵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국제 안전기준에도 맞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본 원자력 사고에 비쳐볼 때 북한 핵시설 안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함.
 - 이 관계자는 “중국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미리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단 15개 안보리 회원국에 보고서가 회람이 된 만큼 추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스티븐스 “북미대화 준비됐으나 南北우선”(5/18, 연합뉴스)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과) 양자대화도 할 준비가 돼 있으나 일단은 남북관계 개선이 있기를 원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 이어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와 국제법 준수, 도발행위 금지를 위해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임.
-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북미 정상회담도 검토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everything is possible)”면서 “비핵화 없이는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것보다 더 명료하게 말할 수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의) 선택을 할 경우 모든 길이 열려 있음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거듭 촉구함.
- 그는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약속한다면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이고 장애물이 많다”고 말함.
- 이어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원이자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국제사회 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또다른 도발에는 반드시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미국은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추가 도발이 (대화 재개) 분위기에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후퇴시킨다는 점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식량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수요와 여타 국가와의 형평성, 식량배분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는다”면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상해협조기구(SCO, 中·러 등 6개국) 성원국간 “군사·경제 등 각 분야의 호상협조강화(군대총참모장회의, 법집행안전기관 훈련 등) 및 국제적 지위와 역할 증대” 주장(5/16, 중동·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中 “관련국들 조치해 6자회담 재개해야”(5/17,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17일 “관련국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을 지지하며 유관 각 측과 밀접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이어 최근 발표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과 미사일 기술 협력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음.

3 대남

● 통일부 “5.24이후 개성공단 현상유지 했다”(5/18,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5.24조치에도 개성공단은 최소한 현상유지를 한다는 목표를 가졌는데, 생각한 대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오는 24일 5.24조치 1주년을 앞두고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3월 개성공단 월 기준 생산액이 3천472만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함.
- 이는 5.24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해 남측 기업관계자의 체류인원 제한과 신규 및 추가 투자가 제한됐지만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풀이된 다며 연합뉴스는 전함.
- 이어 실제 개성공단은 5.24조치에도 성장세를 이어가 지난해 교역규모는 14억4천285만달러로 전년의 9억4천55만달러에 비해 53.4% 급증했다. 개성공단의 생산액 역시 2억5천647만달러에서 3억2천332만달러로 26.1% 늘어났다고 뉴스는 전함.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 시점인 지난해 5월 4만3천448명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4만6천302명으로 증가했으나 현재 북측 근로자는 입주기업의 수요보다는 2만5천명정도가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밝힘.
- 통일부는 섬유봉제·의류 제조업체인 (주)오륜무역이 최근 시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가동기업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으며, 오륜무역은 5.24조치 이전에 공장시설 등 투자를 완료했지만, 북측 근로자 공급 지연 등으로 생산활동이 늦어져 5.24조치의 신규·추가투자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

● 영관급 장교 4명 北에 납치됐다” 법정 증언(5/20, 연합뉴스)

- 현역 영관급 장교 4명이 10여 년 전에 북한에 납치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북한 전문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흑금성’ 박모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북한전문기자 정모 씨는 19일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중령이 1999년 중국 국경에서 납치되고 이모 대령이 북한에 체포됐으며 또 다른 이모 대령과 박모 대령이 북한에서 납치·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함.

- 그는 당시 소속 신문사에서 이 내용의 취재가 중단됐는데 이는 보도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뉴스는 전함.
- 박씨 측은 납치된 군인을 통해 북한이 2000년대 초 이미 작전계획 5027을 입수했고 북한이 2004년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주장
- 박씨는 2003년 3월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에게서 “남한의 군사 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작계 5027과 군사 교범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
- 정씨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증언한 것으로 알려진) 대부분 내용은 변호인이 얘기한 것이고 나는 당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함.

■ 기타 (대남)

- ‘상해협조기구’(SCO, 中·러 등 6개국) 성원국간 “군사·경제 등 각 분야의 호상협조강화(군대총참모장회의, 법집행안전기관 훈련 등) 및 국제적 지위와 역할 증대” 주장(5/16, 중통·노동신문)李大統領의 訪獨‘對北발언’은 “체제대결, 북침전쟁 시사”라고 주장 및 “후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持續비난 言動(5/16, 중통·노동신문·평방)

5.23-5.29

5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양형섭, 아프리카 순방차 출국(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를 친선방문하기 위해 26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그러나 중앙통신은 양 부위원장이 나이지리아 외에 어느 국가를 방문하는지와 방문 배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北김정일, 김정은과 ‘방중 축하공연’ 관람(5/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중국 방문 성과를 축하하는 군 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중앙통신은 방문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을 내외에 선전하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마련함.
- 이어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내무군협주단이 인민 대중을 혁명과 건설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고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함.
- 이날 공연 관람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홍석형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영일·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 비서도 함께함.
- 또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경옥·김원홍·김명국·김영철·윤정린 당 중앙군사위원,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도 김 위원장을 수행함.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방중)' 관련기사]

● <김정일訪中>김정일·장쩌민 회동은 '공식'(5/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불원천리(不遠千里) 양저우(揚州)를 간 이상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과의 회동은 일종의 공식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것이다”며 “중국 외교무대에서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김정일 위원장과 장쩌민 전 주석이 언제 어디서 얼마동안 만난 것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함.
- 이는 극도의 폐쇄성을 보이는 북한과 중국의 실정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현직이던 장쩌민 주석과 잇따라 회담했던 2000년, 2001년, 2004년 방중을 제외하고, 네번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인 2006년 방중 때에 장 전 주석과 '별도로' 만난 사실을 첫 보도한 매체는 홍콩명보였다고 전함.
-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김정일 위원장과 장쩌민 전 주석 간 관계가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3천km를 달려온데는 뭔가 사정이 있고, 그게 장쩌민 전 주석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데 있으며, 옛 정을 나누기 위해 왔다기보다는 급한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 사실 북한의 현실적인 차기 권력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권력승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을 정점으로 한 현 지도부는 '3대 세습'을 인정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실제 중국의 현 지도부는 전 권력인 장쩌민 전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만남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려한다는 분석도 제기됨.

● <김정일訪中> 양저우 한장개발구 방문(5/23,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나흘째인 23일 오전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시내 한장개발구를 방문해 IT 업체를 찾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한 업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지에서

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날 양저우 시내의 화양 태양광업체를 방문할 것으로 점치고 있으며 한 시간 거리인 우시(武錫) 소재 세계 제1의 태양 광업체인 썬택을 방문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로선 김정일 위원장이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회동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양저우 방문 기간에는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2001년, 2004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현직인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인 2006년 1월 10~18일 중국에 왔을 때는 1월 12, 13일 이틀 동안 광저우(廣州)에서 별도로 만날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 北, 두마리 토끼잡기(5/23, 연합뉴스)

- 한반도 최북단 접경인 중국 투먼(圖們)에서 시작한 행로가 무단장(牧丹江)-하얼빈(哈爾濱)-창춘(長春)을 거치면서 경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양저우(揚州) 일정을 시작하면서 북한 후계 구도에 포커스가 맞춰진 듯한 분위기라며 연합뉴스는 전함.
- 북한과 중국 간 경협이라면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대내외에 강조하는 환영받는 이슈지만, 북한 후계구도 강화 문제는 '3대 세습'으로 비쳐 거부감을 줄뿐더러 중국의 현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한다는 지적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는 거침없어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 위원장이 장쩌민 전 주석을 불원천리(不遠千里) 마다않고 찾아온 까닭은 현직이 아니면서도 상하이방의 최대주주로서 여전히 현실권력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며, 특히 내년 10월 제18차 당대회에서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상하이방 계열이라는 점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 北, 中의존 심화..“6자재개에 유리”(5/23,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관계의 '긴밀화'가 뚜렷한 추세로 확인됨에 따라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번 방중은 현 북·중관계가 그간의 정무·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 분야로 저변을 넓혀가며 전방위적 ‘결속’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관측
- 현재 중국은 동북아 역내의 주도권을 잡고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동북아 정세불안의 진앙인 북한 핵문제를 ‘관리’하면서 권력승계 과정에서 노출될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며 뉴스는 전함.
- 중국으로서는 개혁·개방을 겨냥한 경험확대와 투자를 내걸어 북한으로 하여금 남측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할 가능성이 있으며, 식량난이 발등의 불인 북한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다급한 상황에서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는 해석
-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방중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수순밟기’의 성격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한 외교소식통은 “그 동안 강경책을 고수해온 북한으로서는 이번 방중으로 대화복귀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면서 “방중 이후에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김정일訪中> 나흘째..‘여유있는’ 하루 보내(5/23,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나흘째인 23일 오전 9시(한국시각 오전 10시)께 숙소인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영빈관을 나서 한장개발구 내 IT 업체를 찾았다가 돌아왔고, 오후에는 영변관 건너편의 SG할인마트를 찾은 것 외에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는 전함.
- 현지에서는 김 위원장이 시내에 있는 화양태양광업체와 한 시간 거리의 우시(武錫) 소재 세계 제1의 태양광업체인 썬택을 찾을 것으로 점쳤으나 예상이 빗나갔으며, 아울러 김일성 주석이 장쩌민 주석과 함께 방문해 민족주의와 민족대단결의 중요성을 역설한 곳으로 알려진 사가법(史可法) 기념관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 예상지로 지목됐었지만 역시 들어맞지 않음.

● <김정일방중> 시진핑, 양저우 동행한듯(5/23,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23일로 나흘째를 맞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동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현지소식통은 “시진핑 부주석이 양저우(揚州)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시 부주석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함.
- 양저우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고향이고, 시 부주석이 장 전 주석이 ‘최대주주’ 격인 상하이방 계열이라는 점도 시 부주석이 김 위원장의 양저우 일정 동행을 관측토록 하는 한 요인이라는 지적

● <김정일訪中> 대형마트 ‘깜짝’ 방문(5/23, 연합뉴스)

- 중국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방문 이틀째인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숙소인 양저우 영빈관 인근의 대형 할인마트를 깜짝 방문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김 위원장 일행은 4층 건물인 이 할인마트의 2층 생필품 코너를 둘러본 뒤 15분 만에 빠져나와 곧장 영빈관으로 갔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 장쩌민과 오늘 만찬한듯(5/23,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23일로 나흘째를 맞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이날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현지소식통은 “김 위원장과 장 전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장쑤성 예술단의 공연을 겸한 만찬이 오늘 저녁에 펼쳐진 것으로 안다”고 말함.
- 또 당초 김정일 위원장의 양저우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싱가포르의 리관유 초대 총리를 만났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함에 따라 양저우에 가지 않았거나, 갔었다고 하더라도 이날 오전 중에 상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 닷새째..‘남행 또는 북행’ 주목(5/24,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4일로 방중 닷새째를 맞는 가운데 차후 행로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현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의 특징은 과거 여섯차례 방중을 통해 둘러봤던 도시를 다시 찾으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곳을 찾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특별열차가 일단 분기점인 난징(南京)으로 가서 차후 행선지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 김정일 위원장은 두번째 방중인 지난 2001년 1월 상하이 방문때 푸둥(浦東) 지구의 발전상을 보고 “천지개벽했다”며 감탄을 쏟아냈으며, 아울러 그 다음해인 2002년 7월 1일 북한 나름의 개혁개방조치인 7.1조치와 금강산 특구 제정 등을 결단한 바 있기에 김 위원장이 상하이를 재차 방문한다면 이와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도 있음.
- 앞서 방중 나흘째인 23일 저녁 김정일 위원장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함께 숙소인 영빈관에서 공연을 겸한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자리에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참석하게 목격됨.
- 따라서 다이 국무위원이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성광주(盛光祖) 철도부장과 더불어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수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뉴스는 보도

● <김정일訪中> 닷새째..일단 난징 도착(5/24,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4일로 방중 닷새째를 맞는 가운데 일단 이틀간 묵었던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영빈관을 출발해 난징(南京)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8시 32분(한국시간 오전 9시 32분)께 무장경찰차의 선도로 40여대의 차량 편으로 이동해 양저우 역으로 가지 않고 2시간 가까이 달려 난징 동자오(東郊)빈관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으나 난징에서 김 위원장이 어디로 향할지는 관측이 쉽지 않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 中 최대 전자업체 판다전자 방문(5/24,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닷새째인 24일 난징(南京)에서 중국 최대 전자업체인 판다전자(熊貓電子)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자동차를 이용해 오전 9시50분께 난징에 도착, 판다전자를 방문한 후 동교빈관에서 여장을 풀고 바로 나와 난징 외곽의 신도시 허스(河市)의 올림픽 주경기장과 세계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다시 동교빈관으로 옮겨 점심 식사를 함.

- <김정일訪中> 특별열차, 베이징향한듯(5/24,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현지시각으로 24일 오후 2시 5분(한국시각 오후 3시 5분)께 난징(南京)역을 출발해 베이징(北京)을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통상 베이징에 도착하면 다오위타이(釣魚臺)에 여장을 풀고 그 안에서 북중 정상회담과 더불어 중국 수뇌부와 회동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런 관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통상 베이징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이 김정일 위원장 방중의 마무리 순서라는 점에서 25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김 위원장이 같은 날 귀로에 오르거나, 다오위타이에서 1박을 하고서 26일 귀국할 것으로 예상함.
 -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경제협력과 북한 후계구도, 한반도 비핵화, 국제 및 지역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됨.
 - 특히 명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公安부장이 지난 2월 13~15일 방북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중국 수뇌부의 북한 후계구도 인정 발언을 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중국 수뇌부가 어떤 언급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 김정일 베이징 도착..조어대 여장(5/25,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5일 오전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이 이처럼 오전 시간대에 도착함에 따라 이날 중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을 할 게 유력하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 북중 정상회담 시작한 듯(5/25,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25일 오후 5시 30분(한국 시간 오후 6시 30분) 즈음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현지 소식통은 “통상 만찬이 오후 7시께 시작하는 점으로 미뤄 1시간 30분 전에 회담이 시작됐을 것”이라며 “근래 몇차례 북중 정상회담후 만찬이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정상회담에는 그간 관례로 볼 때 중국 측에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 등이, 북한 측에서는 최태복 당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등이 배석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뉴스는 전함.
- 정상회담후 만찬에서는 해외순방중인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 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 베이징 현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다오위타이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을 것으로 뉴스는 전함.
- 김 위원장은 이전 베이징 방문에서도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서 원 총리와는 따로 정상회담을 해왔는데, 이는 중국의 ‘독특한’ 정치체제에 따른 것으로, 국무원 수반인 원 총리가 정부를 대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

● <김정일訪中> 김위원장, 中수뇌부와 회동(5/25,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5일 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어진 환영 만찬에서 중국의 집단 지도체제를 이끄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여럿 만난 것으로 관측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김 위원장은 매년 방중 때마다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대부분과 회동하며 양국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안팎에 과시해왔다고 뉴스는 전함.
- 김 위원장은 이번 베이징 방문에서도 후 주석과의 만찬 외에 원 총리와 양국 간 경협 활성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놓고 별도의 회담을 이날 이미 가졌거나 26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원 총리를 보좌하는 리커창 부총리가 배석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뉴스는 보도

● <김정일訪中> 북중 정상회담 종료(5/25,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3시간이 넘는 정상회담과 만찬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두 정상이 각각 자국의 사정을 소개하면서 상대국을 칭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시찰을 통해 본 중국 개혁개방의 눈부신 성과를 극찬하고, 후 주석은 북한이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혁개방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식으로 화답한 것으로 뉴스는 전함.
- 두 정상은 이어 북중 경협, 북한 후계구도, 북핵 6자회담, 국제 및 지역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 현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다오위타이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더불어 26일 오전 회담후 오찬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제기됨.

● <김정일訪中> 리커창, 김정일 시찰 동행(5/26, 연합뉴스)

-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상무부총리 겸 공산당 상무위원이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관촌(中關村) 시찰에 동행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이 찾은 중관촌 내 IT기업인 선저우수마(神州數碼, Digital China) 직원들은 리 상무부총리가 김 위원장과 같이 회사를 찾아왔다고 전함.

● <김정일訪中> 베이징역 출발..귀로오른듯(5/26,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26일 오후 2시 19분(한국 시간 오후 3시 19분)께 베이징(北京)역을 출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특별열차는 일단 북상한 것으로 알려져 선양과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 “6자회담 조기 재개해야”(5/26, 신화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밝힘.
- 신화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보도
-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줄곧 성의를 보여왔다”고 덧붙임.
- 김 위원장은 이어 “북한은 현재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우 안정된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언급
- 이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의 기치를 들고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며 서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후 주석은 이어 “중국은 시종 북중우의를 굳게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결코 변치않는 방침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촉진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

- 후 주석은 이를 위해 ▲고위층 교류 강화 ▲당·국가 관리 경험 교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확대 ▲문화·교육·체육 교류 심화 ▲국제 및 지역 정세와 중대 문제에 있어서 소통·협조 강화 등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후 주석의 제안에 김 위원장은 “북중 양국 인민의 우호관계는 귀중한 것”이라며 “우호의 배턴을 대대로 전해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어 올해가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물려준 중요한 유산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분야와 관련해 후 주석은 북한이 인민 생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김 위원장은 “중국 각지를 방문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고 놀랄 만한 변화들이 나를 감탄하게 한다”고 화답함.

● <김정일訪中> 김정은 수행명단에 없어(5/26, 신화통신)

- 신화통신에 의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달 20-26일간의 중국 방문중 동행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당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 수행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신화통신은 이날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서기 겸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초청으로 20-26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밝혔으며, 김 위원장의 방중때 북한측에서 최태복, 김기남 노동당 중앙서기,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석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태종수, 박도춘, 문경덕, 김영일 당중앙서기 등이 수행했다고 보도

● 北 “북중 정상6자 재개·비핵화 의견일치”(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밝힘.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후 주석과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

- 고 6자회담의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며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조율을 잘해나가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들이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 공고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공동의 성스러운 책임과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고 밝혀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방문기간 경제와 문화,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해 드넓은 중국대륙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에서 급속히 변모되고 있는 중화대지의 약동하는 발전상에 대해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며 김 위원장이 베이징 중관촌의 정보통신 서비스업체 선저우수마(神州數碼) 등을 방문했다고 소개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5일 숙소를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만나 담화했다고도 전함.

● <김정일訪中> 軍 대신 당 실세들이 수행(5/26, 조선중앙통신)

- 20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곱번째 중국 방문은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 실세들이 수행했지만 군(軍) 인사는 눈에 거의 띄지 않음.
- 26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김기남·최태복 비서와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일·박도춘·태종수·문경덕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등 11명이 수행함.
-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는 지난해 5월 방중에 처음으로 수행단에 포함된 후 그해 8월과 이번까지 세차례의 방중을 모두 수행하며 실세의 위상을 과시한 장성택은 외자유치 창구인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중에서 양국 정상 간의 경제협력 방안 논의를 도왔을 것으로 보임.

● <김정일訪中> 우호강조..경협 성과 저조한듯(5/26, 연합뉴스; 신화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7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길에 올라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번 방중은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세번째였기에 ‘눈에 띄는’ 성과가 기대되었으나 그렇지 못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신화통신이 이날 쏟아낸 김 위원장의 방중 보도를 살펴보면 우호는 강조됐지만 북핵 6자회담과 북중 경제협력의 분야에서는 큰 알맹이가 없어보인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는 평가된다고 뉴스는 밝힘.
-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간 당국간 합의로 황금평과 라선특구 합작개발과 관련한 ‘청사진’이 담긴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과가 착공식 취소로 이어지면서 북중 경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
- 사실 창지투 계획은 동해로 가는 길이 막힌 중국의 동북3성이 엄청난 물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면서 랴오닝성 다롄(大連)과 단둥(丹東)항을 이용해야 하는 난관을 북한이 라진항 또는 청진항 등을 개방해서 해결하자는 게 골자지만 양국 간에 점점 도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연합뉴스에 의하면 중국은 그동안 이른바 동해출항권을싼 값에 얻으려 했고, 북한은 그런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버텼었다는 점으로 이런 기초가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

● 김정일 방중기간 김정은 북한 체류(5/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따라가지 않고 북한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27일 방중을 마치고 돌아온 부친 김정일 위원장을 국경에서 마중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감사전문을 보내 “이번 상봉과 회담과 정에서 상호 관심사인 모든 문제에서 훌륭한 견해일치를 이룩한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중친선이 앞으로도 대를 이어 변함없이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중앙통신에 따르면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과 왕자루이 대외연락 부장 등이 김 위원장을 국경에서 맞이했으며, 김 위원장은 헤이룽장성 무단장(牡丹江)에서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사가 깃든 징보후(鏡泊湖.경박호)를 방문하고 농장과 목장을 찾음.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시를 찾았다면서 “수령님께서 1991년 10월 마지막 중국방문시 장쩌민 주석의 안내로 돌아보신 뜻깊은 도시”라고만 보도하고 김 위원장이 장쩌민을 만났는지는 언급하지 않음.

● **김정일-원자바오, 경제정상회담 별도 개최(5/27, 중국관영중앙TV; 신화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 사실상 처음으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별도의 ‘경제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
- 27일 중국 관영 중앙(CC)TV의 김 위원장 방중 기록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은 25일 숙소인 다오위타이(釣魚臺)를 찾은 원 총리와 확대정상회담 형태의 정식 회담을 한 것으로 밝혀짐.
- 26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압록강신대교 건설을 예로 들어 최근 북중 간 경제무역 협력이 많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협력 수준을 새로운 높이로 격상하자고 제안
-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례없는 경제정상회담이 진행된 점으로 볼 때 북·중 경제협력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됨.

■ **김정일동향**

- 김정일, 5.20~26 호금도 주석 초청에 의해 중국 비공식 방문(5/26, 중통·중·평방)
- 김기남, 최태복, 강성택, 장성택, 김영일, 박도춘, 태종수, 문경덕, 주규창, 김계관, 지재룡 수형
- 호금도, 온가보, 가경림, 리장춘, 습근평, 리극강, 하국강, 주영강과 촌촌상봉 및 담화
- 방문기간 경제·문화·첨단과학기술분야 등 중국의 발전상 직접 목격

■ **기타 (대내 경제)**

- 北 ‘만수대지구’ 건설 착공식, 5.22 창천네거리에서 진행(5/22, 중방·중통)

나. 경제

● “北라선·황금평, 시장원리 산업벨트로 육성”(5/23,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은 라선·황금평을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거점 산업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북측은 ‘강성대국 선구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라선에는 원자재, 첨단기술 등 6대 산업, 황금평에는 정보, 관광문화 등 4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세부계획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이달 말로 예상되는 황금평 개발 착공식을 계기로 북중 경협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뉴스는 전함.
- 23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후속작업에 돌입함.
- 또한 이 소식통이 입수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는 두 지역을 조선대외교류의 시험지역, 강성대국의 선구지역, 조중 경제협조의 시범지역으로 건설한다고 규정함.
-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위원회 계획분과위’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요강은 작년 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북중간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협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관측됨.
- 요강은 계획배경과 총개발목표,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요강,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요강, 관리 및 정책보장 등 총 11장으로 이뤄져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라선지대에는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의 공동개발 및 건설을 중점으로 하고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공업, 경공업, 서비스업(봉사업),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함.
- 특히 라진-선봉-웅상-굴포에 이르는 ‘연해(沿海) 복도식’ 산업대를 형성한다고 밝혀 일종의 산업벨트 조성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옌벤과 북한 라선·청진·칠보산·금강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사할린, 일본 니가타·삿포로, 남측의 속초·부산을 잇는 관광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계획도 잡혀 있음.

- 또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도 담겨 있는데, 라선지대에는 ‘1중추, 3방향, 5통로’의 개방식, 국제화된 대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라진, 선봉, 웅상항을 중추로 하고 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북한 청진과 접하며, 동으로는 북한 동해로 향해있는 조건에 맞게 중국 훈춘(琿春), 투먼(圖們), 러시아 하싼, 북한 청진과 통하는 육상통로 및 해상통로를 구축한다고 되어있음.
- 단기적으로는 원정-라진, 선봉, 웅상항 도로망과 원정-권하 조중 국경 인도교를 보수해 운송능력을 높이고 앞으로 라진-원정, 라진-청진, 라진-두만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기로 계획함.
- 철도 역시 단기적으로 라진-선봉-남양철도를 개보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훈춘-북한 훈룡 간 철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청진시 삼해리에 민영비행장 건설도 포함됨.
- 특히 100만kW 발전능력을 조성기로 하고 풍력발전, 태양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연구하고, 이동통신망도 구축하기로 함.
-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동안 북중 간에 협의됐던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중 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라선지역과 황금평을 거점 산업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말함.

● 경기·인천, 北에 말라리아 방역물품 전달(5/23, 연합뉴스)

-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23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 물품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첫 대북 지원으로 지원 물품은 모기 유충 구제 약품과 모기향 등 1억6천200만원 상당의 말라리아 방역 물자로, 북한 개성과 황해도 지역에 전달될 예정
- 이번엔 전달한 물품은 1차분으로 도(道)는 방역 물품 지원비를 지난해 3억3천4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늘려 앞으로 말라리아 진단장비와 방충망, 임신부 예방약 등도 지원할 계획

- “방북 美식량평가팀, 내달 2일까지 현장조사”(5/24, 연합뉴스)
 - 24일 방북하는 미국의 북한식량평가팀이 내달 초까지 식량 수요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외교소식통은 이날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이끄는 식량평가팀이 북한에서 여러 그룹으로 나눠 활동할 것으로 안다”면서 “킹 특사는 28일까지 평양에 머물고 전문가 그룹은 지방에서 다음달 2일까지 조사활동을 진행할 것 같다”고 밝힘.
 - 킹 특사와 브라우스 부국장 등은 평양에서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을 만나 분배모니터링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정부는 킹 특사의 방북 이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북식량 지원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뉴스는 전함.

- 北 “日사고에도 핵에너지는 세계 관심사”(5/24, 조선중앙통신; 민주신문)
 -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도 핵에너지 개발이 세계적 관심사라며 자국의 핵개발이 정당하다고 간접적으로 주장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24일자 ‘민주신문’은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최근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핵에너지 발전은 의연히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강조
 - 신문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세계의 많은 나라가 천연 에너지 이용에서 핵에너지 개발과 이용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
 - 신문은 “핵에너지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덧붙임.
 - 이어 “세계 많은 나라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핵에너지 개발을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이탈리아, 브라질, 중국 등을 사례로 언급

● **美, 北 무기개발 지원기업 제재(5/25,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24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힘.
- 국무부는 이날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지난 23일자로 14개 외국기업과 2명의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면서 북한(기업 1개)을 비롯해 중국(개인 1명, 기업 4개), 벨라루스(기업 2개), 이란(개인 1명, 기업 4개), 시리아(기업 2개), 베네수엘라(기업 1개) 등이 포함됐다고 발표
- 국무부는 “이번 제재는 이들 기업과 개인이 북한, 이란, 시리아와 다자간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라있는 무기 관련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나 향후 WMD 및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 이번 제재는 2년간 지속되며, 미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기간에 이들 기업이나 개인과는 어떤 거래, 지원, 허가도 중단하게 되었다고 뉴스는 전함.

● **“유엔, 대북사업에 1천만달러 긴급지원”(5/25, 미국의소리(VOA))**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약 1천만달러를 긴급지원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
- VOA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9백98만달러(한화 109억여원)를 북한 관련 사업에 추가했으며 이 중 720만 달러가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지원 사업에 배정되었으며,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주민 영양지원 사업에는 약 110만달러가, 식량농업기구(FAO)의 구제역 대응 사업에는 89만달러가 책정되었다고 전함.

● **“美특사 방북 불구, 원조재개 예단 못해”(5/26, 르몽드)**

- 프랑스의 유력 신문인 르 몽드는 26일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가 북한의 기근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방북했지만 미국의 원조 재개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보도
- 르 몽드는 그러나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 북한이 식량사정이 위급해 킹 특사가 방북했다면서 이달까지 아무런 원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한 600만명이 기근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함.

- 이어 신문은 한국과 미국이 2009년 쌀 원조를 중단한 것은 쌀이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킹 특사의 방문이 미국의 원조 재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임.

● **北 4월 대중 석탄 수출 사상최대(5/26,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4월 대(對)중국 석탄 수출액이 1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6일 보도
 -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114만가량의 석탄을 수출해 약 1억1천100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지난해 4월의 17만2천여, 132만2천900만달러에 비해 물량은 6배, 금액은 8배 늘어난 것이라고 방송은 전함.
 - 수출량보다 수출액 증가폭이 큰 것은 지난해 t당 76달러였던 석탄 수출가가 올 4월에는 97달러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VOA는 설명

● **“美, 대동강맥주 수입 보류”(5/26,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9월 수입을 허가했던 북한산 ‘대동강맥주’의 수입을 보류하고 수입허가를 재신청하도록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
 - 대동강맥주의 수입을 추진해온 스티브 박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대표는 RFA에 “지난 24일 재무부로부터 대동강맥주 수입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며 “서한에는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내용상 수입이 안된다는 내용인 것 같다. 일단 재신청을 해볼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미국의소리(VOA)는 지난달 22일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이미 받아 수입절차를 시작한 개인이나 업체들은 해당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과거 미 정부가 승인한 어떠한 북한 제품의 수입 허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도

● **“北, 신압록강대교 통한 ‘개방바람’ 경계”(5/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 개발을 계기로 중국발(發) ‘개방바람’이 유입될 것을 경계해 교양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RFA는 북한 신의주시 인민위원회의 국장급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당)에서 시 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신압록강대교와 황

금평 개발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다리를 건설해준다’ ‘황금평을 개발해준다’면서 우리를 남조선에 팔아버릴 수 있으니 주체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

- 강연에서는 “중국이 남한과 장사를 하기 위해 북측에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제안한 것이다. 압록강 다리 건설로 인한 대국주의(大國主義) 침투에 경각심을 가지고 황색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RFA는 덧붙임.

● **황금평·라선특구 착공식 전격 취소(5/26, 연합뉴스)**

- 이달 말 예정됐던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이 전격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황금평과 라선특구는 북한과 중국이 합작개발하기로 한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끝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귀국길에 오르는 시점에 착공 연기설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의 한 소식통은 26일 “오는 30일 라선특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훈춘(琿春)-라진항 도로보수 공사와 라선특구 내 일부 중국기업 공장 착공식이 취소됐다”고 밝혔으며 그는 “북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이) 취소 요청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함.
- 또한 황금평 개발 착공식도 애초 예정됐던 28일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동의 한 소식통은 “28일 황금평 개발 착공식이 취소됐다”고 밝히며 “백지화한 건 아니고 2-3일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리더라도 애초 계획됐던 것처럼 ‘큰 손님’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착공식 날짜가 김 위원장의 귀국 예상 시점과 맞아떨어지면서 북·중이 김 위원장 방중 기간 황금평과 라선특구 합작개발을 둘러싼 ‘통 큰’ 합의를 이뤄낸 뒤 이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북·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오른 시점에 맞춰 착공식 연기설이 불거지면서 양국 간 경협을 둘러싼 협상이 매끄러운 결말을 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그러나 극비리에 부쳐지는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착공식 일정이 잡혔다가 단순히 순연된 것이어서 착공식 취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음.

● **中, 北라진 도로보수 이달말 착공 확인(5/27, 연합뉴스)**

- 북한의 원정리와 나진항 간 도로 보수공사가 5월 말에 착공될 것이라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7일 지린(吉林)성 정부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린성에 따르면 이 공사는 중국과 북한 협력 개발 중인 라선지구의 중점 사업으로, 북중 무역협력과 두만강 지역 국제합작개발 사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26일 나오는데 이어 그럼에도 해당공사는 이달 말에 시작될 것이라고 지린(吉林)성 정부가 27일 확인하고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소금 부족 北, 남포해수 평양까지 수송(5/29,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소금 부족으로 평양의 식수 소독에 애로를 겪으면서 남포의 바닷물을 평양까지 끌어오는 수송관 공사에 한창으로 바닷물을 끌어와서라도 평양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이지만 그리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
- 지난 24일 조선중앙통신이 “평양에서는 바닷물 공급소 펌프장 건축공사가 끝났고 남포에서도 바닷물 침전지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전하는 등 북한 매체들은 지난 2월부터 수송관 공사 진척상황을 속속 알리고 있음.
- 또한 지난 2월 열린 수송관 착공식에서 박병중 평양시 인민위원회 1부위원장 “장군님께서 소독용 소금이 긴장한(부족한) 조건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독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한 것을 보면 소독용 소금이 부족한 북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며 연합뉴스는 전함.

● **北라진항 확보 中훈춘 석탄업계 ‘신바람’(5/29, 연합뉴스)**

- 북한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 동해 진출 길이 열린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의 석탄업계가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남방지역 운송에 대비, 대대적인 생산 설비 확대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지역 최대 석탄업체인 훈춘광업집단유한공사는 2012년까지 2년 동안 12억 위안(2천억 원)을 들여 연간 석탄 생산량을 1천만t으로 끌어올리기로 함.

- 중국 창리(創立)그룹이 2008년 북한으로부터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 중국 두만강 유역에서 동해로 진출할 뱃길이 뚫렸으며, d; 그룹은 이미 라진항 1호 부두 정박지 보수와 확장을 통해 연간 100만t의 하역 능력을 갖추.
- 훈춘-북한 원정리-라진항을 잇는 도로가 지금은 대규모 물류 운송이 어려운 비포장 도로여서 동해 뱃길이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이달 말 이 도로 보수공사가 시작돼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라진항을 통한 동해 뱃길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며, 이렇게 되면 랴오닝(遼寧)성 다렌(大連)항이나 철도에만 의존해온 지금과 달리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 훈춘을 비롯한 두만강 유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이 대거 남방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뉴스는 전함.

● **美이여 EU도 내달초 北식량평가팀 파견(5/29, 연합뉴스)**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초 북한에 식량평가팀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평가팀은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직원들로 구성되며 미국 식량평가팀이 다음달 2일 조사활동을 완료한 이후 방북할 것으로 전함.
-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29일 “미국의 식량조사 활동이 다음주 중으로 마무리되는데 이어 EU도 곧바로 평가팀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지금은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진행중인 단계이며 식량지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함.
-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시기와 규모, 방법은 EU 평가팀의 조사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소식통이 전함.

다. 군사

● **“北, 보안취약국 경유해 이란과 불법무기 거래”(5/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보안이 허술한 제3국을 이용해 이란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교환해왔다는 유엔 전문가팀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접경국가인 제3국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거래했다”고 전함.
-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자가 여객기로 보안이 취약한 제3국에 당도한 뒤 몰래 비행기를 바꿔 타고 이란으로 향했다는 내용임.
- 북한은 감시망을 피하려고 제3국을 거의 경유하지 않는 고려항공 대신 외국항공사 소유의 전세 비행기를 제3국으로 운항시켰으며 이란의 항공사 이란에어도 동원됐다고 RFA는 설명
- 유엔 보고서는 2009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북한이 이용한 전세기가 압수됐으며, 이 전세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이때도 감시가 약한 제3국이 항로 변경을 묵인해줘 항공기가 무기거래 당사국으로 운항되는 식으로 불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덧붙임.
-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들어 불법 금융거래를 숨기려고 물물교환과 현금거래를 늘리고 있다며 조선광업무역회사와 같은 유엔의 제재대상 기업들의 지시를 받는 일부 무역회사의 간부들이 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함.

● 北, NLL인근 고암포 해군기지 완공 단계(5/29, 연합뉴스)

-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북한의 고암포 해군기지가 완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고위 소식통은 29일 “북한이 황해도 고암포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군기지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공기부양정과 공기부양 전투함을 보관하는 육상계류장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힘.
- 소식통은 “고암포 기지의 육상계류장은 전투기 격납고와 유사한 형태로 건설됐다”면서 “다음 달부터 공기부양정 및 공기부양전투함을 배치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
- 다른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이 고암포 기지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군당국은 북한군이 고암포 해군기지를 새로운 ‘기습침투용 모(母)기지’로 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함.

2 대외

가. 일반

- **中정협 부주석 “북중친선은 피로 맺어져”(5/23, 조선중앙방송)**
 - 지난 21일까지 방북했던 천종싱(陳宗興) 중국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부주석은 “중조(북)친선은 불패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3일 전함.
 - 천 부주석은 출국에 앞서 조선중앙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중조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고 중조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
 - 이어 그는 “중국의 노세대 혁명가들과 김일성 주석께서 공동의 위업 실현을 위한 투쟁 속에서 중조친선을 마련해 주셨다”며 “이 친선관계는 후진타오 총서기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함.
 - 또한 그는 “중국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앞으로도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강화발전에 적극 이바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 **캠벨 “대북문제 中역할 평가..분명한 입장 취해”(5/24, 연합뉴스)**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관련, 북한이 책임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국무부가 23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중이던 캠벨 차관보는 지난 22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김정일의 방중과 관련, “정보를 가진 것이 없으며, 코멘트할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함.
 - 캠벨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면서 “북한이 책임 있게 한국 및 국제사회와 관계하도록 유도하는데 중국이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 “北 식량난 있지만 심각한 굶주림은 없어”(5/24, 연합뉴스)

- 북한의 식량 기근이 지난 3년 간 이어지고 있지만 올들어 특별히 달라진 상황은 없으며 심각한 기아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피터 휴스 북한주재 영국대사는 스웨덴, 일본, 네덜란드 대사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채텀하우스에서 열린 강연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대로 매년 이어져 온 식량 문제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기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23일 전함.
- 이 소식통에 따르면 휴스 대사는 “특히 평양의 경우 기아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산이나 다른 도시에서 기아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그곳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부터 기아 조짐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함.
- 휴스 대사는 “북한은 바티칸에도 식량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의도는 식량 문제 해결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함.
- 또한 “북한이 3남 김정운을 공식석상에서 내보였을 뿐 후계자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면서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김정운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국방위나 장석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통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휴스 대사는 “남북대화나 6자회담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은 늘 그랬듯 이 향후 3개월 내에 추가 도발이나 특이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냄.
- 이어 휴스대사는 “북한 정권도 재스민 혁명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감시를 강화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중동사태에 대해 알고 있어 북한에서 유사한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고 뉴스는 전함.

● 로버트 킹 美인권특사 평양 도착(5/24, 조선중앙통신)

-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국무부 대표단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중앙통신은 대표단이 ‘북미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다고만 언급했으며 일정 등은 알리지 않음.

● **美 “킹 특사, 北인권문제 제기할 것”(5/25,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 식량사정 파악을 위해 방북 일정을 시작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측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4일 밝혔다.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킹 특사가 인권문제도 제기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북한 감옥에 수감돼 있는 미국시민(전용수씨)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 기반한 즉각적인 석방도 거듭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 억류 전용수씨 반년만에 석방(5/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중앙통신은 “조선을 방문한 로버트 킹 인권담당특사가 미국정부를 대표해 사건 발생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며 “앞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도 관대하게 용서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을 고려해 전용수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석방해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중앙통신은 “조사결과 전용수가 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본인도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솔직히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전씨의 범죄행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음.
- 이어 “그가 억류된 기간에 조선에서 미국의 이권을 대표하는 주북 스웨덴 대사관 측의 정상적 영사접촉과 가족들과의 서신거래 및 전화통화를 보장해줬으며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도 해줬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美-러-나토의 ‘유럽미사일방위체계배비 협조문제토의’(5.3) 관련 “현실은 전략적 이해관계의 모순으로 美-러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고 주장(5/22, 중통·노동신문·중방)

나. 6자회담(북핵)

- **印尼 “7월에 6자회담 참가국 회동 주선”(5/26,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는 북핵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6자회담 참가국간 회동을 주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
 - 26일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마티 나타레가와 외무장관은 오는 7월 발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6자회담 당사국인 남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함.
 - 24일 나타레가와 장관은 비동맹회의 외무장관회의 참석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따로 만나 양국 무역·투자 증진 방안 및 비핵화 대화 재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힘.
 - 나타레가와와는 “북한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대화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고 전함.

- **北박의춘 “6자회담 조기재개 위해 노력”(5/27, 조선중앙방송; 신화통신)**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6자회담 조기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전함.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비동맹회의 외무장관회의에 참가 중인 박 외무상은 지난 25일 연설에서 “유관측들과 협력해 대화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미, 북남사이에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대화의 기본 취지”라고 말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5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박 외무상은 이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분야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 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평화적 환경”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의해서 조선반도에는 전쟁접경에 이르는 폭발적인 정세가 주기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그는 “올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념으로부터 남조선 당국에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를 전제조건 없이 열고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임.

● G8 “北, 6자회담 위한 구체적 조치해야”(5/27, 연합뉴스)

-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27일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난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상들은 이날 프랑스 북부 휴양지 도빌에서 폐막한 G8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상회담 선언문 전문을 발표
- 선언문은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런 목표를 위해 힘쓰는 한국의 현재 노력에 지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또 정전협정은 물론 여러 남북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면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및 경수로 건설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비난한다고 밝힘.
- 선언문은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의무 준수를 거듭 촉구하면서 국제적인 의무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납치문제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3 대남

- **외교부 “北 책임있는 조치없이 상당히 유감”(5/24, 연합뉴스)**
 -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4일 “현재까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 1주년과 관련해 “‘5.24조치’가 내려진 과정에서 북한에 분명히 이 두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힘.

- **통일차관 “5.24 해제 열쇠는 북한 손에”(5/24, 연합뉴스)**
 - 엄중식 통일부차관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5.24조치) 1주년인 24일 “5.24조치 해제의 열쇠는 북한 손에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힘.
 - 엄 차관은 이날 언론 기고문을 통해 “5.24 대북조치는 아직 진행형이며, 문제는 열쇠를 쥐고도 뒷짐을 지는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라며 이같이 말함.
 - 이어 엄 차관은 “북한이 미래로 가려면 천안함·연평도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를 우회하려는 태도는 북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함.
 - 또한 그는 5.24조치에 대해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한 사실상의 첫 대규모 제재”라고 규정함.

- **김성환 외무 “북주민·통일 위해 北 비핵화 필요”(5/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북한 주민의 생활과 통일 기반을 닦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전함.
 -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한국 외교의 비전과 청년들을 향한 바람’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외교부의 당면 과제로 들며 이같이 밝혔으며, 그는 “햇볕정책을 통해 많은 원조를 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살림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물자를 도와주는 것은 소비만 하고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지적

- 또 “통일을 위해서도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일 이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주변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남북교역 결제업무’ 취급은행 지정키로(5/25,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통일부는 25일 남북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중 은행을 상대로 ‘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 통일부는 이를 위해 이날 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 18개 은행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으며, 통일부는 그동안 외국환 거래가 가능한 18개 은행이 남북 교역과 관련한 대금결제를 해서 북측으로의 현금 유입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

● **李대통령 “통일 내일 될 듯이 준비해야”(5/25,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와 자문위원 3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대통령은 통일의 필요성과 원조 위주의 북한 지원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일 후 맞닥뜨릴 정치와 경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
- “지금 남북은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어찌면 상당히 간격이 있는 상황에 있다”면서 “이제는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그러면 우리 남북은 서로 대화를 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 **‘北송금 승인’ 추진에 탈북자들 불만 고조(5/26, 연합뉴스)**

- 국내 거주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때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탈북자들이 거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현재는 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만 승인 대상으로 하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탈북자 3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5%가 대북송금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대북송금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남북 간 금전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 개정안을 마련

- 그러나 탈북자들은 정부가 대북송금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승인권 행사로 탈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고 북쪽 가족의 신원 발각 위험만 높인다는 점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김정일방중, 남북관계 영향 지켜볼 것”(5/27,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한의 태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주일간의 김 위원장 방중에 대해 “북중 간의 외교적 활동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적극적 해석을 피하면서도 이같이 언급했으며, 이어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기타 (대남)

- 李대통령의 訪獨對北발언과 對北정책을 “체제통일선언, 전쟁선언”이라고 왜곡 및 “추후도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持續비난(5/22, 중통·노동신문·평방)
- 北, ‘통일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訪北신청 불허’ 관련 “반통일적 망동을 감행했다”고 비난(5/26, 중통·중방)

5.30-5.31

5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南정부 상종안해, 심리전엔 물리적대응”(5/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30일 남한 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것이며 동해 군(軍)통신선을 차단하고 금강산 지구 통신연락소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중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공세는 무자비한 공세”라며 이같이 밝힘.
 - 성명은 “전제조건 없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우리의 아량있는 제안에 악담질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저들이 바라는 ‘급변사태’가 올 것처럼 내외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
 - 이어 “반공화국 심리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한 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 물리적 대응을 따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성명은 또한 남한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관련, “제 나름의 판단대로 스스로 망할 때까지 그 무슨 ‘원칙론’을 고수하며 ‘기다림 전략’에 따라 급변사태를 실컷 기다려 보라”며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

- 北리무영 화학공업상 부총리 임명(5/3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리무영(63) 내각 화학공업상이 부총리에 임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중앙통신은 “리무영을 내각 부총리로 임명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31일 발표됐다”고 전하면서 임명 배경은 따로 밝히지 않음.
 - 리 신임 부총리는 북한의 대표적 화학비료 생산기지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일하다 2002년 10월부터는 지배인이 됐으며 2003년 9월엔 우리의 장관에 해당하는 화학공업상으로 일함.

- 리 신임 부총리의 승진은 이달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을 찾아 비료생산을 독려하는 등 식량증산에 매달리는 북한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현지 요해(5/31, 중통·중방)
- 김영남, 5.31 駐北 알제리 대사(‘하싼 라베히’) 신임장 접수(5/31, 중통·중방)
- 김영일(黨 비서), 5.31 프랑스 조선연구그룹바 대표단과 담화(5/31, 중통·중방)
- 北 黨중앙委, 5.31 김영일·리영철(黨 부부장) 등 참석下 프랑스 조선연구그룹바 대표단을 위한 연회 개최

나. 경제

● ‘5면3감’…北나선 투자 세제특혜에 신조어(5/30, 연합뉴스; 경제연구)

- ‘3면 2감’ ‘4면 3감’ ‘5면3감’북한이 나선경제자유무역지대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각종 세제혜택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연합뉴스가 30일 입수한 북한의 대표적 경제잡지인 계간 ‘경제연구’ 최근호(2011.2호)는 논문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세금특혜에서 중요한 것은 세율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라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를 집중적으로 소개
- 이 잡지는 작년 9월 공포된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규정규칙’을 인용해 “하부구조건설부문(SOC)에 우선적으로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감면해줄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세율적용을 ‘5면 3감’으로 소개
- 이어 생산부문의 외국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발생하는 해부터 3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토록 했다며 이를 ‘3면 2감’으로 소개했으며, 3천만유로 이상 인프라 투자 때는 4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3년간 50% 감세토록 한 것을 ‘4면 3감’으로 설명
- 경제연구는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소득세는 14%로 중국 특구의

15%, 홍콩의 18%, 싱가포르의 26%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세금 특혜는 기업소득세뿐만 아니라 영업세와 거래세의 세율설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

- 이 잡지는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과세대상을 단지 비생산용 고정재산에만 국한시켰다”며 “주택용 건물인 경우에도 외국인이 이 지대에 건물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그들이 직접 건설했거나 자기 자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때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함.
- 경제연구는 “일관성 없이 법규정을 자주 뜯어고쳐서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이 투자재산에 대한 법적 담보를 잃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
- 이어 “세무관리일꾼들이 외국인 투자관계법을 정통하고 회계, 재정, 금융, 가격, 세무 등 풍부한 경제지식을 소유하며 그것을 능숙히 활용하는 문제는 오늘의 중요한 요구”라며 세무관리들이 새로운 세무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

● “EU 내달 6~17일 방북 식량조사”(5/31, 미국의소리(VOA))

-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식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1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소속 직원 5명은 다음달 6일 방북, 17일까지 12일간 병원과 고아원을 방문하고 주민·당국자와 면담을 통해 북한의 식량안보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들은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기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과도 접촉할 계획
- 조사단은 두 팀으로 나뉘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방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ECHO의 마코 카푸로 북한 담당관은 VOA에 “조사단이 활동을 마치면 바로 내부검토를 거쳐 2~3주 내에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자체 개발 컴퓨터 생산”(5/31, 중국통신망(通信網))

-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컴퓨터 ‘붉은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중국통신망(通信網) 등 중국 언론이 31일 보도
- 언론은 북한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체제를 갖춘 3개 모델의 붉

은별 컴퓨터 양산에 들어갔다고 전했으며, 북한이 생산 중인 컴퓨터는 2개의 교육용과 1개의 사무용 모델이라고 전함.

- 북한 컴퓨터 생산 공장 배명석 대표는 “붉은별 컴퓨터는 오랜 연구 끝에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개발한 것”이라며 “생산 원가는 매우 낮지만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모두 장착돼 있다”고 소개했으며, 그는 “컴퓨터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임.

● **경남의 우량 벼씨 보급해 북한 식량난 해결한다(5/31, 연합뉴스)**

- ‘통일밀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와 통일농업운동단체가 다시 손을 잡고 경남의 우량 벼씨를 북한에 보급해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31일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회장 전강석)와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밀양에서 다수확 우량품종인 ‘삼덕벼’ 등을 심어 77t을 수확해 북한에 보낼 계획
- 경남에서 주로 재배되는 우량 벼씨인 삼덕벼와, 운광벼, 만중벼 등을 제공하면 20% 가량 수확을 늘릴 수 있고 비료와 농약까지 제공한다면 40% 까지 늘려 남한수준의 수확량에 접근할 수 있다고 경통협은 설명
- 북한이 현재 자체 생산하는 쌀은 250만t으로 수요에 비해 매년 100만t 가량 모자라는 형편인데 40% 증수가 실현된다면 식량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계산이라고 뉴스는 전함.

● **“北, 2009~2010년 伊서 사치품 수입 시도”(5/31, 아사히신문)**

- 북한이 2009~2010년에 이탈리아에서 영사기와 코냑 등 사치품을 수입하려고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유엔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5월 이탈리아에서 관객 1천명 규모의 영화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영사기와 앰프 등을 수입하려다가 공항 세관에 적발
- 또 2009년 8월에도 코냑 150병과 위스키 270병 등을 수입하려다가 이탈리아 동부 해안도시 안코나 세관 당국에 압류됐고, 지난해 9월에는 미국제 텀댄스 용 고급 신발 60켤레가 이탈리아 세관에 압류되었다고 신문은 덧붙임.

● **北총리, 생산현장서 협의회 열어(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최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안변청년발전소, 중앙양묘장 등을 시찰하고 현지에서 협의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중앙통신은 “총리는 해당 단위에서 강성대국 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기술개진을 다그치기 위한 협의회를 조직했다”고 밝힘.
- 이어 “협의회에서는 선진기술에 따른 압연 강재 생산공정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효율 높은 발전설비를 생산하는 문제, 나무모 생산의 공업화와 당면한 모내기 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문제 등 여러 부문 사업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됐다”고 덧붙였다.

다. 사회문화

● **“흡연을 낮춰라”…北 목표는 30%(5/31,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성인 남성의 절반 이상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흡연율을 30%까지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등 북측 매체의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북한의 흡연율은 54.7%로 북한에서는 여성이 담배를 거의 피울 수 없는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흡연을 하는 성인 남성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뉴스는 지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북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56%로 아시아권에서 57%였던 중국과 라오스 다음으로 높았다고 뉴스는 전함.
- 2000년 6월 조선중앙TV가 “모든 사람이 건강에 나쁜 담배를 끊고 건강한 몸으로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금연을 재촉한 것만 봐도 흡연율을 낮추려 애쓰는 당국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뉴스는 보도
- 실제 북한에서는 2005년 담배통제법을 제정한 데 이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담배에 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담배를 끊으려는 이들에게는 금연보조제를 나눠주며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북한은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흡연율을 30%까지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목표를 이뤘을 공산은 낮아 보이는데, 이는 실제 30%까지 흡연

올이 낮아졌다면 당국이 나서서 ‘홍보’했을 테지만 세계 금연의 날인 31일에도 조선중앙방송이 “금연과 관련한 위생선전활동과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을 비롯해 여러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린 게 전부임.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자강도예술단의 5.30~31 동평양대극장에서 공연진행(5/31, 중통)

2 대외

● 中 “한반도 안정, 南北노력·협조와 불가분”(5/3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31일 “한반도 안정 유지는 남북한의 공동 노력, 협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장 대변인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30일 남한 정부와 상충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남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며, 남북한 쌍방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
-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올해 들어 관련국들의 공동 노력으로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하고서, “우리는 관련국들이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그러나 그는 북한·중국 정상회담 이후의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중 실무회담 개최 여부를 묻자 “구체적인 소식을 알게 되면 그때 알려주겠다”며 대답을 피했다고 뉴스는 전함.

● 캠벨 “北, 남북대화와 취해야할 조치 있다”(5/31,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힘.
- 캠벨 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

- 석, 김정일 방중 결과에 따른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입장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중국이 북한에 분명히 하도록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중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함.
- 이와 관련, 그는 6자회담 재개 전 남북간의 중요한 대화가 있어야 하며, 6자회담 재개 전 북한이 취해야할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고 강조
 - 그는 아직 중국 측으로부터 김정일 방중 결과와 관련한 공식적인 디브리핑은 받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중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힘.
 - 그는 또 미국과 동남아와의 관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과 더욱 더 협력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올해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함.

3 대남

● “‘육사동문’ 가장 北 해킹 메일 확산”(5/30, 연합뉴스)

- 육군사관학교 동문을 가장한 북한의 해킹 이메일이 일선 부대 장교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군 관계자는 30일 “육사 동기를 가장한 해킹 이메일이 확산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7일 일선 장교들에게 긴급 경고문을 하달했다”면서 “메일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북한 해커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그는 “현재까지 60여명의 육사 출신 장교에게 해킹 이메일이 전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군 내부망에서는 한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유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함.
- 군 당국은 “북한 해커에 의해 한메일(다음) 계정을 사용하는 현역 장교를 목표로 해킹 시도가 급속히 확산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정 발신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해당 부대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팀(CERT)에 신고하라”고 당부

● 통일부, ‘대북지원 협의’ 방북 4건 허용(5/31, 연합뉴스)

- 통일부가 지난 30일 인도적 대북지원 협의 목적의 방북신청 4건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에 따라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관계자 7명과 등대복지회 관계자 2명이 31일 각각 북한 개성을 방문해 대북 지원과 분배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날 저녁 돌아올 예정이며, 이번 방북에서 1천300만원 상당의 분유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 한편 통일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6.15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개최 논의를 위한 개성 실무접촉에 대해 30일 불허방침을 통보했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에 따라 사회문화 교류 등의 방북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면서 “다만 인도적 목적의 방북은 허용 폭을 차츰 넓혀가려 한다”고 말함.

● ‘내일 금강산 관리인원 출입경’ 北에 통보(5/31, 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6월1일 금강산 관광지구 관리인원 14명의 출입경 계획을 31일 북측에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관계자는 “내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 측 관리인원 7명이 귀환하고 7명이 방북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오늘 오전 서해 군(軍)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보했다”고 말함.
- 북측의 회신 여부에 따라 우리 측 인원 14명은 이르면 오전 9시40분부터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입·경할 예정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6.01-6.05

6월

1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南, 판문점 등서 3차례 정상회담 제안”(6/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지난달 남한이 베이징 비밀접촉에서 6월 하순과 8월, 내년 3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열자고 제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밝힘.
- 북한은 특히 남북간 비밀접촉에 나선 남측 인사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거론하고 이명박 정부를 ‘역적패당’ ‘불한당’ 등으로 표현하며 “더이상 상대 안하겠다”고 밝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지난 5월9일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이 나와 북측과 비밀접촉을 했다고 밝히면서 “저들은 이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모두 잡아놓고 있다고 했다”며 이 같이 주장
- 국방위 대변인은 “이들은 우리와 한 초기 약속을 어기고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혜롭게 넘어야 할 산’이라며 우리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말함.
- 이어 “우리 측이 우리와 무관한 사건과 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두고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아주자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 측에서 ‘제발 좀 양보해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
- 대변인은 비밀접촉 내용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 “괴뢰들은 비밀접촉에서 오고간 이야기가 이남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꼭 비밀에 부쳐달라고 했다. 이러한 자들이 이명박 역도의 ‘베를린 제안’의 당위성을 선전할 목적 밑에 베이징 비밀접촉 정형을 날조해 먼저 여론에 공개했던 것”이라며 남측에 책임을 돌림.
- 또 “이명박 역적패당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애당초 그 무슨 베를린 제안과 같은 악담을 늘어놓지 말고 비공개 접촉 사실

을 왜곡해 신의없이 공개하는 연극도 놀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사회담 거부사를 분명히 함.

- 대변인은 문답에서 “남측에서 ‘정사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하면서 돈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

● ‘역적패당·불한당’…北 거친 표현으로 南 비난(6/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사회담 비밀접촉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면서 ‘이명박 역도’ ‘이명박 역적패당’ ‘불한당’ 등의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
- 중앙통신은 “역도가 제아무리 발악해도 집권 3년간 저지른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압박용 언사를 이어감.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은 2000년대 초부터 한나라당을 ‘역적패당’이라고 지칭하며 남한의 대북정책을 북측에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지원을 줄이고 교류 통로를 좁히는 대북정책이 추진되자 점차 험한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를 높임.
-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나온 국방위 대변인 성명에는 “리명박 역적패당과 더 이상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리명박 역적패당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못된 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는 등 공식 입장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표현도 많이 포함
- 특히 북한은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서는 ‘특대형 모략극’이라거나 ‘날조극’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남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음.
- 북한의 거친 표현에는 남측을 압박해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북한은 먼저 대화 카드를 연속적으로 내밀던 올해 1~3월께는 남한의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대남압박을 하거나 ‘리명박’ ‘정부’ 등으로만 남측을 지칭

● 조선신보 “北 비밀접촉 폭로는 최후통첩”(6/1,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남북 비밀접촉 논의 내용을 공개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에 대해 ‘평양의 최후통첩’이라고 밝힘.
- 신문은 북한이 ‘정세의 긍정적 발전’을 바라고 있다며 남측에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
- 조선신보는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중수뇌회담(5월25일)에서는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 견지’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추구’ 등의 정책방향이 확인됐고 그 직후 평양에서 동족대결정권을 향한 최후통첩이 나왔다”고 전함.
- 이어 “조선이 정세의 긍정적인 발전을 바라고 있음은 명백하다”며 “그러지 않으면 대화외교 재개의 흐름을 거역한 정권을 신랄하게 단죄하는 성명을 일부러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 또 “보도에 의하면 조중수뇌회담에서 쌍방은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등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장애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문제를 상정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는 앞으로의 정세추이가 실증할 것”이라고 밝혀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라는 주장을 내비침.
- 신문은 “조선은 지난 4월 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북남대화와 관련한 최고영도자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최고수준에서 이뤄진 중대제의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대북대결정책을 완전 포기한다면 혹시나 구원의 손길이 뻗쳐올 수도 있겠다”고 여지를 둠.

● 北 김정일, 자연과학연구소 현지지도(6/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확장공사를 마친 자연과학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김 위원장은 어족자원 연구와 양어 및 물고기 가공사업을 함께하는 자연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컴퓨터조종실, 진공포장실 등을 둘러보고 “양어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선진적인 사양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
- 그는 이어 “앞으로 가공대책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각종 혼제품과 절임 제품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여러 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가공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임.

● “김정일-장쩌민 양저우 회동 불발된 듯”(6/2,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0~26일 방중 때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북수의 정부 고위소식통은 2일 “김 위원장과 장 전주석이 만났는지 여부를 공식 확인할 길이 없으나 여러 가지 입수된 첩보들과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소식통은 “김 위원장으로서 장 전주석을 만나지 못한데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회동에서 북·중 경협문제가 희망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측이 남북 비핵화 회담에 나서라고 설득하자 그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
- 이어 소식통은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강경한 입장표명은 중국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우세하다”면서 “중국이 ‘선물’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함.
- 양저우는 장 전주석의 고향인 데다 김일성 주석이 장 전 주석과 함께 방문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장 전주석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됐었으나 불발된 이유는 장 전 주석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두 사람의 회동 불발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국방위 대변인의 성명과 대답은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그만큼 북·중 협의가 순조롭지 못했으며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함.

● 北 숙청·세대교체..김정은 ‘인적기반’ 구축(6/2, 연합뉴스)

- 북한이 주요 간부에 대한 숙청과 세대교체를 통해 후계자 김정은 중심의 인적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소식통은 2일 김정은이 기강확립을 위해 중앙당에 양대 공안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 간부 색출과 함께 충복 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함.

- 이런 조치의 하나로 보위부 핵심실세였던 류경 부부장이 간첩죄로 처형되고,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류경 부부장과 주상성 부장의 숙청 및 해임은 일부 알려졌던 내용이지만 정부 소식통을 통해 각각 간첩죄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것이 확인된 것은 이례적
- 류경 부부장의 숙청에는 김정은 측근 인물들의 제보, 주상성의 해임에는 알력관계에 있던 고위 간부의 밀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 보위부 소속 류경 부부장의 측근 간부들도 대거 해임된 것으로 보는데, 인민보안부 역시 지방 보안서에 이르기까지 중앙당의 대대적 감찰을 통해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이 줄줄이 해임된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한편으로 김정은 시대의 주축이 될 중간 간부층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당·정·군 중간 간부층을 30~40대로 교체하고 있고, 당 전문부서 과장급에도 40대를 기용하면서 지방당에도 60대 이상 간부들을 젊은 층으로 바꾸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체제 단속강화를 위해 주민 소요에 대비 지난해 각 도·시·군 별로 특별기동대를 창설함과 동시에 잠재적 체제위협 세력 제거의 일환으로 평양시에서는 전과자나 지방출신 노동자를 오지로 보내고, 양강도 및 함경북도 등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국경으로 멀리 떨어진 농촌이나 탄광으로 추방

● **김정일, 강원도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6/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원도 고산군의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밝힘.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산과수농장은 인민들에 대한 과일공급뿐만 아니라 나라의 과수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장이라고 하시면서 농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다”고 전함.
- 이어 “고산과수농장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수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능력확장공사를 계속 줄기차게 벌이며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하셨다”고 덧붙임.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비서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했으며,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수행단에 거명되지 않음.

● 北 “‘상종 불가’ 국방위성명은 단호한 징벌”(6/2, 우리민족끼리)

- 1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북한이 2일에도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비난
- 이날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30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와 더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관련해 “북남관계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넣은 극악한 반공화국 대결 광신자들에게 가해진 단호한 징벌이며 정정당당한 조치”라고 강변
-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며 “오늘 북남관계가 더는 수습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리명박 패당이 집권초기부터 악랄하게 감행해온 반공화국대결 책동의 필연적 후과(결과)”라고 주장
- 이어 “리명박 패당은 ‘원칙고수’와 ‘기다리는 전략’을 운운하며 대화와 협력을 끈덕지게 거부했는가 하면 특대형 모략극까지 날조하고 반공화국 심리 모략전과 전쟁도발 책동을 벌였다”며 “반공화국 대결책동은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과 신성한 체제를 비난하고 혈뜬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비난

● 北 “‘예비군 표적’은 특대형도발…군사적보복”(6/3,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은 3일 국내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적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예비군 훈련장 표적지 활용을 ‘특대형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농적위군 부대들은 역적무리를 일격에 쓸어버리기 위한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남조선 괴뢰당국은 특대형 도발행위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정식으로 사죄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를 공식담보해야 한다”며 “모든 부대는 괴뢰당국이 이번 사건의 주모자 처형과 사죄조치를 세울 때까지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대응 도수를 계단식으로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남조선 괴뢰당국은 최악의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주모자들을 즉시 엄벌에 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특대형 범죄를 저지른 괴뢰 국방부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사불한당들을 민족공동의 이름으로 처형하는 즉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
- 대변인은 “세계는 나라와 민족의 최고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천만군민의 보복대응이 어떤 것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덤비고 있는 이명박 역도와 괴뢰 군부호전광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군사적 대응을 다짐
- 또한 그는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애당초 마주앉을 필요가 없고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게 된 최종결론”이라고 밝혀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밀접촉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도 일부 예비군 훈련장의 표적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

● **北김정일, 대외건설자 예술소조공연 관람(6/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외건설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연관람에는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수행했지만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음.
- 공연을 관람한 김 위원장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앞장에서 피흘려 싸운 것도 우리 노동계급이었고 새 사회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것도 우리의 노동계급”이라며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새 문화창조에서도 마땅히 노동계급이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일동향**

- 김정일, 6.3 라오스 주석 ‘쫄말리 싸이나쑤’ 생일 75돌 축전(6/3, 중통)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6/7, 중방)

■ **기타 (대내 경제)**

- 김영남, 6.2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와 離任 담화(6/2, 중통)
- 박의춘 외무상과 김영일 黨비서, 6.2 新任 알제리·가나·베트남 대사와 담화(6/2, 중통)

- 최영림 내각 총리,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방문 및 “관계부문 일꾼협의회 조직” 등 현지 요해 (6/3, 중통·중방)
- 김영남, 6.3 프랑스 조선연구그룹 대표단과 담화(6/3, 중통·평방)

나. 경제

● 美 대북제재, ‘이란식 제재’로 확대 조짐(6/1, 연합뉴스)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란식 제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미국의 이란제재법은 제재 대상이 된 이란의 단체·기업·개인과 거래한 외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 상원에 지난주 제출된 ‘이란·북한·시리아 제재통합법안(Iran, North Korea, and Syria sanctions Consolidation Act of 2011)’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되었다고 뉴스는 보도
-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으로 우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와 북한과의 거래 둘 중 하나를 사실상 선택 하라는 의미
- 이 밖에 북한에 군사적 용도의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조치와 미 금융체제 접근 금지 조치도 포함하고 있으며, 또 북한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 180일 이내에 미국 항구에는 올 수 없고, 이들 선박에는 선박보험이나 재보험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 등도 포함
- 미 의회 소식통은 31일 “미 의회에서는 이란 제재 강화가 초미의 관심사” 라면서 “이 법안은 북한 뿐만 아니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함께 묶어서 강화하려는 법안으로,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 또한 상원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포함한 ‘제재통합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하원 법안조정위원회를 통해 북한 제재법안 내용이 하원 법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 “北, 근로자 7만명 외국 파견”(6/1, 도쿄신문)

-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근로자 7만명을 외국에 보내 일하게 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일 국내 단체인 ‘북한인권개선회’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
- 이 신문은 북한이 러시아에 3만명, 중동에 1만5천명, 아프리카와 중국·몽골에 각각 8천명, 동남아시아에 5천명, 동구권에 5천명을 파견하고 있다며 전체 파견 근로자는 5년 전의 약 두 배인 7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함.
- 신문은 또 북한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연간 1천억원(약 1조3천억원)에 이르지만, 이중 상당액을 상납 등의 방식으로 뜯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北 금강산특구법 제정…현대 독점권 제한(6/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현대그룹이 갖고 있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제한하고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북한에서 제정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는 한달여 전인 4월 말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북한이 금강산 지구를 통한 외화벌이에 독자적으로 나서면서 남측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조선중앙통신은 2일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
- 중앙통신에 따르면 금강산특구법은 제4조에서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여 외국의 투자에 관한 문구를 앞세움
- 또 “국가(북한)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자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특혜관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금강산 특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천명

● 美 “대북식량지원 해도 쌀은 안줄 것”(6/2,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2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식량의 군(軍) 전용을 막기 위해 쌀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킹 특사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북 식량지원시 식량이 북한군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원할 식량이 군부로서는 원하지 않는 종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예를 들면 우리는 쌀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영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지원을 결정한다면)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
- 그는 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원식량이 배분되는 장소에 접근이 가능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북한에 둘 것이라면서 “요원들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요원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킹 목사는 다만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로,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특히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어떤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북한이 먼저 모니터링 문제와 이전의 식량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 이어 킹 특사는 “방북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내 직책(북한인권특사)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해 이를 계기로 약 20분간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결론은 북한이 인권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김 부상은 인권문제 논의를 위해 나를 다시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전함.
- 그는 “이번 방북은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첫번째로 북한 방문이 허용된 경우이자, 우리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경우”라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한국은 우리가 식량지원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한국내 비정부기구(NGO)의 식량지원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
- 이밖에 그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미국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하지 말도록 중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중국측의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 태도 변화도 촉구

● “北, 미국의 식량지원 조건 모두 수용”(6/2, 아사히신문)

- 북한이 미국측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
- 이 신문은 ‘6자회담 관계자’를 인용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달 말에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만났을 때 식량의 군 전용을 막는 감시 태세를 갖추라는 등 미국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전함.
- 한편 킹 특사는 2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검토 가능한 미국의 식량 지원 방식에 대해 ▲군부가 원하지 않는 종류의 식량을 지원하고 ▲식량이 배분되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한국어 요원을 북한에 두고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지원하기보다는 매우 느린 속도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

● 황금평·라선특구 착공식 이달 열릴 듯(6/3, 연합뉴스)

- 지난달 말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던 북한의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이 이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단둥(丹東)과 연변(延邊)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합작하기로 한 압록강의 섬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이 각각 이달 7일과 9일 열릴 예정
- 단둥의 소식통들은 “황금평 개발 착공식 준비가 완료됐다”며 “7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은 이보다 이틀 뒤인 오는 9일 훈춘-북한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과 함께 라선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연변의 소식통들이 전함.
- 연변의 한 소식통은 “라선에서 연변에 파견된 북한 인사들이 오는 9일에 맞춰 착공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함.
-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에는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의 참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고 뉴스는 전함.
- 이들이 참석한다면 단순한 착공 행사뿐 아니라 이들 지역의 합작 개발을 위한 북·중 간 모종의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으며, 황금평의 경우 기간이나 방식 등을 명시한 임대 협정이, 라선특구와 관련해서는 전력과

시멘트 등 특구 개발에 필요한 설비 지원에 관한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기타 (대내 경제)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5.31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총 6장 41조) 채택 정령 제1673호1 발표 (6/2, 중통·중방)

다. 사회문화

● “北 해커 3천명…전원 유학 등 각종 특혜”(6/1, 연합뉴스)

- 북한이 ‘정보전사(해커)’ 양성을 위해 전국의 영재를 평양으로 불러모아 해외유학 등 각종 특혜를 주면서 해커들이 속한 사이버부대의 규모를 기존의 6배인 3천명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탈북지식인들의 모임인 NK지식인연대의 김홍광 대표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리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관련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전국의 영재를 평양의 금성1·2중학교 컴퓨터영재반에 해커로 양성한다”고 밝힘.
- 김 대표는 “이들 영재에게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면 지방에 있는 부모를 평양에서 살게 해주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림대학 등에서 공부시킨 뒤 전원 외국유학을 보내는 특혜를 준다”고 전함.
- 김 대표는 “이들은 유학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해킹전문부대에 배치되며 이들 부대는 영재반 졸업생을 끊임없이 수혈받아 평균 20대 연령층의 젊은 전투력을 유지한다”고 설명
- 그는 또 “북한은 지난해 정찰총국 예하 사이버부대인 121소를 121국(사이버전 지도국)으로 승격시켰고 소속 병력도 기존 500명에서 3천명 수준으로 늘렸다”며 “북한은 사이버 전력 구축 및 유지비용이 기존의 육·해·공군력에 비해 적다는 것에 주목해 사이버전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
- 김 대표는 “북한은 사이버공격시 중국 IP(인터넷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꼭 집어 밝힐 수 없고 이로 인해 북한은 남남

- 갈등 조장의 효과까지 누린다”며 “북한으로서는 무력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라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
-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은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를 통해 이른바 ‘댓글팀’을 운용하며 국내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을 확산시키는 등 현재까지는 인터넷을 체제선전, 대남 정보수집, 사이버테러 및 간첩교신의 수단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사례 등을 볼 때 향후에는 국가안보망과 군사망을 무력화하는 사이버전을 감행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전망

● “北고려항공, 주 1회 쿠웨이트 취항”(6/5,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국적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쿠웨이트에 주 1회 정기운항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5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최근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수요일 새벽 1시10분에 쿠웨이트 수도인 쿠웨이트시티의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의 비행편을 운항하기 시작
- 이 비행기는 같은 날 오후 2시 쿠웨이트를 떠나 다음날인 목요일 새벽 5시에 평양으로 돌아오는 일정
- 쿠웨이트에는 약 3천5백명의 북한근로자들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짐.
- 이 같은 소식은 고려항공의 비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가장 먼저 알려졌고 이후 항공관련 인터넷사이트들이 같은 소식을 잇달아 전함.
- VOA는 그러나 고려항공이나 쿠웨이트시티 국제공항 측에서 공식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쿠웨이트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고려항공이 쿠웨이트에 월 1회 운항하고 있으며 2주에 1번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주 1회 운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함.

2 대남

● 北 비밀접촉 ‘이례적’ 공개..파장일 듯(6/1, 연합뉴스)

- 북한이 1일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남북 간 비밀접촉 내용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측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을 통해 5월9일 베이징에서 남북 비밀접촉을 가졌으며 남측 접촉 당사자인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국가정보원 홍창화 국장,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비롯해 내용을 상세히 공개
- 북측은 이 접촉에서 남측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북) 측에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
- 또 “남측이 최소한 두 사건(천안함·연평도)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시해달라,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만나 이 문제를 결속하자. 그리고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하자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피하다 망신을 당했다”고 말함.
- 북측은 남측이 제안한 5월 하순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 6월 하순 1차 정상회담, 2달 뒤(8월) 2차 정상회담,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면서 제발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구걸했다고 주장
-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 후속조치로 장관급회담을 거쳐 내년 핵안보정상회의까지 3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북측이 남북 간의 비밀접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비밀접촉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천식 실장은 지난달 19일 베이징 비밀접촉설이 불거지자 “최근 베이징에 간 적이 없다”면서 베이징 접촉설을 전면 부인함.
- 정부는 그동안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비핵화 진정성을 사실상 남북 간 대화재개 조건으로 북측에 요구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측의 주장대로 돈 봉투를 꺼냈다면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정부, 北공개 ‘비밀접촉 내용’에 반박(6/1, 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이 공개한 남북 비밀접촉 내용에 대해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의 공개 내용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돈 봉투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면서 “당연히 그런 것은 없다”고 강력 부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
- 북측은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을 통해 5월9일부터 비밀접촉이 있었다면서 남측이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하자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피하다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
-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남측이 북측에 애걸, 구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며 뉴스는 전함.
- 북측은 남측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접촉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요구했다”면서 “우리가 정상회담에 연연해서 입장을 수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5월 하순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 6월 하순 1차 정상회담, 2달 뒤(8월) 2차 정상회담,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반박
- 그는 “정부는 이번 접촉을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 성격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현재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천안함·연평도 문제로, 이에 대해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그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가 잘 풀릴 수 있고, 풀리는 형식의 하나로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고 설명
- 이어 이 당국자는 당국자는 남북 비밀접촉 이후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지난달 30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과 오늘 국방위 대변인 답변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함.

● 北 “6·15선언 실천 남북위원회 개성서 공동행사”(6/1,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해외 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공동 행사를 오는 15일 개성에서 열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함.
-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문에서 “6월15일 개성에서 북측 100명, 남측 100명, 해외측 60여명의 참가 하에 6·15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기로 했다”며 “대회에서는 개막식과 토론회, 부문별 상봉, 예술공연, 개성지구 역사유적 참관, 폐막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힘.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6.06-6.12

6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노동당 “북중관계 代이어 강화”(6/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은 6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북중관계를 대를 이어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정치국 회의는 두 나라(북중) 영도자 사이에 합의된 문제들을 각 분야에 걸쳐 원만히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데 대해 지적했다”며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0돌이 되는 올해에 조중친선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밝힘.
- 통신은 “정치국 회의는 김정일 동지의 이번 중국 방문 결과에 열렬한 찬동을 표시하고 앞으로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전면적으로 강화발전시킬 데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고 소개
- 특히 ‘대를 이은 북중친선’을 강조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까지 양국 관계를 공고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일 동지의 이번 중국 방문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진행됐으며 훌륭한 결실을 가져왔다”고 평가
- 회의에서는 또 홍석형 당 비서를 직무 조정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로 이동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음.

● “표적지는 특대범죄” 北 사흘째 공세(6/6,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국내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을 두고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과 위협을 쏟아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은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며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나온 지난 3일 이후 주민들까지 동원해가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애당초 마주앉을 필요가 없으며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게 된 최종결론”이라고 거친 용어를 동원해 위협
- 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아나운서가 정치·경제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일터와 초소마다 이명박 괴뢰 역적패당을 단매에 처부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있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보도
- 노동신문은 ‘범죄자들을 즉시 처형하라’는 글에서 “특대형범죄를 저지른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사불한당들은 즉시 처형돼야 한다”며 “이번 죄행에는 절대로 시효가 없으며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이 이번 중대사건의 책임을 지고 처형될 때까지 군사적 보복을 계단식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하늘 끝에 닿은 치솟는 분노를 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패당에게 철추를 안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괴뢰 당국은 민족과 전세계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함.
- 조선중앙통신은 ‘사격 표적지’와 관련해 이날 노동신문에 실린 논평과 글 3건을 잇달아 올렸고 이례적으로 별도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냄.

● **김정일 訪中 이후 북중관계 변화기류(6/8, 연합뉴스; 민주조선)**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노동당 정치국은 6일 1981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회의를 열고 방중 결과를 보고받고 ‘대(代) 이은 북중친선’을 결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같은 날 정령을 통해 황금평과 위화도를 특구로 지정해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
-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1991년 10월 김일성 주석의 방중에 이어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고 이어 라진경제자유지대 창설,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합의 등 새로운 조치가 쏟아졌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
-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그동안 주로 정치·외교적 협력에 머물렀던 북중관계가 경제협력을 통해 호혜적 관계로 진화하는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특히 최근의 북중간 경제협력을 보면 중국의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으로 그동안 북중 경제협력은 주로 중국의 지방정부나 영세기업의 대북진출을 통해 이뤄졌으나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을 이끌고 경제협력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 북한도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를 북중관계에서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지난 5일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추동한 불멸의 대장정’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북중관계를 강조했다, 평양방송은 7일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중국방문은 조중친선의 훌륭한 전통과 공고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라고 평가

● 北, 이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비난(6/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틀 전 현충일 추념사에서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대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말장난’ ‘맥빠진 궤변’ 등으로 혹평
- 대남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상투적 궤변만을 되풀이한 현충일 추념사’란 논평을 통해 “리명박 역도가 그 누구의 ‘도발’이니 ‘안보력량강화’니 하는 타령을 또다시 되풀이한 것”이라고 주장
- 이어 “올해의 ‘추념사’에는 자멸의 길을 달려온 리명박 패당이 그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비참한 처지와 거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상이 그대로 비껴(담겨)있다. ‘통일대비’니 ‘원칙고수’니 ‘진정성’이니 하는 대북정책은 더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폐품에 불과하다”고 비난
- 논평은 또 “안보” 소동의 도수를 한층 높여 사복 입은 국무총리를 최전방 백령도와 연평도에까지 보내 색다른 ‘안보’ 광대극을 연출하게 하고 우리의 최고 존엄에 엄중히 도전하는 특대형의 도발적 망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몰아붙임.

● 北 “남북대화 논의할 여지 없어”(6/8,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간의 대화를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

- 노동신문은 일반적인 대남·대외정책에 관한 입장 표명을 대부분 논평원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만 주요 사안에 한해선 드물게 ‘논평원’의 글이라고 밝힘.
- 이 신문은 이날 ‘6·15의 도도한 흐름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패당이 감히 최고위급 대화까지 우롱한 오늘, 이제 북남 사이에 무슨 대화를 더 논의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반문
- 논평원의 글은 “북남대화가 시작돼 40년, 쌍방 사이에 공식, 비공식 대화와 비밀접촉이 수없이 이뤄지고 특사도 여러차례 오고갔지만 이명박 패당처럼 불순한 흥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존엄과 성의를 모독하며 모략과 대결책동에 광분한 반통일 집단은 없다”고 비난
-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 놓고 총탄을 쏘아대는 특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남관계 파탄책동의 최절정”이라고 주장
- 이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역적패당 따위가 휘방을 논다고 그 의의와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늘의 현실은 6·15의 전취물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교훈과 6·15의 위업을 기어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각오를 몇배나 더해주고 있다”고 덧붙임.

● 北 “비밀접촉 전과정 녹음기록 공개할수도”(6/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남북간 비밀접촉에 참여했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는 9일 비밀접촉에 관한 우리 정부의 해명을 반박하면서 접촉 당시의 녹음기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힘.
- 국방위 정책국 대표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김태효, 김천식, 홍창화) 모두가 끝끝내 진실 밝히기를 거부하고 동족기만과 모략 날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접촉 전 과정에 대한 녹음기록을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정책국 대표는 이번 접촉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우리 정부의 해명에 “김천식은 이번 비밀접촉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인준에 의해 마련됐다면서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며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직접 접촉의 전 과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청와대에도 그가 단독선을 통해 상황보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

- 또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절충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우리측 해명에 대해서도 “그들은 북측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보면 사과로 간주되는 절충안이라도 내놓자고 빌붙었다”며 “그것도 통하지 않게 되자 나중에는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시해주면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의 대결정책도 철회할 것이고 정상회담도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반박
- 그는 정상회담 일정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우리측 설명에 대해서도 “김태효는 현 당국은 시간이 매우 급하다면서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다는 일정계획이라는 것을 내놓았다”며 “말레이시아에서 비밀접촉을 한번 더 가지고 뒤따라 장관급회담을 한 후 6월에 판문점에서, 8월에는 평양에서, 다음해 3월에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정상회담을 연속 갖자는 시간표였다”고 맞받음.
-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접촉이 결렬상태에 이르게 되자 김태효의 지시에 따라 홍창화가 트렁크에서 돈봉투를 꺼내들자 김태효는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며 “우리가 즉시 처던지자 황급히 돈봉투를 걷어놓고 우리 대표들에게 작별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
- 돈봉투가 숙식비용이었다는 우리측 해명에는 “우리 대사관에서 숙식과 운수수단을 보장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그들이 우리 대사관에 체류비를 섬겨바치려고 돈봉투를 마련했겠느냐”고 반문

● **中공산당 조직부장 방북(6/10, 조선중앙통신)**

- 리위안차오(李源潮) 중앙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대표단이 10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리 부장의 방북 일정과 목적 등은 언급하지 않음.
- 대표단에는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 리시(李希) 상하이시당위원회 조직부장, 스타이핑(石泰峰) 장쑤성당위원회 조직부장, 양이앤이(楊燕怡) 당중앙 대외연락부장조리 등이 포함

● **北·中 평양서 전략대화(6/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은 1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전략대화’를 갖고 양국 친선협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대화에서 쌍방은 자기 당 활동정형을 통보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북측 양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황금평·위화도 특구와 나선 특구 착공식을 하는 등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날 대화에서는 정치·경제·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협조강화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측에서는 이날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공산당 조직부장,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 판리강(潘立剛) 당중앙 조직국장, 리시(李希) 상하이시 당위원회 조직부장, 스타이펑(石泰峰) 장쑤성 당위원회 조직부장, 양이앤이(楊燕怡) 당중앙 대외연락 부장조리 등이 참석

● **北김정일, 군인가족 예술공연 관람(6/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이날 공연에는 군 제534부대와 제529부대, 제264부대, 제549부대 군인가족들이 참가했으며,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영일·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인 김경옥·김명국·김원홍·윤정린,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 당·군 주요 인사들이 함께 관람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공연을 관람한 김 위원장은 “선군시대에 나서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사상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했다”며 “군인가족예술활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와 강성국가 건설위업 실현을 위한 추동력이 되고있다”고 강조

● 北김영남, 방북 中공산당 조직부장과 담화(6/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리위안차오(李源潮) 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리위안차오는 김정일 총비서 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됐고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께서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셨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조선인민이 더 큰 성과를 이룩해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을 뜻깊게 맞이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또 이날 중국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북한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별도로 회담을 했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만 설명하고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남북 비밀 접촉 공개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
-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성남·박근광 당 국제부 부부장 등이, 중국측에서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 등이 참석

■ 김정일동향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6/7, 중방)
- 김정일,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북창화력발전소 종업원 등에 감사(6/12, 중방)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최영림(내각총리), 6.2~4 양강도내 경제사업 실태들 현지 了解(6/7, 중통·중방)
-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6.7 베트남친선대표단과 담화(6/7, 중통)
- 김영남, 6.8 駐北 멕시코 대사(‘마르타 오르띠스 데 로싸스’) 신임장 접수 및 담화(6/8, 중통)
· 박의춘 외무상도 6.8 新任 멕시코 대사와 담화
- 김영남, 6.12 중국 공산당 대표단과 담화(6/12, 중통·평방)

나. 경제

● 北최고인민회의, 황금평·위화도 개발 추진(6/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황금평과 위화도경제지대 개발계획을 추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내움에(추진함에) 대하여’란 제목의 정령을 통해 “전통적인 조중(朝中)친선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함.
- 정령에는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고 황금평지구부터 우선 개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김.

● “WFP 5월 대북식량지원 규모 오히려 줄어”(6/7,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4월 말 대북 긴급지원 계획을 밝힌 세계식량계획(WFP)의 5월 대북 식량지원 규모가 곡물 확보 지연으로 당초 계획의 5% 수준에 머물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WFP가 5월에 북한 주민에게 지원한 식량은 1천600t으로 새로운 긴급지원사업 계획상 한달 지원량인 3만2천800t의 5% 수준으로 이는 긴급지원계획을 밝히기 이전인 4월의 2천300t보다도 적은 양임.
- WFP는 긴급지원 계획 발표 당시 5~7월 춘궁기에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35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5월 한 달간 WFP 지원의 혜택을 본 북한 주민은 112만명에 불과함.
- 나나 스카우 WFP 북한담당 대변인은 “4월 말에 발표한 대북 긴급지원사업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금을 새로운 지원사업 비용으로 전환하고 곡물을 구입하는 데 두 달 가량 걸린다”며 “7월 초가 돼야 북한에 곡물을 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UNICEF) 등은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북한의 9개도, 40개군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600만 명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 **북한의 대미수출 1위 품목은 ‘기념우표’(6/7,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 의소리(VOA))**

- 미국의 대북제재 속에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대미수출 1위 품목은 기념우표인 것으로 나타남.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에 수입된 북한산 제품이 33만5천달러(한화 3억6천만원) 규모에 불과했고 그 중 절반이 우표였다고 7일 보도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해 미국에 수입된 유일한 북한산 제품이 기념우표로 8천300달러 어치였다고 전함.
- RFA가 전한 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표를 제외한 북한의 대미수출품목은 여성용 의류 정도에 그침.
- 보고서는 지난 4월까지 북한과 경제협력에 나선 중국기업이 86개인데 이들 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부품과 원자재 등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美 “대북 지원식량 전용 가능성 여전히 우려”(6/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7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 식량이 필요한 곳이 아닌 군부 등 다른 곳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우리의 우려 중 하나는 지원식량이 전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의 식량사정) 평가가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한 측면이며, 또 다른 측면은 최종용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보하느냐 여부”라고 밝힘.
- 토너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평가조사팀이 귀국했다면서 아직 식량지원 여부와 관련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힘.

● **“北 식량상황 예년 수준”(6/8, 자유아시아방송(RFA))**

- 대북지원 사업을 하는 유럽의 일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의 식량상황을 예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RFA는 북한에서 농업지원 사업을 하는 익명의 유럽 민간단체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북한의 식량상황이 늘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올해 특별히 악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함.
- 한편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 관계자들이 북한 식량사정 평가를 위해 방북한 가운데 브람 브랜즈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외국장은 “원조가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만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RFA는 전함.
- 브랜즈 국장은 “지난봄 세계식량계획 평가단이 북한에 들어가 실태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유럽연합은 몇몇 의문점이 남아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파견한 것”이라고 부연

● **북·중 합작개발 황금평 대규모 착공식(6/8,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합작 개발하는 압록강의 섬 황금평이 8일 대규모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착공식장 곳곳에 ‘조중 친선’, ‘공동 개발’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애드벌룬 수십 개가 뜨고 착공식 2시간여 전부터 군악대 연주와 북한의 노래 ‘휘파람’ 등이 흘러나와 분위기를 고조시킴.
- 북·중은 이번에 착공식과 함께 황금평 임대 조건 등을 명시한 합작개발 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뉴스는 전함.
- 양국은 이날 행사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대상 착공식’으로 명명, 황금평에 이어 위화도에 대한 공동 개발에도 나설 것임을 내비침.
- 이날 착공식을 대대적으로 연 것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 합작개발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대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 열린 듯(6/9,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벨트를 잇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될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북한 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이 9일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연변 소식통들은 이날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에 참석할 북·중 고위 인사들이 오늘 오전 7시께 숙소인 옌지(延吉)의 영빈관을 떠나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를 거쳐 라선으로 향했다”며 “엔지에서 라선까지 3-4시간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오전에 착공식을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이날 라선에서는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과 함께 중국 기업이 라선특구에 투자한 공장 착공식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하루 전인 8일 오전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에 참석한 뒤 단둥(丹東)에서 특별기편으로 엔지에 도착, 영빈관에서 하루를 머문 것으로 확인
- 중국은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선도구’를 건설하고 훈춘-라진을 연결고리로 삼아 라선특구도 북한과 공동개발, 이 일대를 국제적인 물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
- 황금평이 8일 착공식을 한 데 이어 훈춘-라진 도로 보수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황금평과 라선특구를 큰 축으로 하는 북·중 경협 벨트 조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北, 황금평·나선 착공식 확인…“전력 시급해결”(6/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9일 황금평·위화도 특구와 나선 특구에서 열린 착공식을 확인하고 북중 양국이 협력해 나선의 전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키로 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착공식이 각각 8일과 9일에 열렸다고 확인
- 중앙통신에 따르면 두 착공식에는 북측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수용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리만건 평안북도 책임비서, 림경만 나선시 책임비서, 최종건 평북도 인민위원장, 조정호 나선시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
- 중국측에서는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과 왕민(王珉) 랴오닝성 당서기,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천정가오(陳政高) 랴오닝성장 등이 나옴.
- 나선 착공식에서 장 부위원장과 천 부장 등 연설자들은 “라선지대를 공동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의지이고 인민들의 염원”이라고 언급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임.

● “北, 신의주특구 행정장관 중국인 희망”(6/10, 경제관찰보)

- 북한이 2002년 시도했다 실패한 신의주경제특구를 다시 추진 중이며 초대 행정장관으로 중국 기업인을 임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힘.
- 경제관찰보는 9일 단둥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단둥을 비밀리에 방문해 홍콩의 다국적 투자회사인 신형지(新恒基)그룹의 가오징더(高敬德.55) 이사장을 만났다고 보도
- 김영남 위원장은 가오 이사장을 만나 신의주 발전과 북한의 경제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고 신문은 전함.
- 이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신형지그룹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가오징더 이사장을 여러 차례 초청했다”며 “북한은 가오징더가 신의주특구의 행정장관을 맡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미 중국 고위층으로부터 동의도 얻었다”고 전함.
- 아울러 이 신문은 8일 열린 황금평 개발 착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50~100년간 토지를 임대해주는 대가로 원래 받기로 했던 5억달러 대신 식량 또는 필요한 현물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

● 유럽 구호단체, 대북 식량지원 지속(6/10,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가 7월 평안남도과 황해남도의 7개 학교 어린이 1천300명과 교직원 300명에게 쌀과 옥수수 등 두달치 식량을 나눠주기로 했다고 보도
- VOA는 프랑스 정부가 또다른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에도 15만유로를 지원해 북한에서 양어장 사업을 하도록 했다고 밝힘.
- 이어 VOA는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외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프랑스 정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정부가) 예년처럼 구호단체들에 30만 유로를 지원했다”고 전함.
-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 ‘갑 아무나르’도 이달 중 200t이 넘는 쌀과 콩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며 추가 식량 전달과 방북 문제를 북한 당국과 협의중

● 中훈춘, 라진 이어 자루비노 항로도 개통(6/12, 연합뉴스;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이 북한 라진항에 이어 러시아 극동 자루비노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도 개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2일 연변일보에 따르면 훈춘에서 자루비노를 거쳐 동해 항로를 통해 부산으로 이어지는 컨테이너 화물 운송 정기 항로가 지난 8일 처음 열림.
- 훈춘-자루비노-부산 항로는 매주 왕복 한 차례씩 컨테이너선이 이용하게 되며, 이 항로는 훈춘에서 62km 거리인 자루비노까지 철도와 도로 등 육로로 화물을 운반한 뒤 450해리 떨어진 부산까지 화물선을 이용해 운송하게 됨.
- 3만t급 화물선 정박이 가능한 자루비노항은 훈춘-부산 항로 개통에 이어 중국 동북에서 남방으로 운송되는 물동량도 증가할 것에 대비, 부두 확장을 통해 120만t에 그치고 있는 연간 물동량 처리 능력을 1천만까지 늘릴 계획
- 이미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북한 라진항의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훈춘의 동해 출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훈춘은 잇따른 동해 항로 개통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 물류 거점으로 부상

■ 기타 (대내 경제)

- 北, 동해지구에 연어·철갑상어 등 고급어족 연구와 양어, 가공이 가능한 ‘종합적 양어연구소’ 설립(6/8, 중통)
- 北 평양방직공장 ‘데트론인건천’ 생산기지 완공으로 “각종 옷감생산이 늘어날 전망” 선전(6/8, 중통)
- 北 국가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黨 근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들, 6.9 희천1호발전소 룡림언제 참관(6/9, 중통·중방)
- △북청군 용전과수능장 과수원 조성, △고원-함흥간 도로개건공사 완공, △금진강·성천강 등지의 계단식 발전소 건설 등 ‘咸南道內 경제발전 모습’ 선전(6/10, 중통)
- 함흥편직공장, 비닐론 이용 뜨개옷 생산방법 완성(6/11, 중방)

다. 군사

● “북, 지난주 서해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6/7,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지난주 서해상으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확인
-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지난주 중반 평안북도 서해안에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한 차례 발사했다”면서 “현재 개량 중인 KN-06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북한은 최대 사거리 120km의 KN-01/02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인 KN-06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험 발사하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
- 소식통은 “이번 발사는 단거리 미사일을 개량하기 위한 시험 발사”라면서 “북한이 최근 남측 군부대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표적지로 이용한 데 대해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 “日 과거청산하고 백배천배 배상해야”(6/8, 노동신문; 민주조선)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8일 나란히 과거사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일본을 압박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는 개인필명의 논설에서 “일본의 과거범죄는 세대가 수십, 수백번 바뀌어도 절대로 지워버릴 수 없는 특대형 반인륜적 죄악”이라며 “우리 인민은 일본의 과거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천백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오늘 국제사회에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성근하게(성실하게) 반성하고 사죄, 배상함으로써 죄많은 과거와 결별하려는 움직임이 적극화되고 있다”며 “일본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 민주조선도 ‘반드시 결산돼야 할 일본의 인권유린범죄’라는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지난 세기 일제가 수많은 조선사람을 강제연행, 납치해 노예 노동을 강요하고 학살한 그 포악성과 야만성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실이 이리함에도 일본은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
-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백년속적 일제의 죄악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그 피값을 백배, 천배로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함.

- **“北 에이즈 양성반응 외국인 입국 제한”(6/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제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
 - RFA는 유엔 에이즈계획(UNAIDS)이 에이즈 발견 30년에 맞춰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함.
 - UNAIDS 산하 아시아에이즈위원회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성매매와 마약 복용이 이뤄져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북한 지역 역시 에이즈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 2004년 북한의 주간 영자신문 ‘평양타임스’는 1989년부터 내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내국인은 한명도 없었고 외국인 27명은 출국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고 RFA는 전함.

- **“농업용수 사용 많아 北도시들 물부족”(6/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는 농업용수의 비중이 높아 평양과 청진 등 도시에서 쓸 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추정
 - 영국의 컨설팅회사인 메이플크로프트가 최근 발표한 ‘물부족지수’에서 북한은 전체 평가대상국 186개국 가운데 75위로 중위권이지만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사용할 물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이 회사 대변인은 RFA에 “북한의 농업용수 비율은 전체 사용량의 55%로 다른 나라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사용할 물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

- **“올해 北 아리랑공연 축소…8월1일 개막”(6/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집단체조 공연인 ‘아리랑’이 8월1일 개막하지만 예년보다는 일정이 축소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RFA는 과거 일주일에 6차례 열린 공연이 이번에는 4차례로 줄고 9월30일까지였던 기간도 9월9일까지로 짧아졌다고 보도
 - 방송은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설정해 둔 내년에 더 큰 규모의 공연을 하려고 이번 공연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해석

● **북한에선 男 폐암 女 유방암 최다발병(6/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癌)은 남성의 경우 폐암, 여성은 유방암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
- RFA는 9일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의 2008년도 자료를 인용해 당시 북한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가 3만7천명으로 이 중 남성이 1만4천여명, 여성이 2만2천여명이라고 보도
- RFA에 따르면 북한의 남성 암환자 중에는 폐암 환자가 약 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 암환자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음.
- 남성 암환자의 경우 폐암 다음으로 위암과 간암, 대장·직장암 순으로 발병했으며, 여성은 유방암에 이어 폐암, 대장·직장암, 위암, 간암, 자궁암 순
- 국제암연구소 대변인은 RFA에 “2008년 북한의 암환자 3만7천여명 가운데 약 2만7천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RFA는 국제암연구소 통계를 근거로 북한의 암 발병이 인구 10만명당 130명으로 세계 평균인 181명보다 적고 262명인 한국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4만6천여명, 2030년에는 5만2천명 이상으로 암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 **“아동위해 이혼안돼”..北아동·여성권리법 눈길(6/12, 연합뉴스)**

-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부간에 이혼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남성은 아내가 임신 중에 있거나 해산 후 1년 안에 있다면 이혼을 제기할 수 없다.’ 등의 북한이 올 초 제정했다고 밝힌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들 법률은 단순히 조문 상으로만 보면 거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아동과 여성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법률제정이면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 아니냐는 의혹
-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령을 통해 ‘아동권리보장법’을 채택했으며, 역시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된 ‘여성권리보장법’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또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바지를 위한 철도차량법과 위생문화적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원림법, 해사소송관계법 등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잇따라 제정
- 그러나 아동과 여성에 대한 권리 보장 등 법률로만 북한 사회를 보면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는 광범위한 법률 체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는 수령 독재체제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

● 北 “북·미 관계 개선 기대”(6/12, 연합뉴스)

- 북·미간 ‘뉴욕채널’로 불리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첫 시범공연이 열린 미국 매사추세츠주 로웰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번 태권도 공연으로 북·미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한다.” 말할.
- 그는 북·미 관계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치를 떠나 이런 문화·체육 교류를 통해 인민들끼리 가슴과 가슴이 맞닿게 되면 (두 나라 관계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대답
- 북측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북한 태권도 대표단이 지난 2007년에 이어 3년8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해 공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나온 것
- 특히 최근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 특사가 북한을 방문해 대북 식량 지원과 북한과 재미동포간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했고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북한 태권도 대표단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져 북·미간 해빙무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6.10 만세운동’(1926.6.10) 85돌 기념행사, 6.10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주최로 평양에서 진행 (6/10, 중통)

2 대외

가. 일반

● 게이츠 “美, 北 불안정하게 만들 생각없다”(6/6, 연합뉴스)

- 미 국방부가 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게이츠 장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에 관심이 없으며,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데도 관심이 없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어 “북한이 모든 다른 국가들이 준수하는 똑같은 국제 룰을 준수하도록 6자회담 관련국들이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또한 “계속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잠재적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가능성 및 계속되고 있는 핵무기 개발로 북한은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거듭 밝힘.
- 그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우려 중 하나는 또 다른 도발이 있을 경우 (발생할) 예측할 수 없는 긴장 고조 위험”이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이와 함께 그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북한의 도발이 “후계세습과 연계된 것이 아니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간에 평화적인 방안으로 확산 문제를 포함한 이슈들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
- 한편 녹취록 전문 서비스사인 FNS가 5일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게이츠 장관은 지난 2일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북한은 모두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그것(핵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 당국자들은 공·사석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능력과 관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언급을 종종 내놓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北 반총장 연임 지지 “하지만 연설은..”(6/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6일 오전(현지시간) 반 총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유엔본부 식당에서 열린 반 총장과 유엔내 아시아그룹 회원국 대사 53명과의 조찬 회동 자리에서 반기문 총장의 연임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
- 신 대사는 반 총장과 인사말을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는 총장님의 재선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 지지 연설은 안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전함.
- 북한 신 대사는 반 총장과 회원국 대표들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꼼꼼하게 발언 요지를 메모하기도 했으나 처음 반 총장에게 밝힌 대로 발언 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이를 두고 한 유엔 외교관은 최근 남북간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고 나름 풀이

● 美하원도 대북제재 강화법안 추진(6/7, 연합뉴스)

-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의원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3일 북한,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제재 대상과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안은 이들 3개국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은 물론 재래식 군사 물품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기관·업체도 제재하도록 규정 및 이들 기관,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금지 시키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레티넨 의원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은 불량 국가들이 다른 불량국가나 극단주의 그룹에 위험한 물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존의 법을 더 강화해 줄 것”이라고 밝힘.

● “킹 美특사, 北과 재미동포 이산상봉 논의”(6/8, 자유아시아방송(RFA))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지난달 방북했을 때 북한과 재미동포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논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RFA는 미국 국무부 고위관료의 언급을 인용해 “킹 특사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에게 인권 개선을 촉구했으며 여기에 이산가족과 관련한 문제도 포함됐다”고 전함.
- 이 관료는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도록 미국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킹 특사의 주요 업무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함.
- RFA는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인권관련 대화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대화하려는 북한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전함.

● 파네타 “北, 美에 커지는 직접적 위협”(6/10, 연합뉴스)

-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은 미국 및 역내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커지는 직접적 위협(growing and direct threat)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파네타 지명자는 9일 열린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대규모 재래식 전력 및 탄도미사일과 우라늄농축 활동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은 북한의 이런 위협을 확인해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WMD 프로그램은 역내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미국 자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WMD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및 확산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및 WMD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과 관련, 수상한 화물들을 신고 가는 선박과 항공기들에 대한 검색과 차단 등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방장관에 임명될 경우 확산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제 파트너들과 WMD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함.
- 파네타 지명자는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미국은 북한, 이란과 같은 곳에서 오는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상발사 중간궤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향상시킴으로써 이 같은 대응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힘.

- “日, 北에 9월까지 일본인 납북 재조사 요구”(6/10, 교도통신)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오전 납치문제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북한에 ‘9월까지 납치(일본인 납북) 피해자 재조사’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총리는 “주권의 문제,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북한이 재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美 “中에 대북 영향력 행사 요청”(6/1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0일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청했음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중국, 한국 방문 결과와 관련, “우리는 필요한 다음조치는 남북간의 진전된 대화라고 믿는다는 점을 줄곧 말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그(캠벨)가 그들(중국)에게 이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그들(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토너 부대변인은 또 북한과 중국이 최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극도의 조심성, 경계를 촉구한다”고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美 캠벨 방중..北문제 등 협의(6/7, 연합뉴스)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6일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캠벨 차관보의 이번 방중은 북한의 일방적 남북대화 중단 선언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기존의 ‘3단계 방안’의 틀이 흔들린 후 미국과 중국이 처음 만나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캠벨 차관보가 6일 방문해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각각 만나 양국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아울러 캠벨 차관보는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 특별대표와의 회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사후 설명을 듣고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공개와 대화 중단 선언 이후 더욱 불투명해진 6자회담 재개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뉴스는 전함.
- 이 자리에서 중국이 미국 측에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공감대를 얻어온 ‘남북대화 → 북미대화 → 6자회담 재개’의 3단계 방안을 고수하며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을지, 아니면 첫 단추인 남북대화가 실현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이를 생략한 새 방안을 제시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 **위성락 베이징 도착..“3단계 접근 유효”(6/8, 연합뉴스)**

-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과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제시하고 추진해 다섯 나라의 동의를 얻은 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남북대화 중단 선언과 관련해 “최근 북측으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그런 언급들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
- 이어 “그런 상황 전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 간 논의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우선 중국과 논의를 하고 서울로 돌아가 미국, 러시아와 협의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임.
- 아울러 북한이 지난주 서해상으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요하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
- 위 본부장은 방중 이틀째인 9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담을 갖고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현 상황에서 ‘3단계 접근법’을 어떻게 운용할지 논의할 예정으로 중국 측에 북한이 다시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중국 당국자 간 협의 결과를 청취할 것으로 관측

● “영변 일대 건물 신축 등 공사 활발”(6/11, 연합뉴스)

- 북한 영변 핵시설 일대에 건물 신축·리노베이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1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
- ISIS는 우라늄 농축공장과 북한이 경수로라고 주장하는 원자로 시설에 최근 관심이 집중돼 왔지만, 인공위성 사진 분석결과 이 외에도 영변에는 추가적인 건물 신축 또는 리노베이션 움직임이 지난 2년간 있었던 것으로 분석
- ISIS는 지난 2009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과 영변 핵불능화 작업에 관여하던 미국 전문가팀이 철수한 뒤 이런 움직임이 벌어졌다고 전함.
- 또한 ISIS에 따르면 우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북쪽에 있던 원자로 연료가공 건물로 사용됐던 건물의 경우 2009년 10월 촬영된 위성사진과 비교할 때 2010년 6월 촬영된 사진에서는 새로운 지붕이 발견
- 영변 핵시설 남쪽에 있는 새로운 우라늄농축 공장 주변에도 새로운 건물 신축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ISIS는 이들 건물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3 대남

● 통일부 “北, 당분간 대남 초강경 입장 보일 것”(6/9,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적 군사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당분간 대남 초강경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는 9일 ‘주간 북한동향’ 분석자료를 통해 “북측의 반응은 남측에 대한 극렬한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내부적 충성경쟁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분석

- 이어 통일부는 북측은 김정일·김정은 표적지 사용 문제를 북한 체제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해 내부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사죄요구와 군사적 보복을 위협한 것으로 평가
- 북측이 남북 비밀접촉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 당국의 권위 실추 및 남남갈등을 조장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힘.
- 또한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발표와 관련해 통일부는 “불안정한 북한 정세와 대규모 자금 소요에 따른 사업 타당성 등으로 해외투자자와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에 관심을 보일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봄.

● 통일부 “北 일방주장..녹취록 있으면 밝혀라”(6/9,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측의 남북 비밀접촉 녹취록 공개 위협에 대해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당국자는 “남북간에 있었던 비공개 접촉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지난 번 통일부 대변인 논평 이후 통일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면서 “북측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함.
- 그는 녹취록 존재 여부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답변과정에서 밝혔듯, 우리에게 녹취록은 없다”면서 “다만 녹음 등 북측이 주장하는 대로 기록이 존재한다면 더이상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함.
- 또한 북측의 폭로 의도에 대해 “정책결정이나 협의과정에서 북한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분석하며 “지난 1일 발표 내용과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우리 내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그때보다 우리 내부의 언론보도와 발언에 굉장히 민감한 듯 보이며 내부갈등을 유도해 정부를 어렵게 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많이 보인다”고 지적

● 통일부 “北 사실왜곡 일방주장..유감”(6/10, 연합뉴스)

- 통일부는 10일 남북 비밀접촉에 관한 북측의 공개 위협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 남북 비공개 접촉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방적 내용을 주장했다”면서 “우리의 진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함.

- 천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대화에 나올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전함.
- 그는 “정부는 이번 비공개 접촉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시인·사과를 받기 위한 접촉이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북한이 언급한 ‘돈 봉투’와 관련해서는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돈 봉투’ 그런 내용은 없다”고 강조
- 또한 “이번 접촉이 북한이 먼저 제의해서 열리게 됐다는 경과에 대해서는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고 말해 이번 접촉이 북측의 제의로 이뤄졌음을 거듭 확인

■ 기타 (대남)

- “韓美의 군사적 도발행위(F-15E 전투기 등 對南파견, 我 ‘태극훈련’ 및 ‘표적지’ 사용 등)에 대해 “우리(北)의 보복성전, 전면공세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6/6, 중통·노동신문·평방)
- 我軍의 韓美합동(6.7~10) 또는 獨自훈련 실시(6.7~9, 지상협동훈련 등)와 ‘표적지’ 사용에 대해 “그로부터 얻을 것이란 파멸밖에 없다”고 持續 비난(6/9, 중 통·민주조선)
- 北, ‘6월 인민항쟁’ 24돌을 맞아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反정부 촛불집회’ 소식 보도(6/11, 평방)
- “南 대학생들이 뛰어오르는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투쟁하고 있다”고 ‘對政府 투쟁’ 소개, 선동(6/12, 평방)

6.13-6.19

6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김정일, 中조직부장 접견…“서로 배우고 교류”(6/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일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 것”이라며 “조(북)중 쌍방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노동당 대표단과 중국공산당 대표단의 대화가 잘된 데 대해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음.
 - 리 조직부장은 “중조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고 이번 중국 방문기간 중조 최고영도자 사이에 이룩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두 나라 사이의 아름다운 미래를 마련해 나가자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화답
 - 이날 접견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배석
 - 오찬에는 북측의 회담 배석자와 함께 중국측에서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리시(李希) 상하이시 당위원회 조직부장, 스타이핑(石泰峰) 장쑤성 당위원회 조직부장, 양이앤이(楊燕怡) 당중앙 대외연락부장 조리 등이 참석
 - 리 조직부장은 오찬을 마치고 이날 귀환했으며 앞서 10일 최태복 당비서 및 리영수 당 부장과 ‘전략대화’를 가졌고 12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했으며, 방북 기간 백두산을 방문하고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만수대창작사,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도 참관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내달 24일 지방의회 대의원선거(6/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다음달 24일 전국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13일 발표 내용을 인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7월 24일에 실시된다”고 전함.
- 우리의 지방의회 격인 지방인민회의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광역의회격인 도(직할시)인민회의의 대의원과 기초의회격인 시(구역)·군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는 각각 4년으로 지방인민회의는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 예산과 각 지역의 법집행 대책을 마련하며 자치단체장격인 인민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 **北양형섭 “6·15공동선언 이행운동 대중화”(6/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을 보다 적극화·대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양 부위원장은 이날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자주통일의 그날까지 추켜들고 나가야 할 공동의 통일대강”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의 여러 정당과 각 계층 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며 “앞으로도 북남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이명박 역적패당은 함선침몰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핵포기를 운운하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특대형 도발행위까지 감행해 온 민족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촉발하고 북남관계를 완전한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
- 이날 보고회에는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등이 참석

● **北매체들 ‘6·15선언 11돌’ 부각 주력(6/15,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남북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대강(大綱)’으로 평가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대업적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한매체들은 이날 공통적으로 자주통일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사설을 통해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운동에서 결정적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전체 조선민족 앞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천안)함선침몰사건 등과 같은 특대형모략극을 조작하고 그를 기화로 도발적인 반공화국 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수 없다”며 “분연히 떨쳐일어나 리명박 패당의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함.
- 또한 ‘우리민족끼리’는 논설을 통해 “6·15공동선언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할 것을 확약한 자주통일대강”이라며 민족의 단합을 촉구
- 조선중앙방송은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위원들의 입을 빌리는 대담 형식으로 6·15 선언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방송
- 중앙방송에 출연한 이들 위원은 “이명박 역적패당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 우리를 해치기 위한 각종 도발행위들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무슨 급변사태를 떠벌이며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함부로 건드리는 용납못할 대역죄까지 저질러대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맹비난
- 평양방송은 6·15선언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미얀마와 노르웨이, 네팔의 친선단체 관계자의 코멘트를 전함.

● **“北 ‘통전부 대신 외무성이 한국 담당할것’”(6/15, 산케이신문)**

-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2011년부터 조선노동당 공작기관인 통일선전부 대신 외무성이 한국과 일본을 담당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익명의 ‘교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김계관 제1부상은 지난해 12월에 방북한 한 미국인에게 “공화국(북한)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2012년을 앞두고 내년(2011년)에 외교정책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말함.
- 김계관은 한국, 일본을 통전부 대신 외무성이 맡게 될 것이고, 자신이 적대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종속된 것으로 보고 (대한 정책을) 대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지만, 이 방침을 바꾸고 앞으로는 별개로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함.
- 신문은 또 북한 외무성이 일본 총리를 지낸 자민당의 한 인사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북일 교섭 공작을 벌였다고 전함.
- 산케이신문은 또 ‘한미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리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지난해 11월에 방북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관계자에게 “우리(북한)는 소형화한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소형화한 핵무기를) 운반하는 기술도 이미 개발했다”고 발언했다고 전함.

● 北 “대북방송 지원은 악랄한 심리모략전”(6/17,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정부의 민간 대북방송 지원 방침을 악랄한 반(反)북 심리모략전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악랄하게 감행되는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이라는 글에서 “남조선 보수패당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민간 대북방송들에게 주파수를 배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명시해 이들을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적극 써먹으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민간 대북방송들은 해외에서 전파를 날려 공화국의 존엄 높은 제도를 악랄하게 헐뜯고 남조선의 사회현실을 미화분식하는 모략선전을 벌여왔다”며 “북남관계가 총체적 파국에 처하고 극도의 전쟁위험이 조성된 것은 심리모략전 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어온 역적패당의 망동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남측을 비난
- 신문은 또 “북과 남 사이에 침예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때에 상대방을 자극하는 임의의 도발소동도 무력충돌과 전면전쟁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이명박패당의 책동이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北, 독일대사에 리시홍 임명(6/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신임 독일 주재 대사에 리시홍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함.
-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도이칠란트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리시홍이 임명됐다”고 밝힘.
- 리 대사의 이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2003년 6월 영국 주재 대리대사 자격으로 영국의 기독교계 인권옹호 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CSW)의 서한을 접수하기도 했던 만큼 주로 외무성에서 유럽 담당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임.

● **北 지방의원선거 앞두고 중앙선거촉 조직(6/19, 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24일 전국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회의를 앞두고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선거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최룡해 노동당 비서, 서기장은 변영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이 각각 맡음.
- 중앙선거위원으로는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리용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1비서, 현상주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리명길 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로성실 민주여성동맹 위원장, 김영호 내각 사무국장이 임명
- 앞서 북한은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7월 24일에 실시된다”고 밝힘.

■ **김정일동향**

- 김정일, 6.13 중국 공산당 대표단 접견 및 오찬 마련(6/13, 중통·중방)
- 김정은, 이영호,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장성택, 김영일, 김양건 참가
- 김정일, “경제선동대 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기동예술선동대원 등에 「감사」 전달(6/16, 중방)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지원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6/17, 중방)

기타 (대내 정치)

- 김영일(黨 비서), 6.15 이탈리아 좌익인민공산주의자당 국제부장 ‘알폰소 갈디’ 일행과 담화 (6/15, 중통·평방)
- 박의춘 외무상 6.15 스위스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6/15, 중통)
- 咸南 ‘고원-함흥도로’ 개건확장공사 준공식, 6.17 최영림(내각총리)·김영춘(인민무력부장)·곽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진행(6/17, 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 제56호’(6.18), 道(직할시)·市(구역)·郡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 조직(6/19, 중방·중통)
- 양형섭, 부위원장 : 최룡해, 서기장 : 변영립, 위원 : 리명수·리용철·현상주·리명길·노성실·김영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독일 北대사 리시홍 임명(6/18, 중방·중통)

나. 경제

● “회항 北선박에 미얀마行 미사일 적재 추정”(6/13, 연합뉴스)

- 지난달 말 공해상에서 표류하다 회항한 의문의 북한 선박은 중미국가인 벨리즈 소속의 라이트(M/V Light) 호이며 미사일 관련 무기류로 추정되는 물자를 싣고 미얀마로 향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게리 세이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케이스는 지난 2009년 강남호 회항 사태와 매우 유사한 사례”라고 말함.
- 세이모어 조정관은 “라이트호가 유엔 결의안 1874호가 금지하고 있는 무기류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이에 미국 정부는 북한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고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에 해당 선박이 기항할 경우 검색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함.
- 그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압력과 관심이 북한으로 하여금 선박 회항을 결정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
- 그는 “북한이 미얀마에 무기를 수출한다면 동남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만큼 미얀마 정부와도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함.
-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세이모어 조정관은 “과거 행동으로

- 미취했을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큰 실수이며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또 다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
- 그는 특히 “추가도발은 현재 3대 세습 구도의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의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시나리오”라면서 “도발보다는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에 집중하는 편이 나올 것이고, 북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
- 이어 그는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와 관련해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취했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제재 철회는 물론 북한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 정상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어디까지나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거듭 강조
-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은 외부세계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대북 제재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최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증거”라고 설명

● “1987~2009년 北탄도미사일 수출 510건”(6/13, 연합뉴스)

- 미국의 군비통제 및 비확산전문가인 조슈아 폴락은 13일 “북한이 198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510건의 탄도미사일 수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폴락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회관에서 개막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핵과 원자력의 미래’ 플래넘 세미나 자료에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연례보고서를 인용, 북한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수출 건수를 소개
- 미사일 수출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수출건수가 420건으로 82%를 차지하고 1994년~2000년 30건, 2001년~2009년 60건을 각각 기록
- 폴락은 특히 “북한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란, 시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예멘 등 최소 7개국에 미사일을 수출했다”고 주장
- 그는 북한이 세계적으로 미사일 거래의 ‘깔때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사일 수출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 **北나진항 2호부두 스위스에 임대(6/14,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나진항 1·3호 부두에 대한 사용권을 각각 중국과 러시아가 갖게 된 가운데 2호 부두는 스위스에 임대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경제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14일 북한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밝힌 나진항 2호 부두가 스위스에 임대됐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 “나진항 1호 부두는 중국, 2호는 스위스, 3호는 러시아에 임대됐고 4~6호 부두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북한과 유럽연합 (EU) 국가·기업들 간에 경제관련 논의가 활발하다”고 전함.
- 북한과 스위스는 정기적인 정치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3일에도 비트 노브스(Beat Nobs) 국무부 비서를 비롯한 외무성 대표단이 지난 2009년에 이어 평양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국은 지난해 3월 나진항 1호 부두의 10년 사용권을 확보했고, 러시아도 비슷한 시기에 3호 부두의 50년 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짐.
- 이 소식통은 “나진항뿐 아니라 최근 착공식을 한 황금평 경제특구에도 EU 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평양주민에도 보름에 닷새만 배급”(6/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비교적 배급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마저도 최근에는 보름에 닷새만 배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짐.
-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4일 “중국에 나와있는 평양 주민이 전화 통화에서 5월 들어 배급이 줄면서 웬만한 간부 집들도 강냉이 죽을 먹는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함.
- 이 평양 주민은 RFA에 “화폐개혁 이후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양의 장마당(시장)에서는 북한돈이 휴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물가를 잡는다고 국가에서 화폐교환을 하더니 결국 인민들만 잡게 생겼다”고 말함.
- 이 주민은 또 “현재 평양 송신 장마당에서 1kg당 쌀은 3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강냉이는 1천200원, 국수는 1천원 선을 넘었다”면서 “화폐개혁 이전보다 쌀 가격이 꼭 배로 뛰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RFA는 북한에서 노동자의 월급이 2천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한 달 임금으로 쌀 1kg도 살 수 없다고 설명

● “中, 대북식량지원 급감”(6/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의 대북식량지원이 2005년을 기점으로 급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된 북한에 대한 해외원조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계획과 중국 해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
-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5년 50만t 이상이었지만, 2006년 25만t 정도로 줄었고, 2007년 30만t을 약간 웃돌았으나 다시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10만t 정도로 줄었다고 방송은 전함.
- 이 보고서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식량 수출도 급감했다면서, 이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소규모 식량 제공은 중국 당국의 의도된 대북정책 탓이라고 지적
- 이어 보고서는 또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 북한 당국에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분배 감시를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

● “對中 광물 대량수출로 北산업 황폐화 우려”(6/15, 연합뉴스)

- 북한이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된 이후 대(對)중국 교역을 늘리면서 철광석 등 주요 광물자원을 대량 수출함으로써 다른 업종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내대니얼 애든 미국 로런스 버클리연구소 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 영문 저널 최신호(2011년 여름)에 실린 ‘중국해관총서(관세청) 통계로 본 북한의 대중교역:1995~2009년 에너지·광물교역 동향과 시사점’이란 논문에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주요 지하자원을 대거 수입해가면 북한은 군수부문 외 다른 산업의 황폐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 애든 연구원은 2009년도 북중교역액이 미국의 대북지원액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으나 북한이 석탄, 철광석 등 막대한 양의 주요 광물을 수출하는 데다 교역 방식도 ‘우호가격’이란 명분으로 싸게 팔고 공산품, 식량 등은 비싸게 들여오는 ‘불공정 바터무역’으로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

- 애든 연구원은 또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대중적자 누적이 심화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음.

● 1분기 北-EU 교역 급감...전년比 29% 그쳐(6/15, 미국의소리(VOA))

- 올해 1분기 북한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교역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
- VOA는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북한 교역 통계를 인용, 올해 1분기 북한과 EU간 교역액이 2천400만 유로(3천463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의 8천100만 유로의 29.6%에 불과했다고 전함.
- 이는 북한의 작년 1분기 EU 수출액이 네덜란드에 수출된 석유제품 5천500만 유로를 포함해 7천100만 유로였지만 올해 1분기 수출액은 5천700만 유로 줄어든 1천400만 유로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VOA는 설명
- 방송은 또 작년 한해 북한의 대(對)EU 교역액은 수출 1억49만 유로를 포함해 1억7천440만 유로(2억5천만 달러)였고 전체 수출의 56%인 5천870만 유로가 석유 같은 광물성 연료였다고 밝힘.

● 중단등기업, 北전람회서 80만달러 주문받아(6/16, 요녕조선문보)

- 지난달 북한에서 열린 ‘제14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했던 중국 단둥(丹東)의 기업들이 북한으로부터 80만 달러(1억3천만 원) 규모의 납품 주문을 받았다고 요녕조선문보가 16일 보도
- 신문은 단둥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을 인용, 이번 전람회에 참가한 단둥의 공작기계와 에너지, 전기기계 설비, 화공 업체들이 북한 측의 주목을 받아 80만 달러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함.
- 신문은 이번 전람회에 20여 개 국가에서 28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나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이 100여 개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의주와 인접해 북·중 교역량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에서는 4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소개

● ‘대북식량지원금지’ 美하원 1차관문 통과(6/16, 연합뉴스)

-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법안이 미국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 의원이 제출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이 15일 밤(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구두표결로 통과
- 이에 따라 최종적인 농업세출법안에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담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
 -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최종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
 - 로이스 의원은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잔혹하고 위험스러운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
 - 이어 “78%의 탈북자들은 외국에서 지원된 식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가는 지원식량은 군대를 먹여 살리고 있다”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자신들이 만난 북한 어린이들이 지원 식량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하고 있다”고 지적
 - 의회 소식통은 “대북지원식량 금지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원 법안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또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최종 입법화 여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함.

● “UNICEF, 北주민 32만명에 긴급영양지원”(6/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조만간 북한주민 32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영양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
- RFA에 따르면 UNICEF는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에서 지원받은 예산 110여만달러로 북한 양강도와 함경도, 강원도 등 4개 도의 주민 32만4천500명에게 영양보충제와 식품보조제 등을 지원할 예정
- 지원대상에는 임신부 9만4천명과 수유모 4만7천명을 비롯해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4천500여명이 포함되며, 또 설사병에 걸려 고통받는 5살 미만의 어린이 4만7천명을 치료할 예정

■ 기타 (대내 경제)

- “경공업전선이 활력에 넘쳐 전진하고 있다”며 “당의 영도따라 인민소비품생산에 혁신을 일으키므로써 올해 대고조의 자랑찬 승리를 빛내이자”고 煽動(6/13, 중통·노동신문·중방)
- 北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수확량이 높은 새 품종의 딸기 육종(6/14, 중통)
- 黃南·平北·자강도 등 전국 道·市·郡과 농장들에 최근년간 2,000여개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건설' 자랑(6/15, 중통·중방)

- 黃南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黃北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등各地 농촌들에서 기본면적의 벼모내기 성과적으로 종료(6/17, 중통)
- 黃北 황주군 구포협동농장 등 “논판양어를 통해 정보당 수확고와 물고기생산에서 성과 이룩” 선전(6/17, 중통)

다. 군사

● 北,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맹비난(6/16,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16일 우리 군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맹비난하며 “보복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
-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도발적 정체가 비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괴뢰들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조작한 것은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에서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서해의 5개 섬 일대는 쌍방 사이에 군사적으로 침예하게 대치돼 있는 가장 예민한 수역”이라며 “전쟁광신자들은 해안방어를 기본목적으로 했던 해병대를 침투와 상륙, 육해공군의 해상 및 공중수송과 타격지원 밑에 가지가지의 협동작전을 벌일 수 있는 침략적이며 도발성이 짙은 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해온 것”이라고 비난
- 이어 “문제의 심각성은 괴뢰호전광들이 이 같은 호전적이며 도발적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조작놀음을 6·15날에 벌여놓은 데 있다”며 “괴뢰호전광들은 평화와 통일의 상징인 6·15날에 창설식이라는 것을 벌여 6·15 공동선언을 희석시키고 온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이며 호전적인 책동을 감행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전쟁광신자들에게는 말이 아니라 오직 총대로만 통하는 법”이라며 “괴뢰호전광들이 지금처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이요 뭐요 하며 침략전쟁책동에 광분하다가는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섬멸적 보복타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라. 사회·문화

● 北·中, 압록강 첫 공동순찰팀 가동(6/16, 신화통신)

- 중국과 북한이 압록강에서 첫 공동 순찰팀을 가동시켰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 통신은 15일 중국에서 3척, 북한에서 2척의 선박을 제공한 가운데 공동 순찰팀이 정식 출범했다고 확인
- 이는 압록강을 접경으로 한 단둥(丹東)과 평안북도 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압록강 공동 순찰팀을 출범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개발을 앞둔 사전 준비작업 차원이라는 관측
- 이어 통신은 지난 4월 북한-중국 해상당국 간에 압록강 관리에 대한 협력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

● 北·中 탈북자 단속강화..연변서 14명 검거(6/16, 연합뉴스; 연변조간; 환구시보)

- 지난 3월 중국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6명이 한국으로 밀입국한 이후 북한과 중국이 변경지역 경계와 탈북자 단속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최근 연변에서 탈북자 14명이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허룽시 공안국은 허룽에서 활동하던 탈북 조직을 적발, 수사를 확대해 두만강 상류를 통해 밀입국한 뒤 허룽(和龍)과 옌지(延吉)에서 숨어지내던 탈북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짐.
- 연변 현지 매체인 연변조간도 지난 10일 “허룽시 공안국이 한 건의 비법 월경조직사건을 해결하고 비법 월경해 허룽과 옌지의 주민 집에 숨어있던 14명의 경외 인원을 검거했다”고 보도
- 신문은 ‘탈북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허룽이 북한 접경지역이며, 중국 언론이 통상 탈북자를 ‘비법 월경한 경외 인원’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체포된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연변 소식통들은 전함.
- 환구시보는 15일 북·중 접경지역 경계 강화 상황을 소개한 르포 기사를 통해 “연변 룡징(龍井)시 싰허(三舍)통상구 주민과 공안당국이 탈북자 검거를 위한 ‘민·경 공조 경보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창바이(長白)현 접경지역에서는 중국은 물론 북한도 100m 간격으로 초병을 세워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고 전함.

- “北여성 태권도선수단도 美공연 추진”(6/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여성선수로 구성된 북한 태권도선수단의 미국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
 - RFA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스티브 박 대표를 인용해 “여자선수를 주축으로 (태권도)팀을 구성하고 남자선수 1~2명과 청소년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현재는 (미국 공연을) 10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함.
 - RFA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할 북한의 여성 태권도선수단에는 현재 ‘북한 미녀 태권도선수단’이라는 가칭이 붙어 있는데, 실제 ‘미녀선수단’이란 명칭으로 공연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여성선수들을 내세워 호객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임.

- 北 휴대전화 사용자 50만 돌파…인기 ‘쓱쓱’(6/17,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 새로운 휴대전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개월 만에 10만명 넘게 증가해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휴대전화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내 유일한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이 최근 내놓은 2011년 1분기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북한의 체신성과 합작해 세운 휴대전화 업체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는 3월 말 현재 53만5천 133명임.
 - 오라스콤텔레콤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며 “(MMS)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반응도 좋다”고 설명
 -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에 나온 북한주민 박모씨를 인용, “평양시민 사이에는 ‘손전화(휴대전화) 없는 사람은 개하고 나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며 “간부들은 물론 일반 시민도 폰돈을 쪼개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양의 분위기를 전함.
 - 박씨는 휴대전화 사용량이 늘면서 최근에는 기본제공 통화량으로는 부족해 추가로 선불카드를 사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함.

- 북한에서는 한 달 휴대전화 기본요금인 월 2천850원(암시장 환율 적용시 미화 1달러)에 통화 200분, 문자 20개가 제공되지만 통화량 초과시 발신이 끊기는데 이런 경우 체신국에서 파는 1~4유로짜리 선불카드를 구입해 사용
- 이 선불카드는 오라스콤이 최근 출시한 ‘유로팩’(Euro Packs)으로, 북한돈이 아닌 유로화로만 구입할 수 있는데, 오라스콤 측은 “유로화 수입을 늘리려고 시작한 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북한의 휴대전화 시장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

2 대외

가. 일반

- **중공산당 조직부장 방북 마치고 귀환(6/13, 조선중앙통신)**
 - 리위안차오(李源潮) 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방북 일정을 모두 마치고 13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대표단은 체류기간 만경대를 방문하고 백두산 지구를 참관했다”며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수대창작사,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도 참관하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의 종합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힘.
 - 조직부장은 앞서 10일 최태복 당비서 및 리영수 당 부장과 ‘전략대화’를 가졌고 12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
- **<인터뷰> 벨 前사령관 “北도발은 협상유인 목적”(6/13, 연합뉴스)**
 - 버웰 벨 전(前) 주한 미군사령관은 13일 “북한의 도발은 한국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 경제·안보·외교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한반도 안보에서 중국이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는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중국은 최악의 전략을 택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남북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의 현상 유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

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중국은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중국은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 6자회담 재개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가져왔다.”라고 답함.

- 또한 북한 급변사태 대응 계획인 ‘개념계획 5029’에 대해선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언제라도 내부 붕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에 대해 알게 될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 경우 효과적인 군사계획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개념계획 5029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함.

● “北 조만간 도발 행위 벌일 수도”(6/14, 산케이신문)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속 대외정책연구기관인 퍼시픽포럼의 랄프 A. 코사 소장이 ‘북한의 조만간 도발행위를 벌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코사 소장은 9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 강연에서 미국과 한국 당국자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북한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한다”며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다른 핵 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
- 코사 소장은 또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게 하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지기를 기다리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국은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더라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중국이 원하는 개혁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짐.

● “北 미사일 대응 놓고 美.日 고심”(6/16, 위키리스크)

-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식을 고심했다는 사실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
- 위키리크스가 15일 공개한 주일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 대사관의 제임스 줌월트 공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인 3월 12일 주일 미군 부총사령관과 함께 일본 외무성 우메모토 가즈요시(梅本和義) 북미국장과, 다카미자와 시게노부(高見澤將林)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등을 만나 양국 협력과 정보 공유, 언론 대응 방식 조율 등의 문제를 논의

- 다카미자와 국장은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체를 요격할 법적인 권한과 물리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도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겨냥해 피해를 입힐 경우 요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경고
- 주일 미군 부사령관은 “미국은 북한이 발사할 물체가 대포동 2호이거나 우주비행물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을 직접 겨냥한 미사일은 아닐 것”이라며 일본의 요격 계획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
- 그러면서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BMD) 함정이 아니라 주일 패트리엇 포대가 파편을 처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
-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으며 혹시 언론에 노출됐을 경우 양국간 문제를 논의하는 정기회의로 포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전문은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 이란에서 순도20%인 농축우라늄 50여kg 생산소식 간략보도(6/16, 중통)
- 美國의 對이란 '경제봉쇄조치 강화'(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제재 등) 관련 “反帝자주 나라들에 대한 비법적 지배주의 책동”으로 비난하며 “부당한 제재놓음 철회” 촉구(6/17, 중통·노동신문)
- 北, '호금도' 中 국가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6.12~15) 소식 보도(6/17, 중통)
- '나토'(NATO) 軍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살상” 持續 비난과 세계 각국의 태양열 등 再生에너지 개발·이용 소개(6/18, 중통·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韓日 6자회담 수석대표 “남북대화가 우선”(6/14,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일본에서 만나 남북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남북 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함.
-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우선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이 최근 “남측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관련해 3국 공조를 확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中·러 정상 “6자회담 조기재개해야”(6/17, 이타르-타스 통신)**

-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16일 북핵 6자회담의 조기 재개 필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
- 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낸.
- 양국 정사는 또 북핵문제는 외교적 수단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활동을 줄일 것을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 조건의 차원에서 촉구

3 대남

● **통일부 당국자 “베를린제안 거둬들인 적 없다”(6/13,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베를린 제안에 대해 “우리가 거둬들인 적은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힘.
-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공개 상황에서 베를린 제안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함.
- 이같은 답변은 ‘비핵화에 합의하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베를린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이 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시인·사과를 하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게 돼 있다”고 강조

● **北주민 또 남하..9명 서해로 귀순(6/15, 연합뉴스)**

- 북한 주민 9명이 지난 11일 서해 우도 해상을 통해 남측으로 귀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북한 주민 9명이 지난 11일 오전 6시5분께 전마선(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 우도(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상으로 넘어왔다”면서 “이들은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이들은 남자 성인 3명과 어린이 2명, 여자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 등이며 일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이번 귀순에 대해 송환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남북관계 악화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주민 즉시 송환않으면 남북관계 악영향”(6/16, 연합뉴스)**

- 북측이 지난 11일 귀순한 북한 주민 9명의 송환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는 16일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보도에 의하면 북측 주민 9명이 연평도 해상에서 월선해 (남측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대한적십자사 측에 요구해왔다”고 밝힘.
- 북측의 전통문은 이날 낮 12시께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접수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전통문에서 “귀순의사니 뭐니 하면서 즉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위협했다고 전함.

● **정부 “자유의사 따라 처리”..北에 통지(6/17, 연합뉴스)**

- 정부는 북측이 귀순자 9명의 송환을 요구해온 데 대해 이날 오전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에 전통문을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전통문에는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사결과 북한 주민 9명은 모두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음.

● **北 “금강산 재산정리...30일까지 들어오라”(6/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5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 법에 따라 금강산특구내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17일 밝힘.

- 북한은 이에 따라 금강산특구내 부동산을 보유한 현대아산 등 남측 당사자들에게 재산 처리를 협의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금강산특구로 오라고 통보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힘.

● 현대아산 “내부협의 거쳐 대응방침 결정”(6/17, 연합뉴스)

- 현대아산은 17일 북한이 금강산특구내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내부 협의를 거쳐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현대아산 관계자는 “오늘 오후 북측으로부터 관련 통지문을 받았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협의를 거친 뒤 관계당국이나 금강산에 투자한 다른 기업들과도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함.
- 현대아산은 금강산특구 내에 있는 해금강 호텔과 옥류관 식당, 부두, 출입국사무소, 관광도로, 주유소, 발전기, 상수도시설, 통신망 등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음.

■ 기타 (대남)

- 李大統領의 對北발언(확고한 자세, 후퇴란 없다/6.7, 국가유공자와 유족들 초청 오찬시 발언)을 시비하며 “도발자의 감투를 우리(北)에게 넘겨쓰우고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비난여론을 모면해 보려는 녀두리”라고 왜곡 비난(6/13, 중통·노동신문·평방)
- 통일부장관의 對北발언(책임있는 남북대화, 남북관계의 정상궤도 등)에 대해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장본인이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라는 듯이 너스레를 떠다”고 왜곡 주장(6/16, 중통·노동신문·평방)
-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테러대비태세 점검’ 및 고리원자력발전소 軍병력투입 관련 “原展테러설은 공화국을 헐뜯고 대결분위기 고취,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파렴치한 모략설”이라고 주장(6/16, 중통·노동신문·중방)
-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 통고(6/17, 중통·평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월 2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내움에 대한 정령을 발표한데 이어 5월 31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였음.
 -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맞게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국제관

- 광특구 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됨.
- 南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대북방송에 주파수 배정, 정부자금 지원 등) 관련 “상대방을 자극하는 임의의 도발소동은 무력충돌과 전면전쟁의 발화점으로 될 수 있다”고 위협(6/17, 중통·노동신문)

6.20-6.26

6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인권법 제정은 선전포고·제2 표적사건”(6/2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노동신문)

- 북한은 20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인권법은 인권의 미명하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우리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반통일대결 악법”이라며 “최근 괴뢰역적패당은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과 비난에도 극히 도발적인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조작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
- 조평통은 “북인권법을 끝내 조작하는 경우 우리 제도와 인민에 대한 공식 선전포고로,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 조평통은 “북인권법 제정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지, 협력한 자들은 반민족 범죄행위 가담자”라며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앞으로 우리측 지역에 일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두고두고 수치와 엄벌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
- 노동신문도 ‘북남관계 파국을 심화시키는 제2의 표적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명박패당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 놓고 총탄을 쏘아대는 천추에 용납못할 특대형 도발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악법조작 놀음으로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제도에 악랄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명박 일당이 북인권법을 끝내 제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공화국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 선언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존엄과 제도를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

- <日 매체 ‘北 미스터 X = 류 경 부부장’?>(6/21 아사히신문)
 -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을 사전 준비한 인물로 알려진 북한의 ‘미스터 엑스(X)’가 올해 초 숙청된 류 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일 개연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서울발로 보도
 - 이 신문은 류 부부장을 미스터 엑스로 보는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한국 정부 내부에서 이같은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함.
 - 미스터 X는 2001년 가을부터 일본의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었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씨와 수십 차례 접촉하며 북일 정상회담을 준비한 인물
 - 류 경 부부장이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미를 사전 준비하는 등 대미, 대일 외교를 담당했고, 지난해 9월 중장(한국의 소장급)에서 상장(중장)으로 승진했지만 올해 초부터 동정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함.

- “김정은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리더십 손상”(6/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화폐개혁의 실패와 주택건설의 차질 등으로 리더십에 손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동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이 전함.
 - 황 의원은 “김정은이 화폐개혁에 실패했고, 주택 1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500호밖에 건설하지 못해 리더십에 손상이 가고 있다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보고했다”고 설명
 - 같은 당의 이두아 의원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불만 증가와 중동 민주화 소식 유입 등에 따라 북한에서 체제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체제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주민 집단 반발에 대비한 특별기동대를 신설했고 탈북자와 행불자 가족 오지 격리 등 주민 강압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전함.
 - 북한이 남한의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비밀조직을 구성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원 담당자는 “과거 북한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그런 업무를 해왔다”면서 “선거 관련 사항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함.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북한이 TF 조직을 구성해 남한 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함께 브리핑을 한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비밀조직은 확인되지 않았고 선거 관련 자료를 내라는 지시만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임.

● “김정일, 극동서 러 대통령과 회담 준비”(6/23,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정상 회담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러시아 극동 연해 지방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지에서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수의 연해 지방 당국자와 러시아 치안 당국자는 이날 교도통신에 김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회동에 관해 이같이 확인
- 현지 관리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오는 30일께 블라디보스토크 교외나 북한 국경에 인접한 하산 지역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함.
- 다만 과거 러시아 정부가 김 위원장을 영접할 준비를 한 뒤에도 김 위원장이 방문하지 않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를 찾을지는 불확실
- 김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회담이 실현할 경우 양측은 러시아의 대북 경제원조와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 러시아의 라선 경제특구 투자 확대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전망
- 중러 국경지대에 있는 북한의 경제특구인 라선시의 개발이나 투자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도 라선시 개발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김 위원장이 극동을 찾으면 2002년 8월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동한 이래 9년만에 처음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임.

● 北, 6·25군중대회 축소…3년만에 실내서 열려(6/2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연합뉴스)

- 북한은 25일 평양체육관에서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6일 전함.
- 북한이 이처럼 올해 6·25행사를 축소한 것은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미국 방문, 미국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 검토 등 북미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설명

- 양만길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도발한 미제가 방대한 병력과 최신 살인장비들을 총동원해 세계 전쟁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
- 그는 이어 “우리 민족에게 분열의 고통과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고 남조선 을 강점해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 날뛰는 침략자 미제와 그 주구 이명 박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김기남·최태복·최룡해·문경덕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능수 내각 부총리, 김영대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6.21 道(직할시)·市(구역)·郡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 조직(6/22, 중방·중통)
- 駐北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박천·태천지구 참관(6/22, 중통·중방·평방)
- 北 최영림 내각총리, 인민경제 여러부문(황해제철연합기업소, 평양방직기계공장, 평양신발공장, 강원도 천내군 시멘트공장,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 온실건설장 등) 현지了解(6/23, 중통)
- 北 박의춘 외무상, 6.23 新任 이탈리아 대사 ‘세르지오 메르구리’와 담화(6/23, 중통)

나. 경제

● “北, 홍콩 신형지에 황금평 개발권 부여”(6/20, 경제관찰보)

- 북한이 압록강의 섬 황금평 개발권을 홍콩 신형지(新恒基)그룹에 넘길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중국의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가 20일 보도
- 신문은 앞서 지난 9일 북한이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을 재추진 중이며 초대 행정장관으로 신형지그룹의 가오징더(高敬德) 이사장 기용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신문은 북·중 당국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입수한 ‘협약서’에 따르면 북한이 황금평 개발권을 신형지그룹에 넘기고, 임대료는 북한이 애초 요구했던 연간 현금 5억 달러에서 한발 물러나 곡물이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전함.

- 이어 신형지는 총 100억 달러를 투자, 황금평을 개발할 계획이며 북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중국 당국이 손실액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소개
- 또한 신문에 따르면 신형지그룹의 가오 이사장은 이미 2차례 방북, 북한의 고위층을 만나 경제 합작과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17 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를 재차 초청하는 서한을 발송
- 북한 측은 이 서한에서 선천(深川)이나 싱가포르에서 만나도 무방하다며 가오와의 접촉에 적극적이었다고 신문은 전함.
- 북한이 신형지그룹에 황금평 개발권을 맡기려는 이유는 중국 기업보다 더 개방적, 국제적이어서 외자 유치에 용이하고, 홍콩을 황금평개발의 롤 모델로 삼으려는 것 이외에도 중국 각계에 두터운 인맥을 자랑하는 가오 이사장의 정치적 배경 때문
- 지난달 세계적 규모의 화합물 반도체 생산업체인 신형지그룹 산하의 선천스지징위안(深川世紀晶源)과학기술유한공사가 자금 경색 탓에 600만 위안의 은행 이자를 연체한 것으로 밝혀져 북한 내부에서 한때 신형지에 황금평 개발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무마된 것으로 전해짐.
- 북·중이 황금평 아직 개발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신형지에 대한 북한 내부의 이런 반발 기류 때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
- 경제관찰보는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을 한 지난 8일 북·중간 체결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의 총체적 계획에 대한 요강’에서 황금평을 중국에 100년간 임대해 정보와 관광문화, 현대화 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육성, 첨단 지식밀집형 경제지구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소개

● 北 시장개념 안착... 뇌물·병역비리도(6/20, 연합뉴스)

- 개신교 선교단체인 갈렙선교회가 공개한 북한의 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 우리의 경찰청격) 내부 참고자료는 시장경제 개념이 자리잡힌 북한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또 북한에서도 병역기피나 안락사 현상이 등장하고, 공무원 등을 접대해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시장개념이 북한사회에 뿌리를 내렸다는 방증으로 연합뉴스는 ‘돼지를 길러 고기를 파는 사람이 성장촉진제 등을 사들여 더 많은 고기를 팔고 폭리를 얻었다면 북한에서는 처벌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뉴스가 20일 입수한 인민보안성의 ‘법투쟁부문 일꾼들을 위한 참고서’를 보면 정답은 ‘아니오’라며 그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더라도 자기의 노력으로 시장을 통해 허용하는 가격 한도 내에서 돈을 벌어서 소비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뉴스는 설명
- 한도 내 가격을 명시해 계획경제의 범위로 시장거래를 한정하기는 했지만 이 사례는 시장에 많은 물품을 내다 팔고 그에 비례해 이득을 얻는 시장개념이 이미 북한사회에 뿌리를 내렸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며 뉴스는 전함.
- 참고서는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가재산에 손을 대는 것은 물론 임무를 태만히 해 국가에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해 북한의 경제난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해준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실패국가지수 22위”(6/20, 포린폴리시(FP))

-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실시한 ‘2011 실패국가지수(FSI) 조사’에서 북한이 22위를 기록
- FP는 20일자 기사에서 북한이 실패국가지수 조사에서 총점 120점 중 95.6점을 받아 지난해 19위(97.8점)에서 세 단계가 내려간 22위에 랭크됐다고 발표
- FP는 북한의 상황을 설명하는 항목에서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주민 35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거론
- 또 은둔의 왕국이란 별명답게 국내의 정보가 외부로 새나가고 외부의 소식이 내부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
- 교육 수준과 건강, 빈곤 정도를 나타내는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북한 정부의 발언과 탈북자들의 증언, 한국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면 북한은 인민들이 굶고 있는 절망적인 국가임을 짐작하게 한다는 점도 지적함.

- **日경찰, 한국 경유 北에 벤츠 수출 적발(6/21, 교도통신; 마이니치신문)**
 - 북한 공작기관의 주문을 받아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고급 외제차를 수출한 재일 조선인(북한 국적)이 일본 공안당국에 체포
 - 21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20일 도쿄에 거주하는 재일 조선인 안성기씨(71)를 외환법위반(무승인 수출) 혐의로 체포
 - 경시청 공안부에 의하면 안씨는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않고 중고 벤츠 3대(약 720만엔 상당)를 고베(神戸)항에서 한국의 인천과 부산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
 - 안씨는 조선노동당 직할의 경제관련 공작기관의 발주를 받고 명목상 한국인이 경영하는 도쿄 소재 무역회사인 합동홀딩스를 통해 벤츠를 인천과 부산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
 - 안씨는 최근 3년간 한국과 중국을 18차례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합동홀딩스의 임원 직함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시찰했던 나선 대흥무역회사의 ‘해외대표사장’ 직함도 갖고 있으며, 일본 경찰은 안씨가 북한의 공작원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승용차 등 사치품 24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고, 2009년의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함.

- **유엔기구 대북지원금 안전혀...목표액 17%(6/21, 연합뉴스)**
 -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유엔 기구들이 각국의 지원 규모 축소로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유엔이 20일 공개한 인도적 지원 보고서의 북한편에 따르면 유엔은 올해 2억1천900만달러(한화 약 2천400억원)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모금액은 17.5%에 불과한 3천825만달러(한화 약 410억원)에 그침.
 - 유엔 기구의 대북지원 모금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간접적 대북지원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임.
 -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 정부는 적십자 채널 등을 통해 북한에 직접 인도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WFP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북지원 자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간접 방법도 활용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직·간접 지원이 모두 급감하거나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00년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17억7천500만달러 중 한국이 30%에 달하는 4억달러를 지원한 사실을 보면 대북지원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며 뉴스는 지적
- 또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결정하자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제재 이행에 나선 점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모금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들어남.

● **브라질, 北 식량공여 대상 포함(6/21, 연합뉴스)**

- 브라질 정부는 21일 자 관보를 통해 ‘국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식량 공여 대상을 발표했으며,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 외에 15개국이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5개국은 북한 외에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니카라과, 짐바브웨, 쿠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NA), 수단,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임.
- 브라질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식량을 무상 제공할 방침으로 브라질 정부의 공여 품목은 쌀 50만t, 콩 10만t, 옥수수 10만t, 분유 1만t, 채소 씨앗 1만t 등으로 알려짐.
- 한편, 브라질은 지난 2001년 3월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쿠바에 이어 두 번째로 2009년 말 평양에 대사관을 공식 개설

● **남북합작 ‘뽕로로’ 美대북제재 리스트 오른다(6/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이 북한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도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 이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지난 20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
- 새 시행령은 적성국교역법(TWEA)으로 시행되던 대북제재(행정명령 8271)를 이달 13일로 완료하고 관보 게재일로부터 새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성공단뿐 아니라 황금평 경제특구나 라선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수출 통제대상이 되며, 북한 인력이 참여해 만든 남북합작 영화 등도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함.
- 세계 110여 나라에 수출된 한국의 애니메이션 ‘뽀로로’ 역시 북한의 삼천리충회사의 참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

● “北주민 하루 식량배급 190g으로 줄어”(6/22, 미국의소리(VOA); 마이니치신문)

- 지난 5월 북한주민 1인에게 제공되는 식량배급량이 190g으로 줄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2일 보도
- 육체노동을 하는 성인의 하루 평균 식량 필요량은 700g으로 북한주민은 30%에도 못미치는 셈으로 보고서는 이 배급량이 예년의 같은 시기보다 훨씬 적고 북한 당국은 지난 수년간 1인당 하루 배급량 목표로 잡은 573g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
- 이에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의 평균 배급량이 376g에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음.
- VOA는 유엔이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량을 100만t 정도로 잡았고 특히 2001년에는 200만t이 부족해 식량난이 가장 심했다고 전함.
- 또한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농기계를 지원해왔고 스웨덴, 스위스가 북한에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북한 농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크게 줄었다고 VOA는 전함.

● 中 훈춘-라진 도로보수 ‘속도전’..10월 완공(6/22,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도로보수공사를 서둘러 애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진 오는 10월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2일 훈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훈춘시 정부가 애초 올 연말 완공 계획이었던 이 도로 보수공사의 공기를 2개월여 단축, 오는 10월 마무리 짓기로 함.
- 한 소식통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과 훈춘시가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 공기 단축에 나섰다”며 “북·중 모두 적극적이어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3개월여 뒤인 10월에는 공사가 마무리돼 물류 운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도로 정비가 끝나면 훈춘에서 라진항까지 소요 시간이 40분에 불과하고 물류의 대량 운송이 가능해져 라진항을 통한 물자의 남방 수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함.
-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보수에 나섰으며 애초 내년 말에 완공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가 다시 공기를 2개월 단축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1월과 이달 초 각각 1만7천t과 2만t의 훈춘 석탄을 라진항을 통해 상하이로 시험 운송했다고 뉴스는 전함.
- 중국은 라진항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100만t의 석탄을 해상 항로를 통해 남방으로 운송할 계획이며 기존 육로 운송보다 연간 6천만 위안(10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뉴스는 보도

● 北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6/22, 조선신보)

- 북한이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22일 전함.
- 북한 합영투자위원회 김지혁 연구원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국투자 기업 중에서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현재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밝힘.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국가(원천지국)와 출신국가(거주지국)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을 막아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협정으로 북한에게 있어서 이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열어젖히는 데서 대외경제활동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대외경제관계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기술과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없는 것과 부족한 것을 대외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덧붙임.
- 이어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 직속의 위원회로 합영합작, 외국투자를 총괄하는 중앙지도기관으로 무역성과 동급 기관”이라며 “위원회 산하에는 개인과 기업의 투자활동을 전문적으로 대상(상대)하는 민간단체인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가 있다”고 설명

● **희토류 개발에 양팔 걷고 나선 北(6/23,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들어가는 희소 자원인 희토류의 생산과 이용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희토류란 세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17종의 희소금속으로 반도체·자동차·컴퓨터·발광다이오드(LED) 등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 이어서 이른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림.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희토류 원소광물자원을 적극 이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 내에는 서부와 동부지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 희토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광물에 대한 채굴과 함께 탐사작업도 적극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 이 통신은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지역에서 세부 탐사를 위한 대책과 매장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며 “과학연구기관들과 해당 부문에서는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일 여러 가지 희토류에 대한 연구사업도 깊이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임.
- 중앙통신은 2009년 7월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함흥반도체재료공장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더욱 많은 희토류 금속을 생산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한 바 있으며, 북한 매체가 희토류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기사를 내보낸 것은 매우 드문 일임.
- 북한이 희토류의 이용과 개발에 전에 없던 관심을 보이는 것은 희토류의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본격적으로 자원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

● **北-中 황금평 공동개발 ‘진통’ 겪을 듯(6/23, 연합뉴스; 경제관찰보)**

- 지난 8일 대규모 착공식을 한 압록강의 섬 황금평 공동개발이 개발권을 준 중국 지방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발 주체로 거론됐던 홍콩 기업마저 전면 부인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3일 랴오닝(遼寧)성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황금평을 민간 기업이 개발하되 손실이 나면 중국 당국이 손실액의 80%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황금평 개발을 맡게 될 랴오닝성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매체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는 최근 홍콩의 신형지(新恒基)그룹이 100억 달러(10조7천억 원)를 투자, 황금평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손실이 발생하면 중국 당국이 손실액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보도
- 소식통은 “황금평 개발 손실을 보전하게 되면 그 책임은 개발권을 권랴오닝성이 떠안게 된다”며 “중국기업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 황금평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랴오닝성은 손실까지 보전하면서 황금평을 개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함.
-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황금평 개발이 실패하고 손실까지 보전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왕민(王珉) 랴오닝성 서기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중앙 진출을 모색하는 왕 서기로서는 치명적인 ‘과오’가 될 손실 보전 방식의 개발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은 중국 정부가 황금평 개발에 나서길 바라지만 랴오닝성은 민간 기업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지린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업들도 유망한 투자처로 보는 라선특구와는 달리 황금평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한편 지난 8일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착공식을 했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황금평에서는 아무런 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FAO “北 7개월간 외부서 곡물 13만t 확보”(6/24, 미국의소리(VOA))**

- 북한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입과 외부지원을 통해 곡물 13만여t을 확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를 인용해 24일 보도
- FAO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 기간에 곡물 5만t을 구매했고, 여기에 외부에서 지원을 약속받았거나 실제로 전달된 인도주의적 지원물량 8만4천5백t을 합치면 곡물 확보량이 총 13만4천500t에 달한다고 밝힘.
- 보고서는 유엔 합동조사단이 올 3월 북한 현지에서 작황과 식량현황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곡물회계연도(2010.11~2011.10)의 부족분을 메우려면 총 108만6천t을 외부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결론

- 北 만수대 대대적 재개발·재정비 ‘눈길’(6/2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대형동상으로 유명한 평양의 만수대를 대대적으로 재개발·재정비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의 사설 ‘만수대지구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를 인용, “만수대지구 건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라며 공사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
 - 이를 뒤인 23일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아파트, 공원 등의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밝혔고, 조선중앙방송은 청년들이 만수대지구 건설장 야간작업에 동원됐다고 전함.
 - 다음날인 24일 노동신문은 장마철 피해대책에 관한 사설에서 “만수대지구 살림집 건설장을 비롯한 모든 건설장에서 골재, 시멘트와 같은 자재들을 예견성 있게 확보해 건설을 계속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
 - 이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22일 착공한 만수대지구 재개발에 어느정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들로 북한 당국의 의도는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현대식 건물을 세움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대내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黃南 웅진군의 ‘분지만 소금밭’ 건설장에서 첫 소금생산 시작(6/20, 중방)
- 駐北 이란 대사관 성원들·리비아 경제협조사사무소 소장과 사무소 성원들, 6.21 ‘北-이란친선립석협동농장(平南)·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평양)’에서 각종 친선노동(6/21, 중통·중방)
-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등, 밀보리 수확 시작(6/22, 중방)

다. 군사

- “北, 5월 이란에 핵·미사일 전문가 160명 파견”(6/20, 산케이신문)
 - 북한이 지난달 이란에 핵·미사일 전문가 160명을 파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
 - 이 신문은 한반도 정세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5월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연 160명의 핵·미사일 전문가를 이란에 보냈다고 전함.

- 이 신문은 한 달새 북한이 이란에 이렇게 대규모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돈벌이를 위해 이란에 핵과 미사일에 관한 군사기술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북한이 핵·미사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4차례로 나눠 이란에 보낸 것은 인원을 분산해 한꺼번에 대규모로 보낸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파견한 전문가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원심분리기 제어시스템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문제 등과 관련 기술 지원도 한 것으로 추정

● “北, 시위진압 장비 中서 대량 구입”(6/21, 연합뉴스)

- 북한이 내부 소요 사태에 대비해 폭동진압 경찰 조직인 ‘특별 기동대’를 창설한 데 이어 최근 중국에서 시위 진압용 장비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이 기존에 없던 폭동진압 경찰을 창설하고 선진 장비 확보에 나선 것은 실제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
- 2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랴오닝성 선양(瀋陽) 등지에서 중국 상인들을 통해 시위 진압용 부대가 사용할 최루탄, 헬멧, 방패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북한은 기본 장비 외에도 방탄조끼를 비롯한 방호복, 시위대를 막을 때 쓰는 장애물 등의 구입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런 움직임은 특히 지난 4월 북한 인민군 작전국장 출신인 리명수가 주상성을 밀어내고 경찰청장 격인 인민보안부장에 전격적으로 임명된 이후 나타나기 시작
- 확보된 진압 장비는 북한이 작년부터 각 도·시·군별로 조직한 특별 기동대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작년부터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북한의 특별 기동대는 역 광장, 시장, 학교, 공원 등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지역을 가정한 상황별 시위 진압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이 이처럼 폭동진압 경찰 조직을 만든 것은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생계형 저항’이 점점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경향을 띠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
- 이 밖에도 최근 들어 북한 상사원들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안이 쓰는 도청 장비가 장착된 수사 차량과 무전기 등의 수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내부 단속에 큰 신경을 쓰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는 지적

● “北 군부대에 ‘김정은 지시’ 급증”(6/22, 도쿄신문)

- 최근 북한 조선인민군 부대에 이른바 ‘김정은 대장동지의 지시’가 급증했다고 도쿄신문이 22일 서울발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이 신문은 구체적인 예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음력설인 2월3일을 앞두고 포병사령부를 시찰했을 때 여성 병사가 많다는 점을 문제삼아 “실력에 걸맞은 인물을 받아들이라”고 지시했고, 이후 여성의 입대 비율이 줄었다고 전함.
- 앞서 도쿄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월2일 조선노동당이나 내각, 인민군 지도간부에게 “사소한 문제라도 (김정은) 대장동지의 결정을 받아 행동하는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지난 3월 보도한 바 있음.

● “北, 통신·전선망 무력화 신행무기 개발 의혹”(6/24,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가 북한이 단 한번의 공격으로 남한의 통신망과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는 슈퍼 전자기파(EMP) 폭탄을 개발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
-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핵무기 전문가로 근무했던 피터 프라이 박사는 VOA와 인터뷰에서 “EMP 폭탄을 개발한 러시아 과학자가 EMP 디자인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밝혔다”며 “2004년 러시아 과학자들은 몇 년 안에 북한이 슈퍼 EMP 폭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고 2년 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다”고 말함.
- 프라이 박사는 “(1차 핵실험 당시) 많은 사람이 북한 핵무기가 1~3kt 정도의 위력밖에 내지 못해 핵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아주 낮은 폭발력이 바로 슈퍼 EMP 폭탄의 특징”이라고 강조

라. 사회·문화

● “北 5세이하 유아 40% 영양실조”(6/22, 아사히신문)

- 북한의 유아 40%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
- 이 신문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5월 말부터 6월에 걸쳐 북한을 시찰한

- 미국 정부의 식량지원조사단이 6개군 지역의 5세 이하 유아 약 170명을 조사한 결과 40% 정도가 영양실조로 분석됐다고 전함.
-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식량 부족 타개를 위해 미국의 지원 물자가 군(軍)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으나 미국 측은 경계감을 풀지 않고 있음.
-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상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식량 지원 여부를 놓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대형가무극 ‘활짝 핀 진달래’ 中 순회공연(6/23, 북경일보)**

- 북한의 3대 예술단 가운데 하나인 평양예술단이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7월 1일)을 기념해 대형 가무극 ‘활짝 핀 진달래’의 중국 순회공연에 나섰다 내달 10일에는 베이징 전람관극장 무대에 오른다고 북경일보 등 중국 언론이 23일 보도
- 북경일보는 평양예술단의 이번 공연은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기념하고 북·중 우의를 다지기 위해 중국 문화부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3개월에 걸쳐 중국 전역을 순회하게 된다고 전함.
-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피바다가극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중국을 방문, 2개월 동안 베이징 등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30여 차례에 걸쳐 중국 원작을 가극으로 만든 북한판 ‘홍루몽’을 무대에 올림.
- 피바다가극단과 평양예술단의 중국 순회공연은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는 곳마다 만원사례를 이뤄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줬던 것으로 보임.

● **“北전역 장마전선 장기간 영향…수해 우려”(6/23, 연합뉴스)**

- 기상청은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수량이 7월 내내 평년보다 20~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힘.
- 한편 북한은 전날부터 황해도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감.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3일 평안남도 북창의 남덕탄광, 인포탄광에서 장마철 생산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탄광의 일꾼들은 전

탄장들에 나가 장마철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타산(계산)하고 석탄 유실을 막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탄부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 대표단 AP통신 방문차 방미(6/24, 조선중앙통신,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김병호 사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미국 AP 통신 본사가 있는 뉴욕 방문을 위해 23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앞서 AP통신의 토머스 켈리 사장 등 AP대표단이 지난 3월 나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바 있으며 당시 켈리 사장은 AP통신 평양지국 개설을 북측에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전함.

● **北 “태권도시범단 방미는 朝美친선의 기회”(6/24,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미국 방문을 북미관계와 연관지어 호평
- 조선신보는 또 “올해 들어 조미사이에 인적래왕(인적왕래)과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남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이 대대적으로 태권도시범단의 방미활동을 보도했다고 전함.
- 특히 CNN이 1970년대 중국과 미국 사이의 ‘핑퐁외교’를 거론하며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을 해설한 것에 대해 “조미관계 정상화가 멀지 않아 이뤄지리라 믿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

● **“北, 민주시위 지역 근로자 파견 금지”(6/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 리비아 등지에서 잇따라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 시위 발생 지역으로의 근로자 파견을 꺼리거나 파견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 이 방송은 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던 평양에 사는 20대 근로자 김모씨의 지인 말을 인용해 김씨가 이미 수개월 전 모든 출국 수속을 마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최근 북한 내에서는 화폐개혁의 실패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외국에 나가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 ‘메아리’ 상륙 예상에 태풍경보(6/26, 조선중앙방송)

- 26일 북한 강원도 회양군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는 등 제5호 태풍 ‘메아리’의 영향권에 든 북한이 태풍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을 당부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다시 한번 태풍경보 발령을 알리는 방송을 하면서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해 내일은 평안북도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함.
-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태풍 5호 ‘메아리’가 시속 60km의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25일 12시부터 26일 12시 사이 회양군에 105mm, 고성군과 봉천군에 90mm, 통천군과 청단군에 79mm, 연안군에 76mm, 고산군에 73mm, 창도군에 70mm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알림.

2 대외

가. 일반

● 유럽의회 내달 13일 ‘北인권’ 토론회(6/2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7월13일 벨기에에서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이 방송은 유럽 현지에서 정착한 탈북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증언하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도 토론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함.
- 유럽의회 관계자는 RFA에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외에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함.

● <中, 北전략대화 거론에 왜 묵묵부답할까>(6/2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 ‘전략대화’를 가졌다고 공표했으나, 정작 중국은 그와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목
-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공산당 조직

- 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지난 10일 북·중 노동당 대(對) 공산당 간에 전략 대화가 열렸다고 보도
- 반면 이와 관련해 열흘이 지나도록 중국 정부는 물론 관영 매체조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우선 북한의 전략대화 돌출 언급이 관심거리로 '주체'를 강조해온 북한이 그동안 전략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고 뉴스는 전함.
 - 아울러 중국의 태도 역시 석연치 않은데,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가 간 회담 후 일국이 전략대화를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그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뉴스는 지적
 - 통상 전략대화라는 용어는 회담 대상국들이 서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서 그를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전략대화 발언에 침묵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와 관련해 긍정했거나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
 - 우선 김 위원장이 뚜렷한 목적을 드러내지 않은 채 투먼(圖們)에서 시작해 양저우(揚州), 베이징(北京)까지 무려 6천여km를 달린 특별열차 대장정 퍼포먼스에 담긴 '합의'가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으로 이번 퍼포먼스의 강조점은 경제건설에 있다는 해석이 중론
 - 아울러 리위안차오 공산당 조직부장은 내년 10월 제18차 공산당 대회에서 정칙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돼 중국 차기 권력을 균점할 '공동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적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 중국은 리위안차오 당 조직부장의 방북은 연초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후속 협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리위안차오 당 조직부장의 방북 회담을 전략대화라고 표현한데는 여러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국제사회에 북중 연대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
 -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으로서 는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스스로 쓰는 전략대화라는 표현을 부정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런 탓에 묵묵부답하는 것”이라고 지적

● 클린턴 “北 추가도발 억지, 남북대화 지지”(6/22,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및 남북대화 지지, 한반도의 완전하고 평화적인 비핵화 촉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클린턴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억지하고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평화적인 비핵화를 촉진하는데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밝힘.
-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미일 2+2회담에서 아태지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들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아프가니스탄 지원, 해양안보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언급, 북한 문제가 이번 2+2회담에서 긴밀히 논의됐음을 시사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가기 위한 결정에 앞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밝혀 왔다”고 말함.

● 오바마 “北 특별한 위협 계속”..경제제재 연장(6/24,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북한이 계속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계속 지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반복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에 대한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데,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게 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대상 지정 계속 방침을 공표하면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확산 위협과 존재” 및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제기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이유로 제시

● 한·미, 남북대화 선행원칙 합의(6/24,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24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비핵화 노력과 관련, 남북간 관계개선과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아울러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북한이 모니터링 문제 및 2007년 식량지원 중단 당시 남겨둔 2만여t의 처리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
- 그러면서 “6자회담이 진행된다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고하게 보이는 등 우선 적절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
-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북한 비핵화 회담과의 연계성에 언급, “천안함은 남북간 이슈이고, 6자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이슈”라고 전제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다루는 이슈도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고 말함.
- 이와 관련, 클린턴 장관도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열린 입장이지만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심과 공유된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 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행동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 그는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미 정부는 ‘듀얼트랙’ 접근을 추구한다”면서 “남북이 스스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조건하에서만 대북 대화를 진행하고, 동시에 추가 핵개발 프로그램과 핵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

■ 기타 (대외 일반)

- 中 ‘호금도’ 주석의 中-러 정상회담 및 ‘국제경제연단’ 참가 등 訪러(6.15~18) 動靜과 중국 정부의 “알곡증대 노력”과 對인도네시아와 ‘샤프 나이프 2011’ 합동훈련 등 對中소식 보도(6/21, 중통·중방)

나. 6자회담(북핵)

● 위성락 방미..“대화국면 조성에 노력”(6/21, 연합뉴스)

-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움직이는 노력을 살려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위 본부장은 이날 오전 북한 문제 협의차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회담에 호응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함.
- 본부장은 미국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신임 특사,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면담하고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한 뒤 26일 귀국할 예정
- 이번 워싱턴 방문은 오는 24일 열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양측이 실무적으로 의제를 협의하는 차원
- 위 본부장은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와 공조해 성안한 대화 방법을 어떻게 진행해나갈지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어 “이 접근법이 큰 틀에서 변화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면서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비핵화 협의는 기본적으로 별개”라고 설명
-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해 위 본부장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미국에서도 다양한 여론이 있고 식량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힘.

● 日, 中에 6자회담재개 역할 강화 요구(6/22, 연합뉴스)

- 6자회담 일본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2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이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
- 스기야마 국장은 이날 6자회담 중국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진 뒤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중국과의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 美 6자회담 새 특사, 클리퍼드 하트(6/24, 연합뉴스)

- 주한 미대사로 지명된 성 김의 후임으로 미국 국무부 북핵 6자회담 신임 특사를 맡은 클리퍼드 하트는 직업 외교관 출신의 중국 전문가라고 연합뉴스가 보도
- 특사 임명 직전까지 미 해군참모총장 외교자문역을 지냈으며,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중국담당 보좌관을 맡았고, 이후 국무부 대만 과장을 역임했으나 하지만 그동안 북한 문제에 직접 관여해 온 경험은 없고, 한국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고 뉴스는 전함.
-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하트 신임 특사가 한반도 관련 경험은 없지만 통찰력이 탁월한 외교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문제까지 잘 알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 팀이 돼 움직일 경우 오히려 전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함.

3 대남

기타 (대남)

- 南 정부가 ‘北 인권법’을 조작할 경우 “北 제도와 인민에 대한 공식 선전포고,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차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6/20, 중통·평방)
- 李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청와대 초청행사(6.15) 관련 “6.15공동선언을 악랄하게 반대하는 자의 도전적 행위, 희세의 대결왕초”라고 원색 비난(6/20, 중통·노동신문)
- ‘韓美 쌍방교전훈련’(6.7~10)을 “선제공격의 성격을 띤 북침전쟁연습”이라고 再次 주장과 함께 지난 ‘공중연습·해상사격훈련’ 등 持續 비난(6/21, 중통·노동신문·중방)
- 정부의 ‘北인권법’ 제정 관련 “사회주의 제도下 인권문제란 있을 수 없다”며 “現 南보수정권下에서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마저 체제전복세력, 불법난동분자로 몰려 탄압당하고 목숨까지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라고 왜곡 주장(6/22, 중통·노동신문·평방)
- 李대통령의 「민주평통」 자문회의時(6.21) ‘統一발언’(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을 “상스러운 망발”로 원색 비난하며 “흡수통일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위협(6/23, 우리민족끼리)

6.27-6.30

6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베일 벗은 ‘北후계론’…결국 김정은(6/27,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해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북한이 27일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한 김일성방 송대학의 한 논문을 통해 후계문제에 대한 정리된 견해를 내놓은게 주목되고 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주체혁명 위업에 대한 영도의 계승문제를 정확히 이해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작년 당 대표자회를 “주체혁명위업 계승의 일관성을 담보할 근본조건이 마련된 역사적 계기”로 평가해 이 행사가 김정은이 후계자임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사실상 확인
- 김정은이 작년 당 대표자회에서 대장이라는 군사칭호를 받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름으로써 후계자로 공식화됐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북한이 작년 행사가 후계문제를 정리한 정치행사라는 점을 반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배경이 주목됨.
- 논문은 “영도의 계승문제는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사활적인 중대사”라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업적, 품모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어 계승의 문제와 관련해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영도를 계승한다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김일성 주석의 사상과 영도업적, 주석의 숭고한 품모를 그대로 이어 받고 빛내어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해 작년 공식석상에 등장한 김정은이 김 주석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코드를 빼닮았던 배경을 우회적으로 밝힘.
- 논문은 또 “수령에 대한 순결한 충실성이 후계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는 수령이 생존할 때 누구보다 만세를 높이 부른 정치적 야심가들이 영도적 지위에 올라서는 수령의 사상과 노선을 헐뜯고 수령의 업적을 비난하며 말살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스탈린 사후 격하운동 등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

● **김정일 “정보전부대는 나의 배짱이고 예비대”(6/28, 연합뉴스)**

- 북한군은 작년 정찰총국 예하의 사이버부대인 121소를 ‘121국’으로 승격하고 사이버전 병력을 3천여명으로 확대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연합뉴스가 보도
- NK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는 29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군사학회와 국방소프트웨어 산학연합회가 주최하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한국의 사이버전 태세’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힘.
- 또한 김대표는 “121국은 사이버전 지도국으로 남한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공격, 민간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해킹 및 인터넷 대란을 일으키는 작전을 총괄하는 곳”이라면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500여명 이었으나 작년 이후 3천여명으로 늘렸다”고 말함.
- 또 1995년 설립된 100여명 수준의 중앙당 35호실 기초자료조사실은 중앙당 부서에 필요한 다른 나라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관한 기밀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해킹하며, 1999년 설립된 200여명 수준의 총참모부 적공국 204소는 국군과 남한의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
- 특히 김홍광 대표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9년 중순 북한군 장령(장성) 간부 강연회에서 정찰국 121소의 해킹 업적을 보고받고 “현대전쟁은 기름전쟁, 알(탄약) 전쟁으로부터 정보전쟁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제국주의를 한 방에 궁지에 몰아넣었다. 정보전부대는 핵무기와 함께 나의 배짱이고 예비대”라고 역설
-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관련해 김 대표는 “북한 국방과학원은 과학기술 발전 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2년까지 ‘빛-자기변환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라면서 “이 기술이 개발되면 원격지에서 접근이 어려운 인트라넷(내부 전산망) 침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함.

● **“김정일-메드베데프 30일 정상회담”(6/28, 교도통신; NHK; 마이니치신문)**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30일이나 다음 달 1일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은 28일 러시아 관리들을 인용,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실현되면 2002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9년만에 첫 방러 정상회담이 됨.

- 이와 관련, NHK방송도 김 위원장이 오는 30일 열차편으로 북한과 접경 지역인 하산을 통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하산의 행정부 당국자는 이 방송에 “김정일 위원장이 탄 열차가 30일쯤 하산역을 통과한다는 연락을 27일 공식적으로 받아,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이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함.
- NHK는 그러나 과거에도 러시아 극동에서 김 위원장을 맞을 준비를 했다가 무위로 그친 적이 있었던만큼, 실제 방문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임.
- 이날 마이니치 신문은 “북러 양국이 다음달 1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
- 이 신문은 모스크바발 기사에서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는 동북 아시아의 정세 안정을 위해 북한과 관계 강화를 노리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김정일 러 방문 포기는 건강상 이유”(6/29, 교도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무산된 것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
- 이 통신은 복수의 러시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측이 러시아에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좋지않다면서 방문 취소를 통보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국방위원장은 특별열차로 30일 국경을 넘어 블라디보스토크 교외 영빈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을 의제로 제시했고, 북한은 연료와 식량 지원을 요구했으며, 양 측이 의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김 국방위원장의 방문 중단을 러시아 측에 통보
- 이에 앞서 지난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가스프롬사의 알렉세이 밀레르 사장과 북한의 김영재 주 러시아 대사의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부설 계획을 정상회담의 의제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이를 거부

● **김정일, 후진타오에 ‘공산당 창건 90주년’ 축전(6/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30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국가주석에게 중국공산당 창건 90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은 창당 90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축전을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며 “당의 창건은 중국혁명과 중국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밝힘.
- 위원장은 또 “중국공산당은 자체 실정에 맞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제시하고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짧은 역사적 기간에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크게 강화했다”며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를 간접 평가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최영림 내각 총리, 6.23~25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咸鏡北·南道 공업부문 사업 현지방문 요해 및 ‘협의회’ 조직(6/27, 중통·중방)
- 최영림 내각 총리, 6.27 중국 요녕성 黨 및 정부 대표단과 담화(6/27, 중통·평방)
- 최영림 내각 총리, 6.29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강철생산정형 현지요해 및 ‘협의회’ 소집(6/30, 중통·중방)
- 北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 실시(7.24 예정) 관련, “높은 정치적 열의로 선거에 참가해 김일성 생일 100돌을 민족최대의 혁명적 경사로 맞이해야 한다”며 ‘정치사업 강화를 통한 선거 분위기 고조’ 선동(6/29, 중통·노동신문)
- 駐北 中 대사 ‘류홍재’, 6.30 김영남·최영림(내각 총리)·김기남(黨 비서/연설) 등 초청下 自國 공산당 창건 90돌 경축연회 개최(6.30, 중통)
 - 태복(黨 비서), 강석주(내각 부총리), 박의춘(외무상), 리룡남(무역상), 최창식(보건상·조종친선협회 중앙총 위원장), 김정숙(대외문화연락총 위원장) 등 초대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남아프리카공화국 駐在 北 대사 조영만 임명(6/30, 중통·평방)

나. 경제

● 美, 1995년後 대북지원 13억弗(6/27, 연합뉴스)

- 미국이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에 제공한 각종 지원이 13억달러 어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6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금액으로 따져 총 13억1천285만 달러(한화 약 1조4천200억원)으로 집계
- 미국의 대북지원은 제1차 북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도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60만 달러의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
- 항목별로는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 7억815만달러(225만8천164t)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2009년 3월 북한이 구호단체에 대해 떠날 것을 요구한 이후에는 전면 중단된 상태
- 또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억4천600만달러 상당의 중유가 지원됐고,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비용으로 4억370만달러,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 지원에 1천만달러가 각각 투입
- CRS는 북한이 지난해말부터 식량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는 몇가지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 먼저 지난해 작황이 비교적 나아졌으나 고질적 식량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상황이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및 권력 승계를 앞두고 식량비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
- 또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감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고, 식량지원을 통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
- CRS는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느냐의 여부와 함께 안보 및 인권문제, 모니터링 확보, 중국의 대북식량 지원 모니터링 문제,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분담 등 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

- **北 10월17~20일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6/27, 유럽기업협회(EBA))**
 - 북한이 제7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를 오는 10월17~20일 개최한다고 평양 주재 ‘유럽기업협회(EBA)’가 27일 밝힘.
 - EBA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모집을 알리면서 “조선국제전람사와 함께 유럽기업들을 위한 특별부스를 마련했다”며 미국, 일본, 한국 국적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
 - 북한은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무역박람회 격인 국제상품전람회를 열고 북한산 기계설비와 강철, 전자제품을 비롯해 식료품과 의약품 등 각종 상품을 선보일 예정

- **“북한, 목화·피마자 재배 독려”(6/28, 도쿄신문)**
 - 북한이 생활필수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 봄부터 목화와 피마자 재배를 전국적으로 지시했다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내년의 ‘강성대국’ 실현을 위한 국민생활 향상의 최우선 과제로 경공업을 중시하고 있으며 생활용품의 원료 확보를 위해 목화와 피마자 재배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4월초 협동농장과 경제시설에 대해 목화 재배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전국에 지시했으며, 주민 1가구당 피마자 씨앗 30개씩 배급해 가을에 피마자 3~4kg을 헌납토록 함.

- **경기도2청, 방역물품 7월1일 北 2차 지원(6/28, 연합뉴스)**
 -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다음달 1일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북한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힘.
 - 이번에 전달할 방역물품 규모는 말라리아 진단키트 34만3천500개로 3억 7천만원 상당으로 경기도2청은 방역물품을 11t 트럭 1대에 싣고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시와 황해북도에 전달할 계획
 - 이번 방역물품 전달에는 인천시도 참여해 같은날 경기도와 함께 1억원 상당의 진단키트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함.

- **中, 수풍발전소 개선후 北에 관리권 이양(6/29, 신화통신)**
 - 중국이 압록강 수풍(水豊)댐의 수력발전소 개선공사를 682일 만에 마무리짓고 관리권을 북한에 넘겼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개선공사로 발전소의 홍수조절, 저수, 방수 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 공사에 1억5천900만 위안(한화 262억원)이 소요됐으며, 이는 중국의 국가전력망공사가 전액 부담
 - 이 발전소는 북한과 중국의 동북3성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북한과 중국은 지난 1955년 수풍 수력발전소 운영하는 ‘조·중 수력발전회사’를 공동 설립, 운영

- **스위스 구호단체 “남북갈등에 北식량난 심화”(6/29, 스위스국제방송)**
 -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아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스위스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구호단체 대표가 밝힘.
 - 29일 스위스 국제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 카타리나 젤위거 국장은 최소 350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던 2005년의 상황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식량난이 다시금 북한에서 주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젤위거 국장은 한국이 지원을 중단한 이후 비료가 부족해 북한 주민의 농사짓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밝힘.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독재 체제와 3대 세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서방 각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현재 유럽 국가 중에서는 스위스와 이탈리아만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北, 5월에만 중국서 곡물 5만t 수입(6/30, 연합뉴스)**
 - 북한이 5월에 중국에서 5만t이 조금 넘는 곡물을 수입하는 등 올해 들어 곡물, 화학비료 수입량을 부쩍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30일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원장이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하는 북중교역 동향 중 ‘북한의 곡물 및 비료 수입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총 5만328t톤의 곡물을 수입했다. 이는 전월 대비 79.2%, 전년 동기간보다 31.5% 늘어남.
 - 권 부원장은 “북한 식량사정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콩

수입을 줄인 것은 가격 상승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외화부족으로 옥수수
와 밀가루 등의 곡물 수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 화학비료의 경우에도 지난달 중국에서 6만7천여t을 수입하는 등 올해 들
어 지속적으로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며, 올들어 5월까지 북한이 수입한
비료의 양은 모두 11만4천300여t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39% 늘었고 수입
액은 2천300만달러에 달했다고 뉴스는 전함.

● “유니세프, 北홍수 대비 10만명분 구호품 비치”(6/3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여름 북한의 홍수에 대비해 북한 내 10여개군에
10만여명 분의 긴급구호품을 비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함.
- UNICEF 동남아시아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은 방송에 이같이 밝히
면서 “올여름 북한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홍수취약지
역 주민을 위한 ‘긴급행동령’을 준비하는 등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내각사무국 등 성·중앙기관 돌격대원들의 백암군(양강도)에 18동의 “현대적인 돼지목장 완공
및 추가건설” 보도(6/27, 중방)

다. 군사

● 북한, 제네바 군축회의 순회의장국 맡아(6/28, 연합뉴스)

- 북한이 28일 시작된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순회 의장국을 맡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서세평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군축회의에서 “이번 회의가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회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함.
- 서 대사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군축 문제를 조언하는 전문가
그룹들과 회원국 외교관들이 오는 30일 제네바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임.
- 서 대사의 언급에 대해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관계자는 “서 대사의

발언은 순회 의장으로서 의례적인 발언이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말함.

-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제네바 군축회의는 알파벳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4주씩 의장국을 맡는데, 이번 회의는 당초 쿠바가 의장국을 맡게 돼있었으나, 자국 사정으로 인해 순서를 바꿔줄 것을 요청해 북한이 의장국이 되었음.

● “北, 스리랑카 타밀반군에 무기판매 시도”(6/29, 미국의소리)

- 북한이 지난 2006년 무기판매를 목적으로 스리랑카 반군세력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와 접촉했던 사실이 미국 정부에 의해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전함.
- 방송은 미 법무부가 지난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일어난 주요 불법수출 사건 기소사례를 모아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LTTE는 2006년 2월부터 북한과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약 90만달러 규모의 무기구입을 시도했다”고 밝힘.
- 보고서에 담긴 미 연방 메릴랜드 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LTTE 요원을 위해 일하던 싱가포르 국적의 발라즈 나이두는 2006년 북한인 1명을 소개받았고 이 북한인은 나이두에게 무기 판매를 시도
- VOA는 앞서 LTTE가 기관총, 대전차로켓 등을 북한에서 구매해왔으며 2005년~2008년에는 무기 구입을 위해 평양 현지에 사무소를 운영, 타밀 반군 3명이 상주하기도 했다고 전한 바 있음.

라. 사회·문화

● “北 장마철 수해방지 활동 주력”(6/28,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해 홍수로 신의주 일대에 큰 피해를 본 북한이 올해는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수해방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은 RFA에 “홍수에 대비해 북한 내 유엔기구와 NGO(비정부기구)들이 함께 수해대비 모의훈련과 현장점검 등 방재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힘.
- 이 방송은 IFRC가 북한의 장마철을 7월 말에서 9월 중순으로 보고 산사

태 방지 목적으로 지난 3월과 4월 ‘봄철 나무심기 운동’을 벌여 산간 지역 30여 곳에 약 230만 그루의 묘목을 심었다고 전함.

- IFRC는 상반기에 함경남도, 평안도 지역에 댐, 저수지, 배수로, 우물 등을 중심으로 방재시설 세웠고 시·도별로 ‘재난대비 위원회’를 조직해 지역 차원의 훈련도 진행하는 한편 지역별로 긴급사태 대비계획을 제공할 계획

● “北 평양 국제공항 신터미널 완공”(6/28, 교도통신)

- 일본의 교도통신은 28일, 북한이 평양 국제공항에 새로운 터미널을 완공해 이달부터 문을 열었다고 보도
- 이 통신은 “(평양 국제공항의 신터미널 완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인 내년을 위한 수도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 “일본 6·25 참전했다”…사죄 요구(6/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을 통해 일본이 6·25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하며 사죄를 요구
- 중앙통신은 “일본은 미국의 대조선 침략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장장비, 군수품의 수송과 생산보장에서 특등참전국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며 “일본은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해 우리의 평화적 주민을 살해하고 국토를 짓터미로 만든 죄과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성근하게(성실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힘.
- 통신은 이어 “우리 민족은 일본이 과거 조선인민에게 끼친 죄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응당 조선전쟁의 패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임.

● “평양에 김정일 비방낙서…보안당국 발각”(6/29, 데일리NK)

- 북한의 수도 평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방하는 낙서가 발견돼 보안당국이 발각 뒤집혔다고 대북매체인 데일리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
- 데일리NK에 따르면 중국 단둥(丹東)을 오가는 평양의 한 소식통은 지난 달 평양 만경대의 김일성 생가 대문 한쪽이 분실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평양철도대학 담장에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낙서까지 등장해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렸고 주민들 사이에도 소문이 금방 퍼졌다고 전함.

- 이 담장에는 ‘박정희·김정일 독재자, 박정희 나라경제 발전시킨 독재자, 김정일 사람들 굶겨 죽인 독재자’라는 낙서도 있는데 글자당 B4(257×364mm)용지 크기 정도의 큰 글씨인 데다 빨간 벽돌에 흰색 분필로 쓴 것이어서 눈에 더욱 잘 띄었다고 소식통은 전함.
- 북한 보안 당국은 범인색출을 위해 합동 수사대를 구성해 철도대 학생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평양 주민과 외부인원에 대한 단속과 검열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범인의 도주를 막으려고 3일간 공무(公務) 이외 유동인구를 철저히 통제해 27일 오전까지 사흘간 기차표 발매도 중단된 것으로 전해짐.

기타 (대내 사회·문화)

- 2011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8.1~9.9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공연진행 예고 및 본격준비 착수(6/27, 중통)
- 중국공산당창건 90돌 기념 사진전시회, 6.28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6/28, 중통·중방)
 - 태백(黨비서), 김정숙(대외문화연락위원장), 최창식(보건상/연설) 등 참가
- 北, 각지에서 수천 점의 ‘계급교양자료들’ 새로 발굴·전시 보도(6/28, 중통)
- 北, 청단지역 0시부터 3시까지 사이에 55mm의 폭우 보도(6/29, 중방)
- 中 공산당 창건 90돌 기념 ‘중국영화상영주간’ 개막식, 6.29 김기남(黨비서), 최창식(보건상/조·중친선협회 위원장), 안동춘(문화상), 류홍재(駐北 中 대사) 등 참가下 대동문화관에서 진행(6/29, 중통)
- 러시아 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협주단, 6.29 김병훈(「문예총」 위원장), 문재철(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참석下 봉화예술극장에서 첫 공연 진행(6/29, 중통)

2 대외

가. 일반

● 美, 北 인신매매 최악국 재지정(6/28,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 미얀마(버마), 이란, 쿠바 등 23개 국가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

-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들의 공급국(source country)”이라면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식량 등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거기에서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받는 경우에 처하기도 한다”고 전함.
-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를 문제점으로 인정하고,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관행을 중지하라고 권고

■ 기타 (대외 일반)

- 독일 대통령(크리스티안 울프), 6.25 訪獨 박명철(北 체육상) 일행 면담(6/27, 중동·평방)
- 駐北 시리아 대사(‘수헤일 하이다르’)와 성원들, 6.29 平南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 및 지원물자’ 전달(6/29,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中, 양자·다자회담 병행카드 제시(6/28, 신화통신; 연합뉴스)

- 중국이 “관련국간 서로 모순되지 않고 병행관계에 있는 양자와 다자대화를 추진하면서 조기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이같이 말함.
- 홍 대변인은 “중국은 줄곧 유관 각측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며 유관 각측이 적극적인 대화, 접촉, 협상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
- 홍 대변인은 관영 신화통신의 기자가 최근 중국이 북한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 확인해달라는 한 데 대해 그같이 답함.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홍 대변인의 양자·다자대화 병행 언급이 최근 북한의 남한 기피로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프로세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순서에 관계없이 양자와 다자 대화를 병행해 6자 회담을 조기에 재개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전함.

3 대남

● ‘재산정리’ 北위협에 민관 29일 금강산 방북(6/27,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지구 내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남측 당사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들어오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는 29일 정부 관계자와 민간 사업자들이 금강산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힘.
- 방북단 규모는 총 12명으로 정부 측에서는 단장인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비롯해 통일부 실무자 3명,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6명이며, 민간 측에서는 현지에 투자한 현대아산 2명, 에머슨퍼시픽 1명, 금강산 기업협의회 1명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1명, 대한적십자사 1명 등 6명임.
-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당국자의 방북에 대해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

● 北, 천안함·연평도-비핵화회담 분리 거부(6/28, 민주조선)

- 북한은 28일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남북 비핵화회담을 분리해 대응하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거부
-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너절한 잔피에 누가 속겠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천안호, 연평도 사건을 걸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조미대화 와 6자회담 재개에 제동을 걸려는 역적패당의 속심은 변하지 않았다”며 남한 정부의 분리대응 입장을 “내외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잔피”라고 비난
- 또한 민주조선은 “며칠 전 괴뢰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6자회담 괴뢰대표 위성락, 돈봉투 사건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숨어지내던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도 저마다 미국 상전들을 찾아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6자회담 재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양탈질했다”고 비난

● 통일부 “금강산 방북단 실질적 논의 못해”(6/29, 연합뉴스)

- 북한이 제기한 금강산지구 내 ‘재산 정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을 방문한 민관 방북단은 북측과 협의방식 이견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어 이 당국자는 “방북단은 북측의 입장을 듣고 우리 측의 입장도 밝히겠다고 한데 대해 북측은 방북단 전체에 자신들의 방침을 설명하고 이후 민간사업자들과 개별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
- 이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 통보만 받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면서 “북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으면 돌아가라고 요구해 결국 재산권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함.
- 남북 간 공방은 금강산지구 내 현대아산 사무실에서 이뤄졌으며, 북측에서는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이 나옴.
- 향후 대응과 관련해 그는 “정해진 것은 없다. 일방적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북한, 南군부대 구호 비난…‘보복성전’ 위협(6/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남한의 일부 전방부대가 훈련을 위해 호전적인 구호를 내건 것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보복성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북한은 이날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최근 괴뢰군 ‘백골부대’를 비롯한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대와 체제, 존엄을 중상모독하는 구호를 내걸고 반공화국 적대감을 고취하고 있다”며 “또 다시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망동을 감행했다”고 비난
- 이어 “표적사건보다 더욱더 극악한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정면도전으로 명백한 선전포고”라며 “이명박 패당이 감히 전쟁을 불사하는 극단의 도발을 걸어온 조건에서 도발에는 단호한 징벌로, 전쟁에는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라고 위협
- 북한은 “이명박 패당은 당장 사죄하고 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무분별한 대결 광란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함.

● **통일부 “北황강댐 방류 사전통보 못받았다”(6/29,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북한이 이틀 전부터 임진강 북쪽의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판문점 등의 채널을 통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이 이번에 방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김외교 “北박의춘 외상과 안만날 이유없다”(6/30, 연합뉴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 달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30일 밝힘.
- 그는 남북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방안과 관련해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미대화 선행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北, 南에 내달 13일까지 금강산 정리안 요구(6/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다음달 13일까지 금강산 지역의 재산정리방안을 마련해 방북할 것을 남측 기업들에게 통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함.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우리측은 7월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있는 남측의 모든 당사자들이 재산정리안을 연구해가지고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말함.
- 대변인은 “우리측은 (전날) 남측 기업당사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려던 우리의 재산정리방안을 금강산 현지에 와있는 현대아산 등 남측기업 관계자를 통해 통지문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고 밝혀 이번 통지문이 금강산의 현대아산 사무소를 통해 전달됐음을 시사

● 통일부 “北일방조치, 투자유치에 부메랑될 것”(6/30, 조선중앙통신)

-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금강산지구 내 남측자산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북측의 각종 투자유치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투자보장합의서나 현대아산과 북측 간의 계약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北 “서해 5도 개발’은 또하나의 도발”(6/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한이 서해 5개 섬을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또하나의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패당은 작년에 우리에게 군사적 도발을 걸었다가 불벼락을 맞은 연평도에 ‘안보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무슨 ‘안보관광지’를 꾸리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수역인 서해 5개 섬과 수역을 관광상품화하겠다는 것은 화약고 위에 놀이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
- 이들은 또 “서해 5개 섬을 국제관광지로 만들려하는 것은 저들의 범죄적인 북침전쟁준비책동을 가리우고 불법무법의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기정사실화하며 서해수역 영유권을 공인받아보려는 것”이라며 “관광객들까지 끌어들이어 인간방패로 삼아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결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

기타 (대남)

- [北 정부 대변인 성명(6.28)] 강원도 철원군 我軍 백골부대를 비롯한 전방부대들에서 “존엄을 중상 모독하는 구호를 내걸고 반공화국 적대감을 고취했다”며 “전군·전민·전민족적 보복성전 威脅(6/29, 중통·중방)
- 「민화협」 대변인, 6.28 담화를 통해 “보안법을 휘둘러 통일운동단체 관계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 및 ‘보안법’과 ‘北인권법’을 “반인권적·반인륜적 악법”이라며 “철폐 및 조작책동 중지” 촉구(6/28, 중통·중통)
- [北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6.29)] “南 전방부대의 ‘北 비난구호’ 관련 새로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해당한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6/29, 중통·중방)
- [北 「조평통」, 청와대에 보내는 긴급통지문 공개(6.29)] ‘北 비난구호’ 관련 “즉각 사죄와 주모자 엄벌, 모든 구호 철거 요구” 및 도발행위 방임시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과 무자비한 징벌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 위협(6/29, 중통)
- 北, ‘금강산지구 內 남측자산 정리 접촉’(6.29) 관련 “남측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統一部가 北-남측기업간 접촉을 차단해 무산되었다”며 責任轉嫁(6/29, 우리민족끼리)
- 南 당국의 ‘北 사과(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와 南北비핵화회담 분리대응’ 시사는 “北美대화 와 6자회담재개 방해속심”이라고 再次 비난(6/30, 중통·노동신문)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5·6월

북한동향 일지

〈5월 일지〉

보도일자	내 용
5/1, 중통·중방	김영남·최영림·양형섭 등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내각·성·중앙기관·黨·정권기관 일꾼 등, 5.1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축하 방문 등 노동자들과 「5.1절」기념
5/2, 중통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5.2 룩셈부르크 그리스도교 사회인민당 출신 유럽의회위원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5/2, 중통·중방	北노동당대표단-루마니아사회주의당대표단, 5.2평양에서회담진행
5/2, 중통·평방	北외무성, 5.2 궁석웅(외무성 부상) 참가下'유럽동맹최고위급대표단訪北10돌'을 기념하여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개최
5/3, 중통	北박의춘 외무상, 5.3 폴란드 헌법절 즈음 同國외무상에게 축전
5/4, 중통·중방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1만㎡) 개관식 참석
5/5, 중통·평방	김영남, 5.5 駐北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로부터 신임장 접수 및 담화
5/5, 중통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5.5 독일 조선의원단 위원장과 담화
5/5, 중통	박의춘 외무상, 5.4 니제르공화국 외무상에 임명된 '모하메드 바줌'에게 축전
5/6, 중·평방	김정일, 평양시내 경공업공장들 (평양방직공장·낙랑봉화피복공장·봉화비누공장·평양수지연필공장) 현지지도
5/6, 중통	박의춘 외무상, 5.6 의례방문 駐北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담화
5/7, 중방·중통	김정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平南) 현지지도
5/8, 중방	김정일, 원산 은하피복공장 지배인 등에게 「감사」 전달
5/9, 중방·중통	김정일,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공연 관람
5/9, 중방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
5/10,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5.4~5.5 혜산청년광산·운흥제련소와 운흥광산기계공장 현지 요해
5/10, 중방·중통	지재룡 駐中北대사, 5.9 中國국방부장 '랑광렬'(梁光烈) 의례방문
5/10, 중방·중통	北노동당 대표단(김영일, 黨비서)과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안데르스 칼손' 단장) 회담, 5.10 평양에서 진행
5/10, 중통	박의춘 외무상, 5.10 美'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美비정부단체 '사마리탄즈 퍼스' 회장) 일행과 담화
5/11, 중통	박의춘 외무상, 5.10 네팔 외무상 '우펜드라 야다브'에게 축전
5/12, 중방·중통	김정일, 구장양어장(平北구장군 소재) 현지지도
5/12, 중통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5.12 만수대의사당에서 訪北'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美비정부단체 '사마리탄즈 퍼스' 회장) 일행과 담화
5/12,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5.12 신임 니제르 수상에게 축전
5/13, 중통·평통	김영남, 5.13 캄보디아 국왕 생일 58돌 관련 축전 발송
5/14, 중방	김정일, "혁명사적사업에 기여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보도일자	내 용
5/15, 중방	김父子묘향산지구 현지지도 30돌 기념 보고회, 5.14 이만건(평안북도 당책/보고)참가다진행
5/16, 중방	김정일, “우리(北) 식의 자소전국 생산기술 개발과 도입에서 모범을 보인” 발명총국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
5/17, 중통	김정일, 김일성생일 전문을 보내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
5/18, 중통·중방	김정일, 5.17 러시아연방 대외정보국 대표단(단장: 엠.예.프라드코브 국장) 접견 및 만찬 마련
5/18, 중통·중방	김정일, 咸南웅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 현지지도
5/18, 중통	김영남, 5.18 만수대의사당에서 국제의회동맹 총서기(‘안데르스 오펜’) 일행과 담화
5/19, 중통·중방	김영남, 5.17 카메룬공화국 창건 39돌 즈음 同國대통령에게 축전
5/20, 연합뉴스	김정일 訪中(방중), 새벽 투먼(圖們)에 도착한 뒤 오전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에 도착
5/20, 중통	김영남, 5.20 中國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대표단(단장 : 진중홍 부주석)과 담화및 김정일에게 보내는 선물 접수
5/20, 중통·중방	김영남, 5.20 再選된 차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
5/20, 중통·중방	최영림, 5.20 再任된 쿠웨이트 내각수상에게 축전
5/20, 중통·중방	최영림, 5.20 말리공화국 新任수상에게 축전
5/21, 연합뉴스	김정일, 중국 창춘(長春) 이치자동차 방문
5/21, 중통	박의춘 외무상, 5.20 쿠웨이트 외무상에게 再任축전
5/21, 중통	박의춘 외무상, 5.21 ‘블랙불가담나라 외무상 회의’ 참가차 인도네시아 향발
5/23, 연합뉴스	김정일, 중국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시내 한장개발구를 방문
5/23, 연합뉴스	김정일, 중국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영빈관 인근의 대형 할인마트를 깜짝 방문
5/23, 중통·중방	김영남, 5.23 에리트레아독립 20돌 즈음 同國대통령에게 축전
5/24, 연합뉴스	김정일, 중국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영빈관을 출발해 난징(南京)에 도착
5/24, 연합뉴스	김정일, 중국 난징(南京)에서 중국 최대 전자업체인 판다전자(熊貓電子)를 방문
5/24, 중통	김정일, ‘남부성’ 할아버지(咸北무산군 남산노동자구)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
5/24, 중통·중방	美국무성 대표단(단장 : 인권 및 인도주의문제 담당 특사 ‘로버트 킹’), 5.24 “北-美간 인도주의 문제 협의차” 평양 도착
5/24, 중통	김영남, 5.24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태국대사(‘피암싸크 밀린타친다’) 신임장 접수 및 담화
5/24, 중통	김영남, 5.24 요르단 독립 65돌 즈음 同國국왕에게 축전
5/25, 연합뉴스	김정일 베이징 도착..조어대 여장
5/25, 연합뉴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담에서 3시간이 넘는 정상회담과 만찬
5/25, 중통·평방	김영남, 5.25 ‘아프리카의 날’ 즈음 아프리카동맹추위원장에게 축전

보도일자	내 용
5/25, 중방	박의춘 외무상, 5.23 인도네시아 '발리' 도착
5/26, 중통·중·평방	김정일, 5.20~26 호금도 주석 초청에 의해 중국 비공식 방문
5/26, 중통	박의춘 외무상, 5.21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과의 외교관계 설정 35돌 즈음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
5/27, 중통·중방	김정일, 5.20~26 中동북지역과 화동지역 비공식 방문
5/27, 중통·중방	김정일, 5.27 中비공식 방문 後귀국
5/27, 중방	北박의춘 외무상, 5.25 '비동맹국가 외무상 회의'(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연설
5/27, 중통	김영남, 5.27 에티오피아 국경절 20돌 즈음 同國대통령에게 축전
5/27, 중통	박의춘 외무상, 말리 공화국 외무 및 국제협조상에게 任命축전
5/28, 중통	박의춘 외무상, 5.26~27 '블랙불가담나라'(비동맹국가) 외무상회의의 참가 나미비아·이란·알제리·캄보디아 대표들과 各各담화
5/28, 중방·중통	김정일·정은,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5/28, 중통·평방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5.28 아제르바이잔 국경절 즈음 同國대통령과 외무상에게 各各축전
5/28, 중방·중통	김영남, 5.27 코트디부아르 新任대통령 취임 및 세이셸 대통령 再選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各各축전
5/29, 중통·중방	김정일·김정은,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訪中성과 축하" 음악무용종합공연 관람 및 「감사」 전달
5/29, 중방	김정일, 노력영웅 조옥희 등에게 「칠순 생일상」 전달
5/30, 중방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 일행, 5.28 나이지리아 도착 및 대통령 취임식 참석
5/31, 중방·중통	최영림 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현지 요해
5/31, 중방·중통	최고인민회의 상임족, 5.31 리무영(화학공업상) 내각 부총리 임명 '정령 제1674호' 발표
5/31, 중방·중통	김영남, 5.31 駐北 알제리 대사(하산 라베히) 신임장 접수
5/31, 중방·중통	김영일(黨 비서), 5.31 프랑스 조선연구그룹바 대표단과 담화

〈6월 일지〉

보도일자	내 용
6/1, 중통·평방	김영남, 6.1 駐北 가나 대사(헬렌 맘레 코피)에게 신임장 접수 및 담화
6/1, 중통·평방	김영일 黨비서, 6.1 駐北 알제리 대사(하산 라베히)와 담화
6/1, 중통·평방	김영남, 6.1 이탈리아 통일 15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6/2, 중통·중방	김정일, 현대적으로 확장된 자연과학연구소·강원도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
6/2, 중통	김정일과 김영남, 6.2 쿠바공산당 제1비서(‘라울 카스트로 루쓰’)에게 80돌 생일 축전 발송
6/2, 중통·중방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5.31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총 6장 41조) 채택 정령 제1673호 발표
6/2, 중통	김영남, 6.2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와 離任 담화
6/2, 중통	박의춘 외무상과 김영일 黨비서, 6.2 新任 알제리·가나·베트남 대사와 담화
6/3, 중통	김정일, 6.3 라오스 주석 ‘쫘말리 싸이나싼’ 생일 75돌 축전
6/3, 중통·중방	최영림 내각 총리,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방문 및 “관계부문 일꾼협의회 조직” 등 현지 요해
6/3, 중통·평방	김영남, 6.3 프랑스 조선연구그룹 대표단과 담화
6/4, 중통·평방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 인도네시아 공화국 北 대사에 ‘이정률’ 임명
6/5, 중통	김정일, 대외건설자들의 예술소조공연 관람
6/6, 중통·평방	김영남, 6.6 스웨덴 국경절 즈음 同國 국왕에게 축전
6/7, 중방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
6/7, 중통·중방	최영림 내각 총리, 6.2~4 양강도내 경제사업 실태들 현지 了解
6/7, 중통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6.7 베트남 친선대표단과 담화
6/8, 중통	김영남·박의춘, 6.8 駐北 멕시코 대사(‘마르타 오르티스 데 로싸스’) 신임장 접수 및 담화
6/9, 중통·중방	김영남, 6.6 포르투갈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6/9, 중통·중방	北-中, 6.8 - 9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와 라선경제무역지대 朝中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대상」 착공식 진행 (北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리수용(합영투자위 위원장)·리만건(平北 黨責)·림경만(라선시 黨責)·최종건(平北 인민위 위원장)·조정호(라선시 인민위 위원장) 참석)
6/11, 중통	김정일·정은, 인민군 제534군부대 등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
6/11, 중통	김정일, 흥남가스화대상공사 지원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6/12, 중통·평방	김영남, 6.12 중국 공산당 대표단과 담화
6/12, 중통·평방	최영림 내각 총리, 6.10 新任 우간다 총리(‘아마마 음바바지’)에게 축전
6/12, 중통·중방	김영남·최영림 내각 총리, 6.12 러시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드미트리 아나톨리예비치 메드베제브’)에게 축전

보도일자	내 용
6/13, 중통·중방	김정일·정은, 6.13 중국 공산당 대표단 접견 및 오찬 마련
6/14, 중통	김영남, 6.10 페루공화국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축전
6/14, 중통	김영남, 6.13 라트비아공화국 대통령에게 黨選 축전 발송
6/15, 중통·평방	김영일(黨 비서), 6.15 이탈리아 좌익인민공산주의자당 국제부장 ‘알폰소 갈디’ 일행과 담화
6/15, 중통	박의춘 외무상도 6.15 스위스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
6/16, 중방	김정일, “경제선동대 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기동예술선동대원 등에 「감사」 전달
6/16, 중통	최영림 내각 총리, 6.15 라오스 정부 수상에 임명된 ‘통성 탐마왕’에게 축전
6/16, 중통	박의춘 외무상, 6.16 라오스 외무상에 再任된 ‘통룬 씨수릿’에게 축전
6/17, 중방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지원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6/17, 중통·평방	김영남, 6.15 再選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
6/18, 중방·중통	최고인민회의 상임투 ‘정령’, 駐獨일 北대사 리시흥 임명
6/18, 중방·중통	김영남, 6.18 英國 여왕(‘엘리자베스’ 2세) 생일(국경절) 즈음 축전 발송
6/19, 중방·중통	최고인민회의 상임투 ‘결정 제56호’(6.18), 道(직할시)·市(구역)·郡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책’ 조직(위원장 : 양형섭, 부위원장 : 최룡해, 서기장 : 변영림, 위원 : 리명수·리용철·현상주·리명길·노성실·김영호)
6/19, 중방	최고인민회의 상임투 ‘정령 제1701호’(6.11), 15개 단위에 「2중3대혁명붉은기」·69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6/19, 중통	최영림 내각 총리, 6.18 베닌공화국 수상에 임명된 ‘빠스칼 이레네 구바끼’에게 축전
6/19, 중통	최영림 내각 총리, 6.18 고프디바르공화국 수상에 임명된 ‘기욤 끼그바포리 쓰로’에게 축전
6/19, 중통	박의춘(외무상), 6.18 고프디바르공화국 외무상에 임명된 ‘다니엘 까블랑 둔강’에게 축전
6/22, 중방·중통	北, 6.21 道(직할시)·市(구역)·郡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 조직
6/22, 중방·중통	김영남, 6.21 룩셈부르크대공국 대공에게 국경절에 즈음하여 축전
6/22, 중방·중통	김영남, 6.21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러시아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
6/23, 중통	최영림 내각 총리, 인민경제 여러부문 현지了解(황해제철연합기업소, 평양방직기계공장, 평양신발공장, 강원도 천내군 시멘트공장,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 온실건설장 등)
6/23, 중통	박의춘 외무상, 6.23 新任 이탈리아 대사 ‘세르지오 메르귀리’와 담화
6/23, 중통	박의춘 외무상, 6.22 新任 그리스 외무상에게 축전 발송
6/24, 중방	김정일, “모범적인 선동원들”에게 「감사」 전달
6/25, 중방·중통	道(직할시)·市(구역)·郡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분구들, 6.24 조직
6/25, 중통·평방	김영남, 6.25 흐르바쯔카공화국(크로아티아) 대통령에게 국경절 즈음 축전

보도일자	내 용
6/25, 중통	박익춘 외무상, 6.25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상에게 국경절 즈음 축전
6/26, 중통	김영남, 6.26 지부티공화국 독립 34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6/26, 중통	최영림 내각 총리와 박익춘 외무상, 6.24 新任 포르투갈 수상과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
6/27, 중방·중통	김정일, 6.27 故 김창익(김책공업종합대학 실장) 빈소에 화환 전달
6/27, 중방·중통	최영림 내각 총리, 6.23~25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咸鏡北·南道 공업부문 사업 현지방문 요해 및 '협의회' 조직
6/27, 중통·평방	최영림, 6.27 중국 요녕성 黨 및 정부 대표단과 담화
6/28, 중통·평방	최영림 내각 총리, 6.27 핀란드수상에 임명된 '위르끼 까따이넨'에게 축전
6/29, 중통	김영남, 6.28 '제17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 수뇌자회의' 개최 관련 축전 발송
6/30, 중방·중통	김정일, 중국 공산당 창건(7.1) 90돌 즈음 '후진타오'(胡锦涛) 국가 주석에게 '北-中친선 不變' 강조 축전 발송
6/30, 중통	駐北 中 대사 '류홍재', 6.30 김영남·최영림(내각 총리)·김기남(黨 비서/연설) 등 초청下 自國 공산당 창건 90돌 경축연회 개최
6/30, 중통·평방	최고인민회의 상임투 '정령', 남아프리카공화국 駐在 北 대사 조영만 임명
6/30, 중방·중통	최영림 내각 총리, 6.29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강철생산정형 현지요해 및 '협의회' 소집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